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8**



# 목 차

## 제1장 서장

- 1. 서론 ..... 12
- 2. 조사배경 및 조사목적 ..... 14
-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 17
-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 22

## 제2장 통일인식

- 1. 서론 ..... 40
- 2. 통일의 필요성과 바람 ..... 41
- 3. 통일의 이유 ..... 44
- 4. 통일의 방식과 예상시기 ..... 46
- 5. 통일에 대한 기대이유 ..... 49
- 6. 통일정책에 대한 효용감 ..... 51
- 7. 심화 분석 ..... 53
- 8. 소결 ..... 57

## 제3장 대남인식

- 1. 서론 ..... 62
- 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 64
- 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 67
- 4. 북한주민의 북핵 및 대남 위협 인식 ..... 74
- 5.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 76
- 6. 소결 ..... 82

## 제4장 북한실태인식

- 1. 서론 ..... 88
- 2. 북한주민의 정치인식 ..... 90
- 3. 북한주민의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 ..... 103
- 4. 북한주민의 경제인식 ..... 113
- 5. 소결 ..... 117

##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 1. 서론 ..... 122
- 2. 흩어지는 북한주민의 마음 ..... 124
- 3. 미국발 공포의 증가 ..... 131
- 4.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북한주민의 마음 ..... 137
- 5. 소결 ..... 141

## 제6장 북한주민 남한적응실태

- 1. 서론 ..... 146
- 2.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포용감 ..... 147
- 3. 남한생활의 만족도 ..... 151
- 4. 탈북을 결심하게 된 원인 ..... 154
- 5. 지원정책과 적응의 어려움 ..... 156
- 6. 소결 ..... 160

## 제7장 결장

- 결장 .....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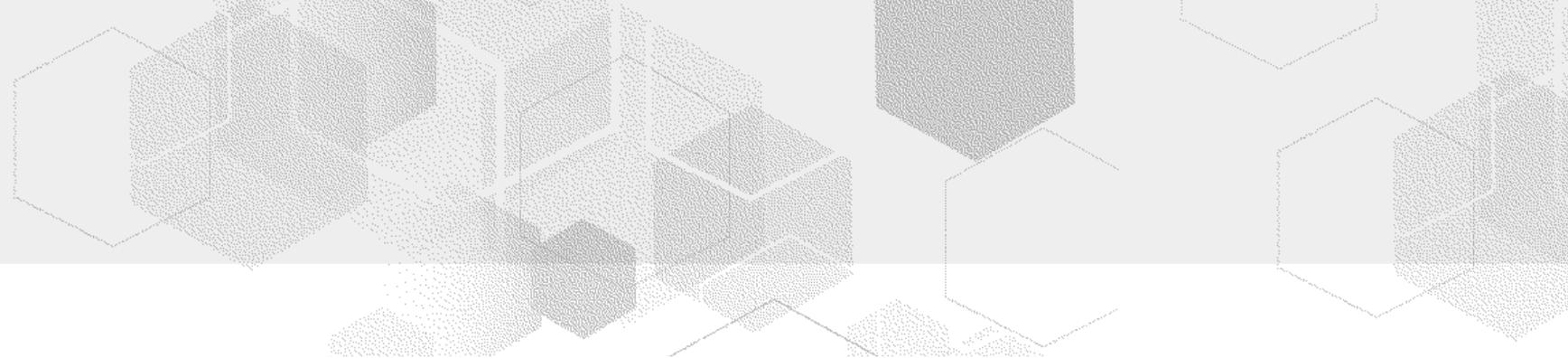
- 부록 집계표 2018 ..... 174
- 설문지 2018 ..... 260

## 표목차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19	〈표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65
〈표 1-2〉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통계	20	〈표 3-2〉 남한의 대북지원 현황	77
〈표 1-3〉 북한주민 통일인식 조사의 표본 수 및 남녀 성비	20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	124
〈표 1-4〉 성별, 연령별 분포	22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127
〈표 1-5〉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24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28
〈표 1-6〉 탈북 전 최종 거주지	25	〈표 5-4〉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30
〈표 1-7〉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26	〈표 5-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31
〈표 1-8〉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27	〈표 5-6〉 성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134
〈표 1-9〉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28	〈표 5-7〉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135
〈표 1-10〉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30	〈표 5-8〉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	137
〈표 1-11〉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31	〈표 5-9〉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38
〈표 1-12〉 장사활동 경험 유무	32	〈표 5-10〉 통일을 위한 협조 필요성	140
〈표 1-13〉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34	〈표 5-11〉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우호 관계가 필요한 국가	141
〈표 1-14〉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35	〈표 6-1〉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표 (2018)	150
〈표 1-15〉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36	〈표 6-2〉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표 (2017)	150
〈표 1-16〉 자녀의 수 분포	37	〈표 6-3〉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가까운 정도 교차표	152
〈표 2-1〉 통일정책에 대한 효용감	52	〈표 6-4〉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 후회 정도 교차표	152
〈표 2-2〉 북한주민 통일인식에 대한 로짓 고정효과 모델	56		

## 그림목차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42	〈그림 4-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91
〈그림 2-2〉	통일에 대한 바람	43	〈그림 4-2〉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93
〈그림 2-3〉	통일의 이유	45	〈그림 4-3〉	김정은 직무 평가	94
〈그림 2-4〉	통일의 방식	47	〈그림 4-4〉	생활총화 출석률	96
〈그림 2-5〉	통일의 예상시기	48	〈그림 4-5〉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 정도	97
〈그림 2-6〉	통일의 기대이익	50	〈그림 4-6〉	북한 정권 유지 기간 예상	99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65	〈그림 4-7〉	핵무기 보유 평가	100
〈그림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67	〈그림 4-8〉	집단과 개인 우선 순위	102
〈그림 3-3〉	남한문화에 대한 경험도	68	〈그림 4-9〉	사회통제 유지 정도	103
〈그림 3-4〉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도	70	〈그림 4-10〉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	105
〈그림 3-5〉	남한문화의 유통경로	71	〈그림 4-11〉	다른 지역 방문 정도	107
〈그림 3-6〉	남한문화에 대한 호감도 변화	72	〈그림 4-12〉	외부소식 접촉 경로	108
〈그림 3-7〉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73	〈그림 4-13〉	언론에 대한 신뢰도	110
〈그림 3-8〉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74	〈그림 4-14〉	인권 언어 사용	111
〈그림 3-9〉	북한 핵의 대남 위협 인식	76	〈그림 4-15〉	북한 당국의 인권 정책 평가	112
〈그림 3-1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식	77	〈그림 4-16〉	월 소득 수준	114
〈그림 3-11〉	대북 지원 규모에 평가	78	〈그림 4-17〉	경제체제 선호도	115
〈그림 3-12〉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	79	〈그림 4-18〉	경제 약화의 원인	117
〈그림 3-13〉	대북 경제 투자에 대한 평가	80	〈그림 6-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148
〈그림 3-14〉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81	〈그림 6-2〉	남한주민의 포용성	149



## 그림목차

〈그림 6-3〉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	154
〈그림 6-4〉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156
〈그림 6-5〉	남한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157
〈그림 6-6〉	적응에 도움을 준 정부이외의 단체	158
〈그림 6-7〉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 중요한 요인들	159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서장



## 제1장 서장

### 1. 서론

최근 서울과 개성을 잇는 경의선 철로를 현대화하고 동해안 철도를 복원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이 방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통일에 대해 주춤했던 국민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철로를 연결하는 것은 남과 북이 전쟁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환경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로 분단되어 살아온 탓에 나뉜 두 마음을 복원하는 심리적인 변화까지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남과 북이 서로 소통을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일은 단순히 각기 다른 제도를 가진 국가의 통합을 넘어 서로 다른 의식과 가치를 가진 집단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혹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즉,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왜 통일을 해야한다 생각하는지, 통일의 방식과 더불어 서로의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파악하지 않고 통일을 추진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과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다. 분단의 상태가 오래될수록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먼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한주민들이 통일의 여러 부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올 2018년까지 매년 남한 국민의 통일의식을 조사하여, 시기에 따라 변화해 온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간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서로의 생각의 다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의 생각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동 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비슷한 설문문항을 가지고 묻고 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직접 북한에 들어가 주민들을 설문조사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제약을 간접적으로나마 극복하고자 동 연구원에서는 가장 최근에 북한을 넘어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에게 그들이 “북한에 살고 있을 때”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응답시점은 조사시점보다 최소 1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올해 조사의 경우 그들의 응답은 2018년이 아닌 2017년의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랐던 해였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대·내외적 선언 후 북한은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큰 위협을 가하였고, 이는 곧 대대적인 국제제재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2017년 11월 신형 대륙간탄도인 ‘화성-15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천명하였고, 이후에는 군사력보다는 경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병진노선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집권 6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정권은 여러 대내외적 악재를 극복하며 순항 중

이고, 이러한 체제의 안정은 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후 2018년 들어 남북관계는 가히 대전환이라 할 만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8년 2월의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동시입장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이 한 걸음 더 성큼 앞서 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이 통일과 서로의 체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서로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되는 어떠한 통일정책도 그 정책의 효용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사회통합의 모습 또한 이러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온전히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이해를 이루고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2.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국내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고, 관련 조사의 양적 데이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남북하나재단이 주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를 전수조사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수많은 조사들과 연구들은 대체로 남한사회 안에서 그들의 삶과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의식을 파악하려거나 통일에 초점을 두고 이뤄진 조사는 부재하였다.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남북 간의 사회통합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사회통합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을 파악하고 있다.

남북한주민이 통일과 통합의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가길 원한다면 남한주민의 통일외식조사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은 어떠한 남한주민의 통일외식과의 차이점 및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외식』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우선, 이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 통일, 북한실태, 남한사회, 남한의 대북정책, 주변국 관계, 남한사회 적응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둔다. 둘째, 이 조사의 결과는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남북통합지수』의 의식 부문 통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이 조사의 결과는 남한주민의 통일외식조사의 결과와 비교 분석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사회통합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된다.

북한주민 통일외식조사는 북한지역의 현장조사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방법론상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한계점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미 남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가 과연 실제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은 매우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주민만의 통일외식을 가지고 남북한 모두의 통일을 논하는 것 또한 '절름발이'식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제약 속에서 가능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남북한 주민 모두의 통일외식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그에 기반하여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조사의 설문 내용은 크게 6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설문 범주는 통일외식이다. 통일외식에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도, 통일의 이유, 통일 가능시기 예상, 통일의 집합적·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 대북정책의 통일 기여도, 통일 방식,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 통일 후 거주지역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대남외식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관계외식,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남한문화의 접촉 여부,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남한의 핵무기 위협수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 여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성,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효과성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는 북한실태 변화이다. 이 범주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수준, 정치적 비판 행위,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 장사인구의 규모, 직장 내 생산규율의 실효성, 생활총화, 경제체제의 선호도, 거주 이동의 자유,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생활비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2018년도에는 인권에 대한 항목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네 번째 범주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으로, 2012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주변국의 친밀감,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주변국의 통일 희망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로서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생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남한 거주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 적응에 도움을 받은 경로,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2018년도에는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묻는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마지막 범주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설문이다.

이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의 의식이나 태도를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 혹은 다른 북한주민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sup>1)</sup> 따라서 질문의 형식은 다섯 번째 설문 범주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 …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제시되었다.

〈표 1-1〉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표본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에는 표집의 기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시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표본의 탈북시기가 제각각이다. 이와 같은 표집방법은 표본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용이하지만 탈북시기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실태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1년 조사부터는 표본의 탈북시기를 동일하게 맞춰 조사가 진행되는 직전 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표집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실태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모집단의 규모가 크게 줄면서 표본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져 표집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1) 2018년 설문지는 책 뒤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단위: 명)

조사연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사기간	7월	10월	4/15-6/4	4/6-6/2	6/13-7/16	5/20-7/7	7/1-7/24	6/10-8/8	6/8-8/6	7/20-8/31
입국연도	응답자	응답자								
2000년 이전	54	78								
2001 - 2004	87	94								
2005 - 2008	142	-								
2005 - 2009	-	175								
무응답	13	23								
탈북연도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2010			104	-	-	-	-	-	-	-
2011			1	127	-	-	-	-	-	-
2012			-	-	133	-	-	-	-	-
2013			-	-	-	149	-	-	-	-
2014			-	-	-	-	146	-	-	-
2015	-	-	-	-	-	-	-	135	-	-
2016	-	-	-	-	-	-	-	3	-	-
2017		-	-	-	-	-	-	-	132	84
2018		-	-	-	-	-	-	-	-	3
총 계	296	370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조사방법	하나원 방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내용										
통일인식	Y	Y	Y	Y	Y	Y	Y	Y	Y	Y
대남인식	Y	Y	Y	Y	Y	Y	Y	Y	Y	Y
북한실태 변화	Y	Y	Y	Y	Y	Y	Y	Y	Y	Y
남한적응 실태	-	-	Y	Y	Y	Y	Y	Y	Y	Y
주변국 인식	-	-	-	Y	Y	Y	Y	Y	Y	Y

2011년 조사부터 표집방법은 1차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을 돕고 있는 전국의 하나센터와 탈북자단체 및 탈북자지원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였고, 1차로 모집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눈덩이표집(snowballing) 방법으로 2차 표집이 이뤄졌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되었다. 2011년부터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연구 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일부는 조사 연구원이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표 1-2〉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통계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2 (잠정)
남	759	404	369	305	251	302	188	168
여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합계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여성 비율(%)	71	73	76	78	80	79	83	85

자료: 통일부 이북주민정책, 입국현황

〈표 1-3〉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의 표본 수 및 남녀 성비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남성	여성														
36 (34.3)	69 (65.7)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8 (43.7)	49 (56.3)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한 가지 특기할 점은 2018년 조사에서 표본 수가 이전 해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올해의 표본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을 나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으로 바로 들어오는, 이른바 직행탈북자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년 집계되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자료(〈표 1-2〉)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조사의 표본에서는 여성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표 1-3〉).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직행탈북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다시 통일부 통계를 보면 특히 2018년에는 남성의 비율이 15%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많은 수의 남성이 본 조사의 표본이 되는 직행탈북자라 할 때, 이러한 남성 탈북자의 감소는 곧 본 조사의 표본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본 조사 중 몇몇 탈북자들로부터 탈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예전에 비해 어려워졌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국경선이 3선 경비로 체계화되고, 철조망이 보수작업을 거쳐 공고화되고, 당이 경비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경 경비와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되었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감청기와 전파차단기의 보급으로 중국과의 통신이 어려워진 점도 탈북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본 조사의 표본 수 또한 향후에도 늘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 (1) 성별·연령별 분포

〈표 1-4〉는 8년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2018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43.7%, 여성 56.3%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성의 비율은 약 9.3% 감소했고, 여성의 비율은 약 9.3% 증가했다. 2017년 성비역전현상에서 다시 예년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 37.9%, 30대 24.1%, 40대 11.5%, 50대 21.8%, 60대 이상 0.0%로 60대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표 1-4〉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남성 (%)	여성 (%)														
10대	0 (0.0)	0 (0.0)	0 (0.0)	0 (0.0)	1 (33.3)	2 (66.7)	2 (66.7)	1 (33.3)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3 (7.9)	1 (2.0)
20대	13 (41.9)	18 (58.1)	22 (51.2)	21 (66.7)	24 (52.2)	22 (47.8)	15 (33.3)	30 (66.7)	16 (36.4)	28 (63.6)	14 (26.9)	38 (73.1)	24 (51.1)	23 (48.9)	14 (36.8)	19 (38.8)
30대	12 (40.0)	18 (60.0)	11 (47.8)	12 (52.2)	17 (58.6)	12 (41.4)	13 (46.4)	15 (53.6)	20 (44.4)	25 (55.6)	16 (50.0)	16 (50.0)	24 (61.5)	15 (38.5)	11 (28.9)	10 (20.4)
40대	6 (37.5)	10 (62.5)	10 (32.3)	21 (67.7)	11 (28.9)	27 (71.1)	12 (30.8)	27 (69.2)	13 (35.1)	24 (64.9)	15 (44.1)	19 (55.9)	16 (59.3)	11 (40.7)	5 (13.2)	5 (10.2)
50대	1 (6.7)	14 (93.3)	6 (35.3)	11 (64.7)	7 (43.8)	9 (56.3)	6 (31.6)	13 (68.4)	6 (37.5)	10 (62.5)	7 (43.8)	9 (56.3)	5 (29.4)	12 (70.6)	5 (13.2)	14 (28.6)
60대 이상	4 (30.8)	9 (69.2)	7 (53.8)	6 (46.2)	0 (0.0)	4 (100.0)	2 (13.3)	13 (86.7)	2 (66.7)	1 (33.3)	1 (25.0)	3 (75.0)	1 (50.0)	1 (50.0)	0 (0.0)	0 (0.0)
합계	36 (34.3)	69 (65.7)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8 (43.7)	49 (56.3)

##### (2)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 및 재북 거주지

응답자들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1〉에 나타나듯 2011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05명 중 104명은 2010년에 탈북했고, 1명은 2011년에 탈북했다. 이들 중 89명이 2010년에 입국했으며, 14명이 2011년에 입국했다. 2012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27명은 모두 2011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다. 2013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3명의 경우에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2명은 2012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3년에 입국했다. 2014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9명 중 141명이 2013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8명은 2013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4년에 입국했다. 2015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6명은 모두 2014년도에 탈북했으며, 이 중 129명은 2014년도에 입국했으며, 17명은 2014년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5년에 입국했다. 2016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8명 중 135명이 2015년도에 탈북하였으며, 이 중 99명이 같은 해 입국하였고 36명이 2016년 입국하였다. 2016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 입국한 응답자는 3명이었다. 2017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2명 중 132명이 2016년도에 탈북하였으며, 이 중 113명이 같은 해에 입국하였고, 19명은 2017년도에 입국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87명 중 83명이 2017년도에 탈북하였고 이 중 19명이 이듬해인 2018년에 남한에 입국하였다.

각 조사의 응답자들이 탈북하여 입국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평균 3.63개월, 2012년 평균 3.57개월, 2013년 평균 3.37개월, 2014년 평균 2.26개월, 2015년 평균 2.49개월, 2016년 3.33개월, 2017년은 2.82개월, 2018년은 3.06개월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탈북과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이 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

중이 2015년 69.8%, 2016년 44.9%, 2017년 61.4%, 2018년 51.7%를 보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탈북하여 바로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패턴을 반영하여 이들을 '직행탈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1-5〉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조사 연도 소요 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개월 미만	0.0	0.0	0.0	3.4	0.0	1.4	1.5	2.3
1개월	2.9	1.6	0.0	26.8	30.8	21.0	27.3	27.6
2개월	25.7	18.1	29.3	48.3	39.0	22.5	32.6	21.8
3개월	38.1	48.8	47.4	8.1	14.4	15.2	12.1	10.3
4개월	14.3	14.2	8.3	2.0	6.8	14.5	8.3	20.7
5개월	1.0	6.3	5.3	4.7	2.1	15.2	8.3	5.7
6개월	2.9	4.7	1.5	2.7	1.4	2.9	2.3	4.6
7개월	5.7	0.8	3.8	2.0	0.7	1.4	0.8	1.1
8개월	1.9	2.4	1.5	1.3	0.0	0.7	3.8	4.6
9개월	0.0	0.8	0.8	0.7	1.4	1.4	2.3	0.0
10개월	2.9	1.6	2.3	0.0	3.4	0.7	0.0	0.0
11개월	1.9	0.8	0.0	0.0	0.0	1.4	0.8	0.0
13개월	-	-	-	-	-	-	-	1.1
무응답	2.9	0.0	0.0	0.0	0.0	1.4	0.0	0.0
평균(개월)	3.63	3.57	3.37	2.26	2.49	3.33	2.82	3.06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응답자들의 탈북하기 전 최종 거주지 분포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6〉에 나타나듯,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의 응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조사에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0.5%, 2012년 81.9%, 2013년 82.5%, 2014년 83.9%, 2015년 84.9%, 2016년 87.7%, 2017년 88.6%, 2018년 82.8%를 보이고 있다.<sup>2</sup> 이러한 응답자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탈북 현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6〉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양	0 (0.0)	0 (0.0)	1 (0.8)	3 (2.0)	3 (2.1)	5 (3.6)	2 (1.5)	2 (2.3)
개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8)	1 (1.1)
남포	0 (0.0)	1 (0.8)	0 (0.0)	2 (1.3)	1 (0.7)	2 (1.4)	1 (0.8)	0 (0.0)
평안남도	5 (4.8)	0 (0.0)	2 (1.5)	4 (2.7)	3 (2.1)	2 (1.4)	0 (0.0)	2 (2.3)
평안북도	0 (0.0)	1 (0.8)	6 (4.5)	0 (0.0)	3 (2.1)	1 (0.7)	1 (0.8)	5 (5.7)
함경남도	4 (3.8)	14 (11.0)	11 (8.3)	9 (6.0)	5 (3.4)	4 (2.9)	6 (4.5)	4 (4.6)
함경북도	55 (52.4)	65 (51.2)	51 (38.6)	53 (35.6)	64 (43.8)	58 (42.0)	33 (25.0)	20 (23.0)
자강도	0 (0.0)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양강도	40 (38.1)	39 (30.7)	58 (43.9)	72 (48.3)	60 (41.1)	63 (45.7)	84 (63.6)	52 (59.8)
황해남도	0 (0.0)	3 (2.4)	0 (0.0)	1 (0.7)	1 (0.7)	0 (0.0)	4 (3.0)	1 (1.1)
황해북도	1 (1.0)	3 (2.4)	1 (0.8)	2 (1.3)	4 (2.7)	0 (0.0)	0 (0.0)	0 (0.0)
강원도	0 (0.0)	1 (0.8)	2 (1.5)	2 (1.3)	2 (1.4)	3 (2.2)	0 (0.0)	0 (0.0)
무응답	0 (0.0)	0 (0.0)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2)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12월 말 입국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지 중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비중은 각각 60.0%, 16.3%를 차지한다.

(3) 교육수준·직업 분포

응답자들의 교육수준 분포를 보면, 고등중학교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 조사에서 고등중학교 학력의 응답자 비중은 2011년 66.7%, 2012년 65.4%, 2013년 71.4%, 2014년 66.7%, 2015년 61.0%, 2016년 74.6%, 2017년 72.0%, 2018년 73.6%로 나타났다. 남한의 전문대학교에 상응하는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32.4%, 2012년 28.3%, 2013년 27.8%, 2014년 31.6%, 2015년 36.3%, 2016년 24.6%, 2017년 25.0%, 2018년 19.5%로 나타나 고학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도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7〉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학교	11.4	10.2	16.5	13.6	19.9	13.0	7.6	5.7
전문학교	21.0	18.1	11.3	18.0	16.4	11.6	17.4	13.8
고등 중학교	66.7	65.4	71.4	66.7	61.0	74.6	72.0	73.6
인민학교	1.0	3.2	0.0	1.6	2.1	0.7	2.3	6.9
무학	0.0	1.6	0.8	0.6	0.7	0.0	0.8	0.0
무응답	-	1.6	-	-	-	-	-	-
합계(N)	105	127	133	147	146	138	132	87

응답자들의 북한에서의 직업 분포를 보면, 〈표 1-8〉에서 보이듯 2017년 보다는 응답률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직업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동자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 27.6%, 2012년 37.0%, 2013년 31.6%, 2014년 30.6%, 2015년 26.0%, 2016년 22.5%, 2017년

43.9%, 2018년 32.2%이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범주는 각 조사에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사무원(12.4%)이, 2012년에는 장사(11.1%)와 주부(11.1%)가, 2013년에는 주부(16.5%)가, 2014년에도 주부(19.1%)가, 2015년에는 장사(20.5%), 2016년에는 주부(13.0%), 2017년에는 주부(10.6%), 2018년에는 주부(21.8%)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이었다. 특히, 장사의 비중이 2014년 4.8%에서 2015년 20.5%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12.3%), 2017년(9.8%), 2018년(0.0%)로 떨어졌다.

〈표 1-8〉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노동자	27.6	37.0	31.6	30.6	26.0	22.5	43.9	32.2
농민	8.6	8.7	3.8	7.5	4.8	9.4	3.8	11.5
사무원	12.4	4.7	9.8	12.2	8.9	10.9	6.1	6.9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7.6	7.1	8.3	3.4	5.5	7.2	7.6	0.0
학생	6.7	6.3	6.0	7.5	4.8	4.3	2.3	13.8
군인	5.7	3.9	4.5	4.8	4.8	8.0	5.3	3.4
외화벌이일군	1.0	2.4	2.3	0.0	4.1	2.9	3.8	0.0
장사	10.5	11.1	13.5	4.8	20.5	12.3	9.8	0.0
주부	10.5	11.1	16.5	19.1	11.6	13.0	10.6	21.8
무직 및 기타	3.8	6.3	3.8	10.2	8.2	9.4	6.8	10.3
무응답	5.7	1.6	-	-	0.7	-	-	-
합계(N)	105	127	133	147	146	138	132	87

(4) 당원 가입 여부

응답자의 당원 여부는 <표 1-9>에서 보이듯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비중은 2018년 조사에서 13.8%에 불과하고, 반면에 비당원의 비중은 85.1%를 차지한다. 연도별 당원과 비당원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조사에서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직업 분포를 보면, 사무원 30.8%, 노동자 19.2%, 군인 19.2%의 순서로 비중이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모두 합한 경우에서 직업별 당원 비중을 보면, 노동자>사무원>군인 순서로 비중이 많이 나타났으나, 2015년의 경우에는 노동자>사무원>전문가 순서로 당원 비중이 높게 나왔다. 2016년에는 사무원의 수가 가장 높았고 노동자와 군인의 비중이 같은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까지 비교적 높았던 전문가의 수는 2016년 3.8% 비중이 매우 낮았다. 장사, 외화벌이 직업을 가진 이는 없었다. 2017년도는 노동자(45.8%)>사무원, 군인(12.5%)>전문가, 학생(8.3%) 순으로 비중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노동자(33.3%)>사무원(25.0%)>농민(16.7%) 순으로 당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1-9>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원	9.5	14.4	14.3	13.5	17.8	18.8	18.2	13.8
후보당원	1.0	0.0	0.0	0.7	0.7	0.0	0.8	0.0
비당원	85.7	84.3	85.7	85.8	80.0	81.2	80.3	85.1
무응답	3.8	1.6	-	-	0.7	-	0.8	1.1
합계(N)	105	127	133	147	146	138	132	87

(5)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북한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원적인 수입 경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조사 역시 북한주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수준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 월수입'과 '비공식 월수입'을 조사했다. 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수준은 8년 연속 5,00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10>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응답률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월수입이 '5,000원 이하'라는 응답률은 2011년 35.2%, 2012년 36.2%, 2013년 36.8%, 2014년 26.2%, 2015년 35.6%, 2016년 26.8%, 2017년 40.9%, 2018년 20.7%이다. 또한, 공식 월수입이 '0원'이라는 응답률 역시 2011년 25.7%, 2012년 25.2%, 2013년 51.9%, 2014년 61.1%, 2015년 54.8%, 2016년 58.0%, 2017년 47.0%, 2018년 51.7%로 나타나 최근 3년 간 10명 중 5명 이상이 공식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0〉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공식 월수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원	27 (25.7)	32 (25.2)	69 (51.9)	91 (61.1)	80 (54.8)	80 (58.0)	62 (47.0)	45 (51.7)
1,000원 이하	7 (6.7)	10 (7.9)	2 (1.5)	13 (8.7)	7 (4.8)	7 (5.1)	8 (6.1)	8 (9.2)
5,000원 이하	37 (35.2)	46 (36.2)	49 (36.8)	39 (26.2)	52 (35.6)	37 (26.8)	54 (40.9)	18 (20.7)
1만원 이하	2 (21.9)	4 (3.1)	5 (3.8)	2 (1.3)	1 (0.7)	4 (2.9)	0 (0.0)	0 (0.0)
10만원 이하	6 (5.7)	9 (7.1)	0 (0.0)	3 (2.0)	4 (2.7)	5 (3.6)	2 (1.5)	9 (10.3)
50만원 이하	2 (1.9)	5 (3.9)	4 (3.0)	0 (0.0)	0 (0.0)	3 (2.2)	3 (2.3)	5 (5.7)
100만원 이하	1 (1.0)	0 (0.0)	2 (1.5)	0 (0.0)	1 (0.7)	2 (1.4)	2 (1.5)	1 (1.1)
100만원 초과	0 (0.0)	0 (0.0)	0 (0.0)	1 (0.7)	1 (0.7)	0 (0.0)	1 (0.8)	0 (0.0)
무응답	23 (21.9)	21 (16.5)	2 (1.5)	0 (0.0)	0 (0.0)	0 (0.0)	0 (0.0)	1 (1.1)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이와 대조적으로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는 점차 고소득 월수입의 응답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11〉에서 보이듯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50만 원 이하’로 2011년 23.2%, 2012년 40.4%, 2013년 40.6%, 2014년 30.3%, 2015년 29.5%, 2016년 26.8%, 2017년 34.1%, 2018년 31.0%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하’의 응답과 ‘100만 원 초과’의 응답으로 전자의 비중은 2011년 5.7%에서 2015년 (24.7%), 2016년(23.9%), 2017년(13.6%)로 감소하다 올해 13.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후자의 비중은 2011년(5.7%)에서 2015년(23.3%), 2016년(15.2%), 2017년 26.5%로 증가하다 올해 14.9%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10만 원 이하’의 응답의 비중은 2014년 17.4%, 2015년부터 감소하다 올해 16.1%를 보인 점이다. 여기서 작년까지 나타난 추세와 다르게 올해 100만 원 초과라고 응답한 비율이 11.6% 줄어들고, 0원과 10만 원 이하로 각각 7.1%, 7.8% 비율이 늘어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북한 내부의 소득 격차의 변화가 공식 소득 부분에서보다 비공식 소득 부분에서 불평등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1〉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비공식 월수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원	18 (17.1)	21 (16.5)	32 (24.1)	33 (22.1)	24 (16.4)	32 (23.2)	18 (13.6)	18 (20.7)
1,000원 이하	6 (5.7)	0 (0.0)	3 (2.3)	4 (2.7)	0 (0.0)	2 (1.4)	1 (0.8)	0 (0.0)
5,000원 이하	7 (6.7)	2 (1.8)	0 (0.0)	2 (1.3)	0 (0.0)	1 (0.7)	4 (3.0)	1 (1.1)
1만원 이하	2 (1.9)	2 (1.6)	3 (2.3)	2 (1.3)	0 (0.0)	1 (0.7)	0 (0.0)	1 (1.1)
10만원 이하	18 (17.1)	25 (19.7)	9 (6.8)	26 (17.4)	9 (6.2)	11 (8.0)	11 (8.3)	14 (16.1)
50만원 이하	19 (18.1)	44 (34.6)	52 (39.1)	43 (28.9)	43 (29.5)	37 (26.8)	45 (34.1)	27 (31.0)
100만원 이하	6 (5.7)	8 (6.3)	12 (9.0)	17 (11.4)	36 (24.7)	33 (23.9)	18 (13.6)	12 (13.8)
100만원 초과	6 (5.7)	7 (5.5)	19 (14.3)	15 (10.1)	34 (23.3)	21 (15.2)	35 (26.5)	13 (14.9)
무응답	23 (21.9)	18 (14.2)	3 (2.3)	7 (4.7)	0 (0.0)	0 (0.0)	0 (0.0)	0 (0.0)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북한주민들이 비공식 수입을 획득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표 1-12>를 보면 응답자들의 10명 중 약 8명이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다.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6%, 2012년 69.3%, 2013년 74.4%, 2014년 69.8%, 2015년 76.7%, 2016년 68.8%, 2017년 69.7%, 2018년 60.9%로 조사 연도별로 약간씩의 응답률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수준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8년간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별 장사 경험의 응답률을 보면, 노동자 67.7%, 농민 49.3%, 사무원 68.8%, 전문가 62.1%, 학생 39.7%, 군인 55.8%, 외화벌이 81.8%, 가정부인 85.8%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 중 장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직업군은 가정부인과 외화벌이군으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장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생, 농민, 군인의 경우는 장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회집단임을 보여준다.

<표 1-12>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장사 경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있다	68.6	69.3	74.4	69.8	76.7	68.8	69.7	60.9
없다	27.6	29.9	25.6	30.2	23.3	31.2	30.3	39.1
무응답	3.8	0.8	-	-	-	-	-	-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6) 탈북 후 정보접근성 및 남한 친척의 유무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 내부의 정보나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는가를 파악했다. <표 1-13>에서 보이듯 거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후에도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2011년 68.5%, 2012년 78.8%, 2013년 79.7%, 2014년 82.6%, 2015년 74.0%, 2016년 76.8%, 2017년 76.6%, 2018년 82.7%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남북한 간 정보교류가 상당히 활발하며 동시에 정보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에서 휴대폰은 주요 매개체이다. 이집트 이동통신사인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조선체신회사의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려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수는 2016년 기준으로 360여 만대에 이르며, 휴대전화가 도입되었을 때 평양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을 목격하기 어려웠던 2002년도와는 달리, 평양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통보문)를 보내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다.<sup>3</sup>

이처럼 북한사회에서의 정보통신의 빠른 보급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직행탈북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내부 구성원은 이미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탈북 방법 및 탈북경로 등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탈북 후 입국의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3] 통계청,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17), p.227.; 미국의소리, “북한은 ‘통신혁명 중... 휴대전화 가입자 370만 명,’” (2017.2.6)

〈표 1-13〉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3	19.7	22.6	24.8	19.2	26.1	20.5	19.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5.2	59.1	57.1	57.8	54.8	50.7	56.1	63.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6	21.3	20.3	17.5	25.3	23.2	23.5	17.2
무응답	2.9	-	-	-	0.7	-	-	-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유무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과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시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년 간의 조사결과를 보면, 탈북 후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 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탈북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다는 응답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4〉에서 나타나듯이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친척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39.0%, 2012년 37.8%로 50% 미만이었다가 2013년 65.4%, 2014년 69.1%, 2015년 58.2%, 2016년 60.9%, 2017년 51.5%, 2018년 50.6%로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남한의 친척 유무와 탈북 후 입국까지의 기간을 교차분석 해본 결과,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이 친척이 없는 경우보다 더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추가 탈북자들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4〉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없다	58.1	62.2	34.6	30.9	41.8	39.1	48.5	49.4
있다	39.0	37.8	65.4	69.1	58.2	60.9	51.5	50.6
무응답	2.9	-	-	-	-	-	-	-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 (7) 가족생활

응답자들의 현재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표 1-15〉에서 보이듯 미혼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2.4%, 2012년 45.7%, 2013년 37.6%, 2014년 30.9%로 계속 감소했다. 2015년 39.0%로, 2016년에는 42.0%, 2017년 40.2%로 다소 하락했다가 2018년 50.6%로 10.4%p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결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41.9%, 2012년 44.1%, 2013년 53.4%, 2014년 55.0%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42.5%, 2016년에는 47.1%, 2017년 45.5%, 2018년 41.4%로 다소 하락했다. 이혼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0%, 2012년 9.4%, 2013년 9.0%, 2014년 14.1%, 2015년 17.8%, 2016년 10.9%, 2017년도에는 13.6%, 2018년은 다소 큰 폭으로 5.7%로 하락했다.

〈표 1-15〉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혼	52.4	45.7	37.6	30.9	39.0	42.0	40.2	50.6
결혼 (동거포함)	41.9	44.1	53.4	55.0	42.5	47.1	45.5	41.4
이혼	0.0	9.4	9.0	14.1	17.8	10.9	13.6	5.7
무응답	5.7	0.8	-	-	0.7	-	0.8	2.3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응답자의 자녀수를 파악한 결과, 〈표 1-16〉에서 나타나듯 0명이라는 응답 비중이 여전히 가장 많다. 자녀의 수는 결혼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혼자의 수와 자녀의 수가 0명인 응답률이 동반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 1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와 같이 2순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나 전체 비중으로는 세 번째로 전년과 같게 나타났다. 이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사례가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2명, 2014년에 21명, 2015년에는 26명, 2016년에 15명, 2017년 18명, 2018년 5명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응답자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더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6〉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명	22.9	24.4	38.4	34.2	39.7	43.5	43.2	52.9
1명	27.6	27.6	32.3	27.5	35.6	33.3	36.4	24.1
2명	17.1	19.7	24.1	29.5	21.2	18.8	18.9	19.5
3명	5.7	7.1	4.5	6.7	2.1	4.3	0.8	3.4
4명	3.8	1.6	0.8	1.3	1.4	0.0	0.8	0.0
5명	-	-	-	0.7	-	0.0	-	0.0
무응답	22.9	19.7	-	-	-	-	-	-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제2장 통일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2장 통일인식

### 1. 서론

본 장에서는 통일인식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통일의 필요성과 바람, 통일의 방식 및 예상 시기, 통일로 인한 기대 이익,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등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문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기초적인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북한주민들의 생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남북한 주민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통일인식에 기초하지 않고는 통일과 관련된 논의들이 효용성을 가지기 힘들며 그렇게 해서 마련된 통일의 안(案) 역시 정당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고, 사회집단별로 이러한 생각들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조사의 설문시점이 되는 2018년 여름은 한반도 정세에 큰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었다. 2018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부터 드러난 북한의 변화 조짐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외교로 점차 구체화되었고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의 역사적 행보로 이어졌다. 이러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물론 본 조사의 특성상 많은 문항이 “북한에 계실 때”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에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이 시기적으로 이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 대한 고려는 조사원 교육 및 설문과정에서 충분히 강조되었고,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볼 때 예년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시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문항의 과거의 시점에 대해 질문한 것은 아니다. 통일 인식에서도 통일의 바람, 통일의 사회문제 개선, 통일정책의 효용성, 통일 후 희망 거주지역 등의 문항은 현재 시점의 견해를 말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는 올해 일어난 극적인 변화들이 응답자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아무리 과거 시점에 대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조사시점에 일어난 일들이 무의식적으로 응답자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조사결과 분석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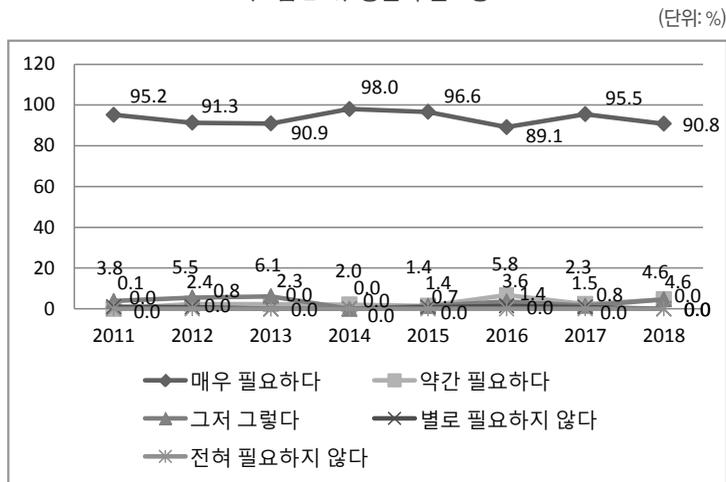
### 2. 통일의 필요성과 바람

통일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는 모든 통일 논의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이다. 애초에 대다수의 구성원이 통일을 필요하다 여기지 않고 원치 않는다면 구태여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에는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해당된다.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통일 역시

그 정당성 및 지지기반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사에서는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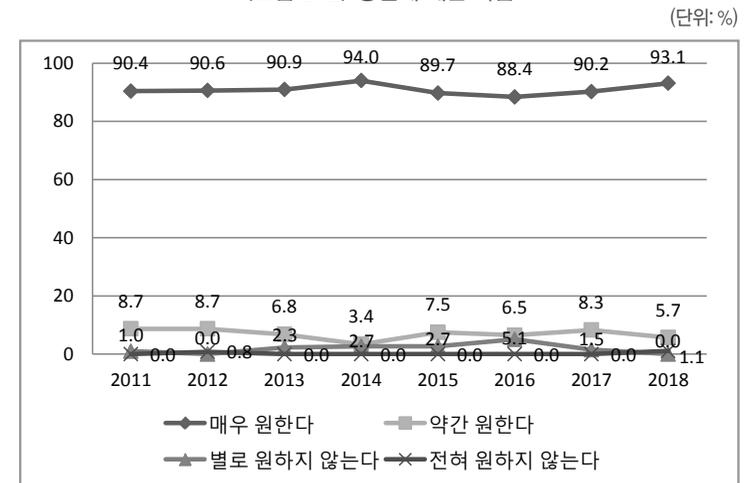
먼저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림 2-1>과 같이 절대다수인 90.8%의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약간 필요하다’라 응답한 4.6%의 응답자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통일을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패턴은 본 설문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가 갈수록 통일을 필요하다고 여기는 응답률이 떨어지는 남한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2018년도에 일어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급변으로 남한주민 사이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반등하기는 하였지만, 본 북한주민 인식조사의 경우 시점이 “북한에 살고 계실 때”라는 점에서 올해 조사대상자의 탈북년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 즉, 북한주민은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통일을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바람에 대한 질문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3.1%가 ‘매우 원한다’, 5.7%가 ‘약간 원한다’라고 답해, 통일의 필요성보다도 강한 정도의 바람을 보였다.<그림 2-2> 이 질문은 통일의 필요성과 달리 응답자 개인의 생각이 아닌, 응답자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북한주민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아무래도 통일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일종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가진 이슈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더라도 면접설문에서 면접관의 시선 때문에 진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바꾼 후에도 북한주민은 높은 수준에서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 통일에 대한 바람



### 3. 통일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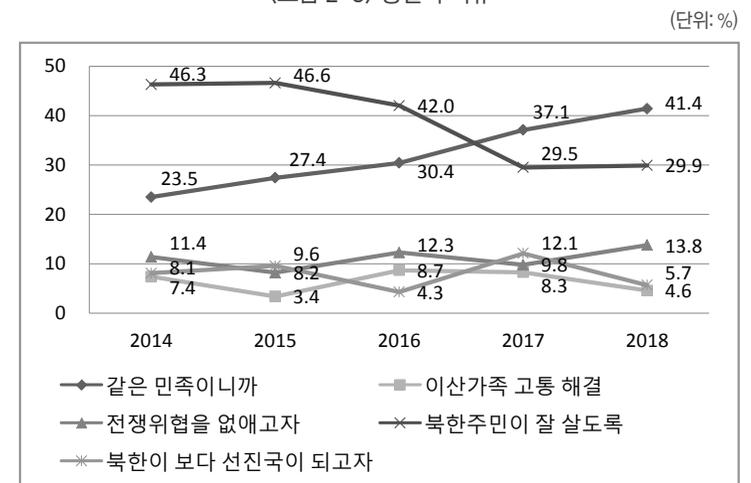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있어 올해를 포함한 조사기간 동안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민족주의적 응답의 지속적인 증가와 실용적·경제적 응답의 약화이다.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같은 민족이니까’라 답한 응답자가 조사가 시작된 2014년에는 23.5%에 머물렀지만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올해에는 41.4%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그림 2-3>) 반면, ‘북한주민이 잘 살도록’ 통일을 해야한다는 응답은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올해 29.9%로, 작년(29.5%)에 비해 소폭 오르긴 하였지만, 또 다른 경제적 응답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고자’란 항목은 5.7%로 작년(9.8%)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두 경제적 항목을 합해보면 올해의 응답률은 35.6%로 작년의 39.3%에 비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갈수록 민족주의적 경향이 약화되는 남한주민의 결과와 대비되는 것이다. 물론 올해에는 남북관계의 개선 등의 영향으로 남한주민 사이에서도 민족주의적 응답이 예년에 비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당위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민족주의적 응답을 고른 것이 마땅히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어 선택한 피상적 대답일 수 있다.<sup>4)</sup> 특히 설문문의 구성상 어느 한 가지를 반드시 택하도록 하고

있기에 특별히 고를 다른 보기가 없는 상황에서 민족적 당위를 답으로 골랐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북한주민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겠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있고 이를 민족주의적 응답이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경제적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여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남북 간 전쟁위협 해소’란 안보적 이유는 예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시점이 되는 2017년이 김정은의 연이은 핵,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통일을 통하여 이러한 안보적 위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3> 통일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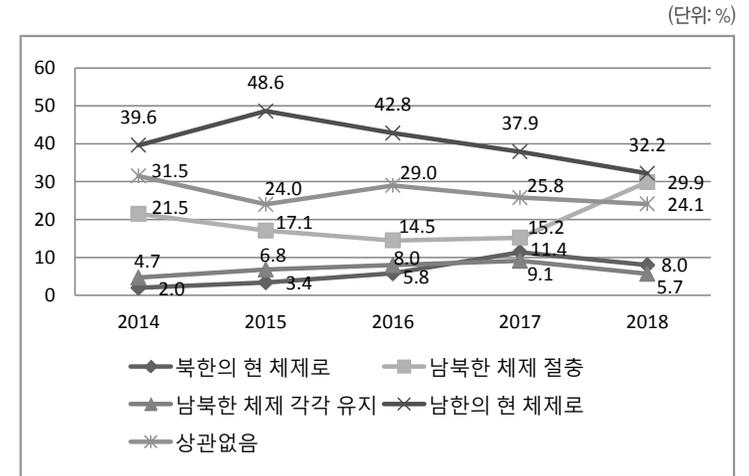
4) 정동준, “경제평가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2007-2017년 통일인식조사 설문결과 분석,” 『담론201』, 제20권 3호 (2017), pp. 157-195.

#### 4. 통일의 방식과 예상시기

북한의 사정이 나아지면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음은 또 다른 설문항목인 통일의 방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그림 2-4>에 나타난 것 같이 2015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여 올해엔 32.2%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는 응답은 작년(15.2%)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29.9%로, 두 응답 사이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만큼 좁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을 응당 북한이 남한의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예상과는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조사가 북한주민 전체를 설명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조사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즉 북한의 체제를 버리고 남한의 체제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이 견고해지고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자신들의 체제가 남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라 풀이해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이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이 되는 것은 더욱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응답은 작년에 비해 하락해 올해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북한주민들이 어느 한 나라의 체제로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통일보다는, 양측의 제도가 절충되는 안을 점차 선호하고 있음이 올해의 조사결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4> 통일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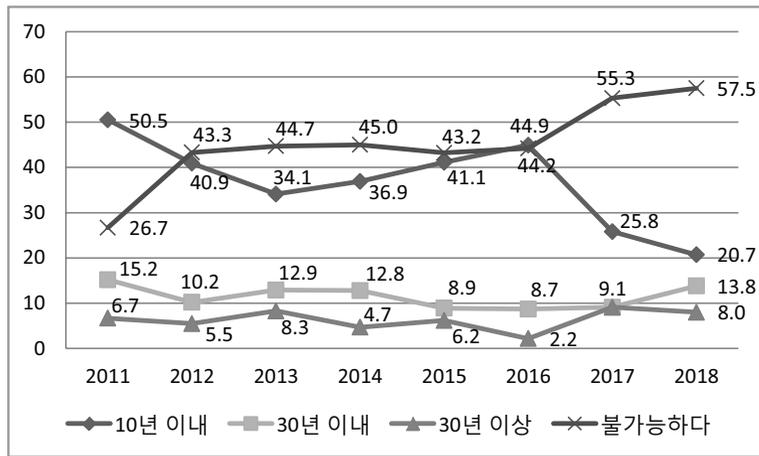


북한 정권이 안정되어 가면 갈수록 통일의 예상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독일의 통일 역시 동독의 경제상황이 가장 안 좋았던 시점에서 우발적인 사건들을 통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듯이,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어 갈수록 그러한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통일을 기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앞선 문항처럼 두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제도의 측면에서나 가치의 측면 모두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란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방식은 곧 통일의 예상시기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듯,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림 2-5>에서 보듯, 통일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조사 이래 최고치인 57.5%를 기록했지만, 통일이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합쳐서 조사 이래 최저치인 20.7%를 나타

났다. 위의 조사결과와 연결해 생각해 보면, 김정은 정권이 여러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을 보며 북한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통일이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5> 통일의 예상시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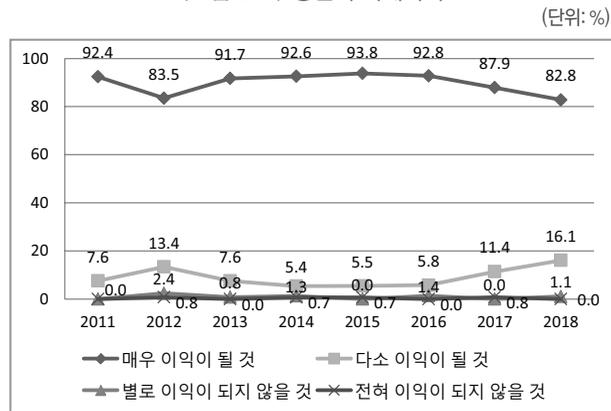
### 5. 통일에 대한 기대이익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북한사회에,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할까? 먼저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82.8%가 ‘매우 이익이 될 것’으로, 16.1%가 ‘다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2-6>) 통일이 북한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한 응답은 작년에 비해 5% 이상 감소하여 기대감이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 응답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통일이 북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이익과 별개로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작년에 이어 약간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69.0%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 응답한 것이다. 하지만 역시 대부분의 나머지 응답자들이 그래도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대다수가 통일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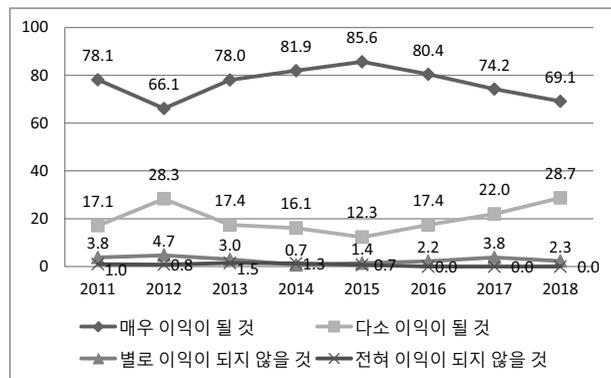
이러한 통일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남한주민의 조사결과와 가장 뚜렷한 대비를 보이는 항목 중 하나이다. 올해의 같은 설문에서 남한주민들은 11.2%만이 남한사회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고 46.5%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 응답하였다. 반면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과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 역시 각각 36.5%와 5.8%에 달했다. 대다수 응답자가 이익이 될 것이라 답한 북한주민의 결과와 대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 수준의 질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란 응답은 단지 3.9%에 그쳤고, ‘다소 이익이 될 것’이란 응답 역시

22.8%에 머물렀다. 반면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55.8%)과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17.6%)은 합쳐서 73.4%로 과반이 훨씬 넘는 응답자가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주민은 사회적, 개인적 차원 모두에서 통일의 이익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6〉 통일의 기대이익



통일의 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 6. 통일정책에 대한 효용감

다음으로 일련의 통일정책 -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정치 회담 - 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과거 북한에 살고 있을 때의 견해를 묻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답하도록 했다. 따라서 본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18년 들어 급변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비슷한 문항으로 조사를 한 남한주민의 통일인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대북제재 등의 통일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정책에서 작년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들어와 이러한 변화들을 함께 목격한 탈북자들의 생각 역시 이와 비슷하게 변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과 같이, 사회문화교류를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긍정적 평가가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통일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연도별 평균값(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다소 도움이 된다, 4: 매우 도움이 된다)을 <표 2-1>에 정리하였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대북지원의 통일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해진 여러 대북 지원책들이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효용성 역시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개성공단 폐쇄 등 경제협력의 중단과 국제적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남북경제협회의 회복을 통해 국제적 제재 완화와 북한 경제의 회복, 나아가 통일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는 심리가 담겨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의 정기적 회담 역시 작년에 비해 높아진 효용감을 보였는데, 2018년 들어 남북 정상에 이어 북미 정상까지 회담을 가지며 통일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남북 간의 정기적 회담에 갖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예년에 비해 효용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 역시 3.08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란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에도 많은 사회문화교류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의해 중단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즉, 남북단일팀 구성과 같은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다른 정책들의 보조적 수단에 그치거나 그 정책 결과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기억이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1〉 통일정책에 대한 효용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북지원	3.18	2.94	2.95	3.09	3.03	3.12	3.06	3.28
사회문화교류	3.33	3.19	3.24	3.16	3.26	3.19	3.15	3.08
경제협력	3.27	3.29	3.29	3.32	3.18	3.12	3.21	3.26
정기적 회담	3.26	3.29	3.4	3.46	3.21	3.33	3.11	3.31

## 7. 심화 분석

본 장을 끝맺기 전에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배경적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의 분석에서처럼 각 보기별 빈도수나 전체 응답의 평균값을 보는 것은 전반적인 자료의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유익하나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일련의 교차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상관성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해당 표본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일 뿐 추론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같은 단변인(univariate) 분석은 다른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의사관계(spurious relationship)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여기서는 일련의 통일인식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배경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삼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델은 각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로짓 혹은 순위로짓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표본으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자료를 삼아 전체 표본의 수를 늘렸고, 각 연도별 더미변수를 만들어 줌으로써 같은 해에 탈북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집단 내 유사성을 고정효과(fixed effects)로 통제해 주었다. 2018년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는 모델에 넣지 않음으로써 비교기준을 삼았다. 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는 총 다섯 개로, 먼저 통일의 이유에 있어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민족주의적 응답을 한 집단을 1로,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같은 질문에 대해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나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와 같은 경제적 응답을 집단을 1로,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였다. 세 번째는 통일의 방식에 있어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1로,

네 번째는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는 응답을 1로 코딩하였다. 마지막 종속변수는 통일의 예상시기로,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1(5년 이내)부터 6(불가능하다)까지의 응답을 변수로 삼았다. 독립변수로는 주요 사회배경변수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변수를 사용하였다. 소득의 경우, 현재 북한에서 공식 소득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비공식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란 점에서 공식과 비공식 부문의 소득을 나누어 변수화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돌린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2-2>에 정리하였다. 사회배경변수의 영향력을 보기에 앞서 먼저 연도별 더미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계수의 부호들<sup>5)</sup>을 통해 올해 나타난 결과의 시계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모델 1에서 모든 연도별 더미가 부(否)의 영향력을 보이고 그 중 상당수가 유의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올해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를 꼽은 응답률이 예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말해준다. 반면, 통일의 이유로 실용적·경제적 응답을 한 변수(모델 2)에 대해서는 모든 연도별 더미가 정(正)의 영향력을 보였다. 즉, 올해 해당항목에 대한 응답이 예년,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통일의 방식을 묻는 모델 3과 4의 경우, 남한 체제로의 통일에 대해서는 올해의 응답률이 예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고 남북한 체제의 절충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올해의 결과에서 두 체제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눈

5) 본 분석에서 사용한 모델이 모두 비선형모델이라는 점에서 계수 자체의 값으로 영향력의 크기를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결과표에서는 계수값과 함께 ‘독립변수 1단위 증가시 더 높은 종속변수 값을 가질 확률’을 의미하는 오즈비(odds ratio)를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지면 관계상 본 장에서는 계수의 유의미도 및 부호에 대한 결과만을 논의하고 오즈비 값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였다.

에 띄게 증가한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예상시기를 묻는 모델 5에서도 대부분의 연도별 더미변수가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임으로 올해 조사된 북한주민의 통일 예상시기가 예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배경변수를 확인하면, 연령의 경우 통일의 이유에 대한 두 모델(모델 1, 2)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하지만 영향력의 방향은 서로 달랐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같은 민족이기에 통일을 해야한다고 여기는 확률이 증가한 반면, 경제적 필요에 의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바꿔 말해, 젊은 층에서는 민족주의적 관점보다 실용적·경제적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효과는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원하는 모델 3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원하는 확률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북한체제에서 오랜 세월 살며 높은 수준에서 정치사회화 된 사람일수록 북한체제를 버리고 남한의 체제로 흡수 통일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통일의 방식에 있어 눈에 띄는 변수는 비공식 소득으로, 모델 3, 4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북한에서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두 체제의 절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공식 부문의 소득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를 깊이 경험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의미하고, 그럴수록 남한 체제로의 통일을 선호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공식적 소득수준은 통일의 방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의 예상시기에 있어서는 비공식부문이 아닌 공식부문의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북한에 있을 때 공식 소득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체제의 안정된 보장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람일수록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체제가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기에 통일의 시기를 그만큼 늦추어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 북한주민 통일인식에 대한 로짓 고정효과 모델

변 수	모델 1 (통일의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모델 2 (통일의 이유: 북한주민이 잘 살고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모델 3 (통일의 방식: 남한의 체제로)		모델 4 (통일의 방식: 남북한 체제 절충)		모델 5 (통일 예상시기)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연령	0.013 <sup>*</sup>	(1.01)	-0.013 <sup>*</sup>	(0.99)	-0.017 <sup>**</sup>	(0.98)	0.004	(1.00)	-0.007	(0.99)
여성	-0.314 <sup>*</sup>	(0.73)	0.223	(1.25)	-0.147	(0.86)	-0.221	(0.80)	0.291 <sup>**</sup>	(1.34)
교육수준	-0.085	(0.92)	0.091	(1.09)	-0.002	(1.00)	0.040	(1.04)	-0.089	(0.91)
공식 소득	0.044	(1.04)	0.012	(1.01)	0.067	(1.07)	-0.046	(0.95)	0.083 <sup>*</sup>	(1.09)
비공식 소득	0.038	(1.04)	0.002	(1.00)	0.067 <sup>*</sup>	(1.07)	-0.072 <sup>*</sup>	(0.93)	0.016	(1.02)
2011년도	N/A		N/A		N/A		N/A		-1.147 <sup>***</sup>	(0.32)
2012년도	N/A		N/A		N/A		N/A		-0.597 <sup>**</sup>	(0.55)
2013년도	N/A		N/A		N/A		N/A		-0.411	(0.66)
2014년도	-0.853 <sup>***</sup>	(0.43)	0.899 <sup>***</sup>	(2.46)	0.560 <sup>*</sup>	(1.75)	-0.600 <sup>*</sup>	(0.55)	-0.520 <sup>*</sup>	(0.59)
2015년도	-0.624 <sup>**</sup>	(0.54)	0.845 <sup>***</sup>	(2.33)	0.720 <sup>**</sup>	(2.05)	-0.753 <sup>**</sup>	(0.47)	-0.557 <sup>**</sup>	(0.57)
2016년도	-0.512 <sup>*</sup>	(0.60)	0.402	(1.50)	0.526 <sup>*</sup>	(1.69)	-0.989 <sup>***</sup>	(0.37)	-0.649 <sup>**</sup>	(0.52)
2017년도	-0.278	(0.76)	0.237	(1.27)	0.247	(1.28)	-0.905 <sup>***</sup>	(0.40)	0.005	(1.01)
상수항	-0.516	(0.60)	-0.544	(0.58)	-0.449	(0.64)	-0.588	(0.56)		
응답자수	630		630		639		639		930	
Log-Likelihood	-382.364		-425.367		-424.336		-301.263		-1322.343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모델 5의 경우 순위로짓 모델을 사용함.

## 8. 소결

본 장에서는 2017년과 2018년 초에 걸쳐 북한을 나온 탈북자를 설문 조사함으로써 최근의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통일을 필요하다 여기고 바라보는 정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통일의 이유에서는 민족주의적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경제적·실용적 응답은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통일의 방식에서는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남북한의 체제를 절충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일의 예상시기에 있어서도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기며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란 희망적 응답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생겨난 체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로 인해 북한이 이익을 얻을 것이란 견해엔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역시, 북한사회의 전반적 이익에 대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다.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일어난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듯, 전반적으로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교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대북지원, 경제협력, 정기회담 - 모두에

서 작년에 비해 좋은 평가를 보인 것이다. 특히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효용성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하는 등, 통일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친 사회배경적 특성을 보고자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남한체제로의 일방적인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가 어릴수록 실용적·경제적 이유에서 통일을 바라고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부문의 소득이 높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원하는 반면, 공식부문의 소득이 높은 사람은 북한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통일이 일찍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 결과 바탕으로, 향후에는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대남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3장 대남인식

### 1. 서론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라고 평가받는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18년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분단 70년 동안 겨우 두 번에 불과했던 남북 간 정상회담이 한 해 동안 세 번이나 개최되었다. 또한 남한 정부의 적극적 중재로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그리고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2018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한과 북한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 가령,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위해 남과 북은 이 구역에서 모든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시켰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시범철수 및 파괴 조치를 취한 비무장지대(DMZ) 내 11개 감시초소(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역시 확고해 보인다. 2018년 4월 북한은 '경제-핵 병진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발표하였고, 이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즉, 북한 핵은 남북관계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다.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 핵문제와 밀접히 연

관되어 있다. 최근 십 수년간의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이슈는 북한 핵 문제에 종속되었다. 이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의 미래를 계속 후퇴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물론이고 평화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북한 핵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북한의 핵은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분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올해 조사된 북한주민 인식조사에는 2018년 일어난 일련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조사문항이 “귀하는 북한에 계실 때”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 직전해인 2017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 설문문의 특징이자 명확한 한계이기도 한데,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는 응답자들의 탈북시점인 2017년의 상황이 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어느 시점에서의 생각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상황들이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들의 현재 응답에 2018년 한반도의 상황이 무의식적으로나마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본 장은 이러한 여러 가능성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를 평가할 것이다.

## 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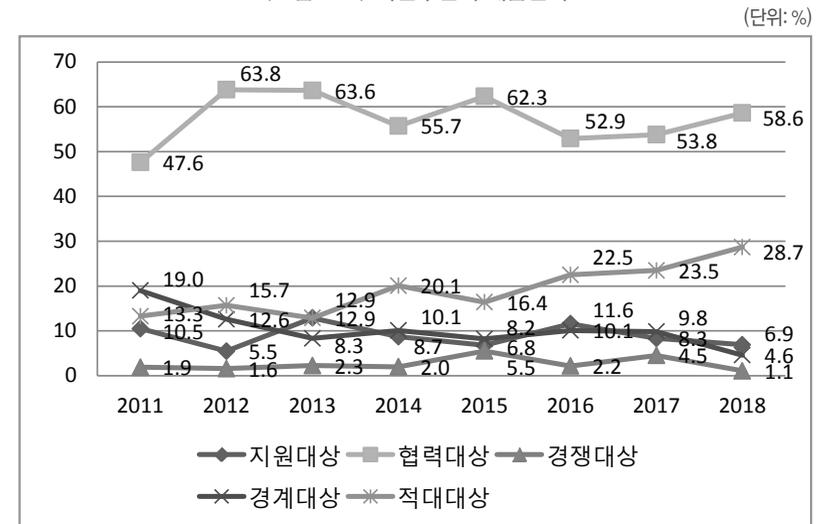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는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58.6%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협력대상)’라고 답변했다. 이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이다. 반면,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적대대상)’라는 답변은 28.7%였다. 이는 전년대비 5.2% 상승한 것이다. 즉, 소폭이기는 하지만 남한에 대한 협력과 적대적 인식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지원대상)’,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경쟁대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경계대상)’라는 응답은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지원대상의 경우 2017년 8.3%에서 6.9%로 1.4%, 경쟁대상의 경우 4.5%에서 1.1%로 3.4%, 경계대상의 경우 9.8%에서 4.6%로 5.2% 감소했다. 특기할 점은 2012년 이후로 2015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지원대상과 경계대상 인식에 대한 응답률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12년 지원대상 5.5% < 경계대상 12.6%, 2013년 지원대상 12.9% < 경계대상 8.3%, 2014년 지원대상 8.7% < 경계대상 10.1%, 2015년 지원대상 6.8% < 경계대상 8.2%, 2016년 지원대상 11.6% > 경계대상 10.1%, 2017년 지원대상 8.3% < 경계대상 9.8%, 2018년 지원대상 6.9% > 경계대상 4.6%로 변화하고 있다.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증가한 이유는 응답자들이 무의식적으로 2018년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남북 협력의 필요성 때문일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협력대상의 경우 2016년에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이 고조된 것은 2017년 북미 핵 갈등을 비롯한 남북관계 경색 등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점은 2015년 소폭으로 하락한 이후 현재까지 적대대상 인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표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대상	N	11	7	17	13	10	16	11	6
	%	10.5	5.5	12.9	8.7	6.8	11.6	8.3	6.9
협력대상	N	50	81	84	83	91	73	71	51
	%	47.6	63.8	63.6	55.7	62.3	52.9	53.8	58.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쟁대상	N	2	2	3	3	8	3	6	1
	%	1.9	1.6	2.3	2	5.5	2.2	4.5	1.1
경계대상	N	20	16	11	15	12	14	13	4
	%	19	12.6	8.3	10.1	8.2	10.1	9.8	4.6
적대대상	N	14	20	17	30	24	31	31	25
	%	13.3	15.7	12.9	20.1	16.4	22.5	23.5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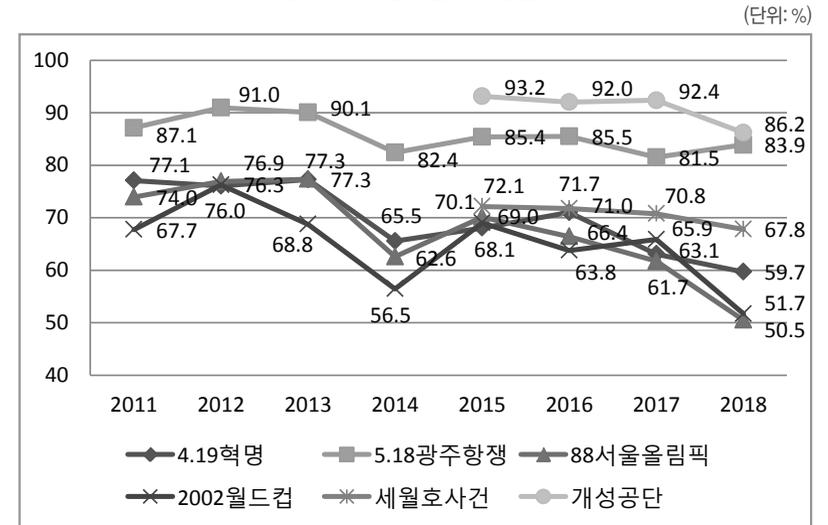
### (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북한주민이 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질문하며,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단’ 등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전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즉, ‘5.18광주항쟁(81.5% → 81.5%)’를 제외하고 ‘개성공단(92.4% → 86.2%)’, ‘세월호사건(70.8% → 67.8%)’, ‘2002월드컵(65.9% → 51.7%)’, ‘88서울올림픽(61.7% → 50.5%)’, ‘4.19혁명(61.7% → 59.7%)’ 등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대부분 감소하였다.

2017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강화된 주민 통제가 대남인지도 하락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02월드컵’과 ‘88서울올림픽’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 폭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는 일상화 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사항이 50-80%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 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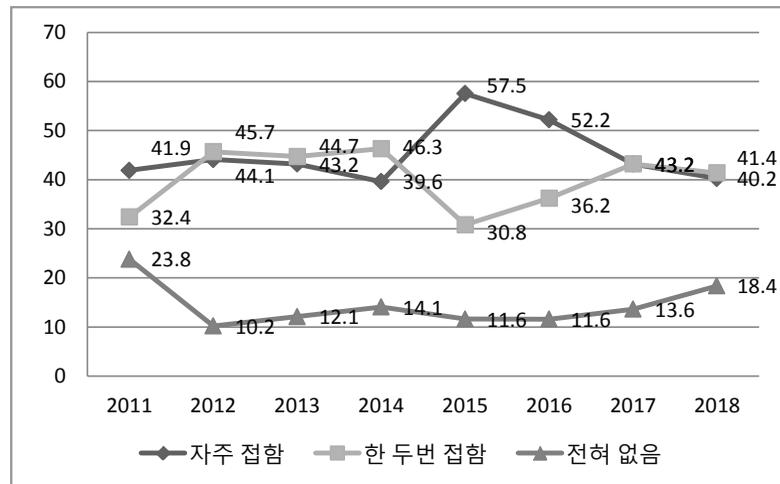
#### (1)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정도

북한주민이 남한문화를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정도는 2017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주

접했다'라는 응답은 40.2%로 전년대비 3% 하락했고, '한두 번 접했다'라는 응답은 41.4%로 전년대비 1.8% 하락했다. 반면, '전혀 없다'라고 한 응답은 2017년 13.6%에서 2018년 18.4%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5년 북한이 비사회주의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불법적인 국제통신죄'를 신설해 외부와 접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라는 처벌 규정을<sup>6</sup>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자주 접했다'라는 응답은 52.5%에 달했었다. 또한 2016년 '전혀 없다'는 응답은 2015년과 동일하게 11.6%를 유지했다. 강화된 사회 통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2017년과 2018년의 낮아진 응답률은 북한 당국의 사회 통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3-3〉 남한문화에 대한 경험도

(단위: %)



6] “北 쌀값 누설하는 주민에게 종신형 ... 내부 단속 최고수위까지 올려,” 『뉴스핌』, 2018년 3월 30일.

## (2)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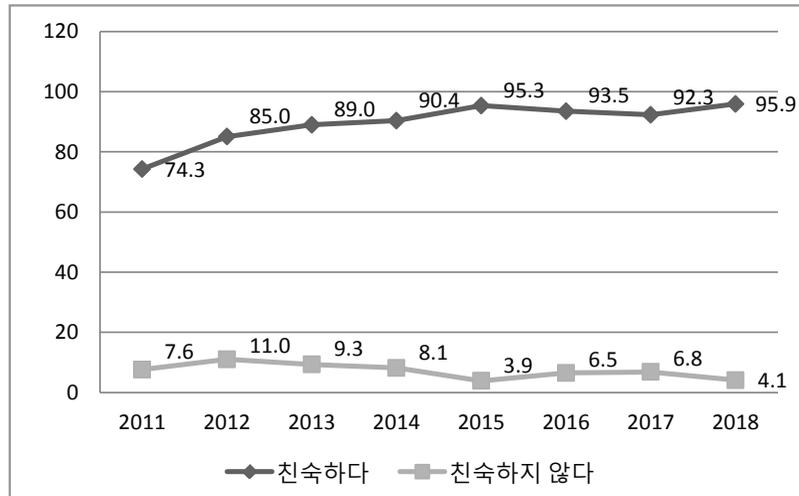
'남한문화를 경험해 보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진은 “남한문화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질문하였다. 이는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는데, 질문 결과 95.9%가 '친숙했다(매우 + 약간)'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3.6% 상승한 것으로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응답률이 90% 중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친숙하지 않았다(별로 + 전혀)'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6.8%에서 2018년 4.1%로 소폭 하락하였다. 2011년 조사 이래로 '친숙하다'는 응답은 70%에서 매년 상승하여 2014년 이후로 90%대를 유지하고 있고, '친숙하지 않다'는 응답은 10% 아래를 기록하였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운 한국 말투가 유행하고 있다. 보위부 소속 단속원 사이에도 이러한 유행이 퍼져있다는 점은<sup>7</sup> 북한주민의 높은 남한문화 친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가 높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문화적, 정서적 익숙함과 함께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숙하지 않다'는 응답은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적 이질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7] “한류 즐기는 북한 단속원들... 내 메모리에 좀 넣어 달라,” 『데일리NK』, 2018년 12월 6일.

〈그림 3-4〉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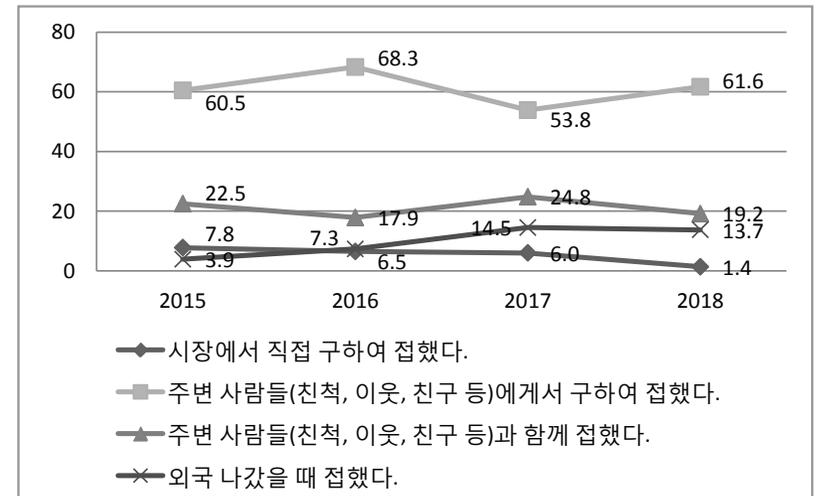
(3) 북한주민은 남한문화 유통경로

본 조사에서는 북한주민이 어떠한 경로로 남한문화를 접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라는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라는 응답은 2017년 6.0%에서 2018년 1.4%로 감소했다. 또한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라는 응답은 2017년 14.5%에서 2018년 13.7%로 감소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도 2017년 24.8%에서 2018년 19.2%로 감소했다. 반면,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해서 접했다’라는 응답은 2017년 53.8%에서 2018년 61.6%로 7.8% 소

폭 증가하였다. 북한 당국의 통제로 인해 주민들은 시장과 외국보다는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을 통해 암암리에 남한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남한문화의 유통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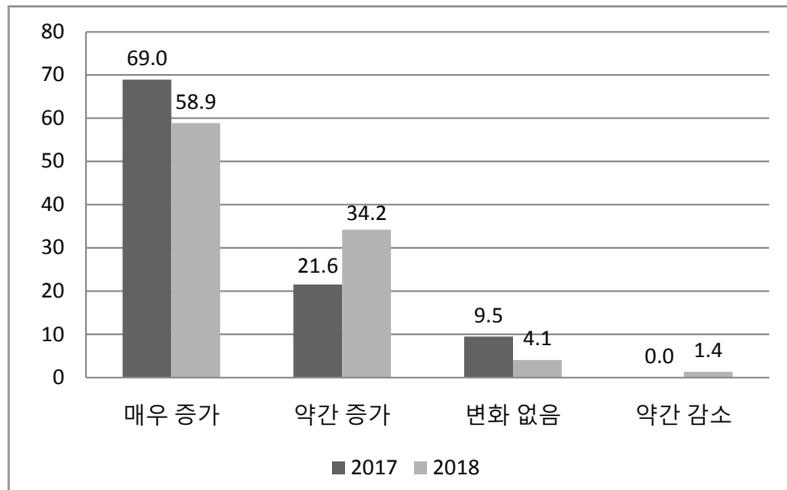
(4)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감도 변화

북한주민이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진은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남한문화를 접한 이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변했다는 응답(매우 증가 + 약간 증가)이 2017년 90.6%에서 2018년 93.1%로 소폭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증가’ 했다는 답변은 2017년 69.0%에서 2018년 58.9%로 감소한 반면, ‘약간 증가’ 했다는 답변은 2017년 21.6%에서 2018년 34.2%로 증가하였다. 반면, ‘변

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9.5%에서 2018년 4.1%로 소폭 감소하였다.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과 남한 방송의 폭력성으로 남한 문화를 접한 후 오히려 남한에 대한 반감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존재하기도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6〉 남한문화에 대한 호감도 변화

(단위: %)



(5)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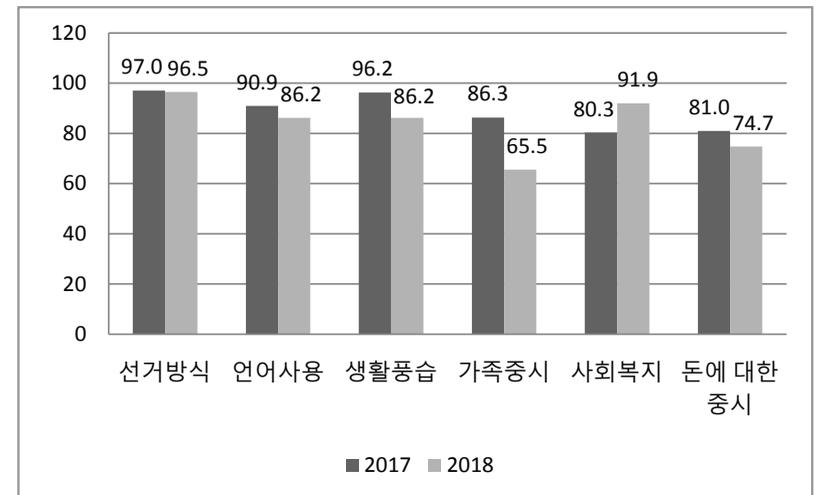
분단이 된 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북한이 남한 문화에 대해 보이고 있는 높은 친숙도와 호감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남북간의 문화교류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이해가 통일과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 보고, 북한주민이 생각하는 남북 간의 이질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선거방식'

식', '언어사용', '생활풍습', '가족중시', '사회복지', '돈에 대한 중시' 등의 선택지를 제시한 후 "이것들이 남한과 북한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선거방식(96.5%)', '언어사용(86.2%)', '생활풍습(86.2%)', '가족중시(65.5%)', '사회복지(91.9%)', '돈에 대한 중시(74.7%)' 등 남북 간에 차이가 크다고 답변하였다. 이 중 '선거방식'에 대한 이질성은 96.5%로 가장 컸고, '가족중시'에 대한 이질성은 65.5%로 가장 작았다. 선거방식이 정치적 차원과 관련되고, 가족중시가 문화적 차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높은 남한문화 친숙도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만 11.6%로 상승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가족중시'는 가장 큰 폭(20.8%)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7〉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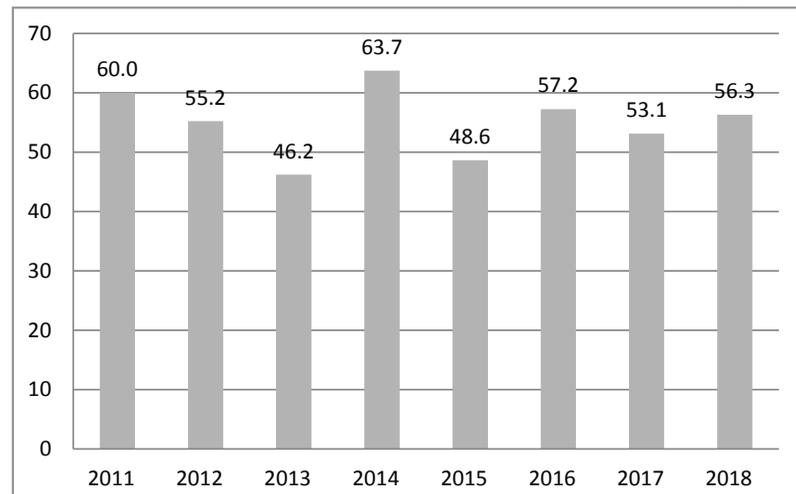
#### 4. 북한주민의 북핵 및 대남 위협 인식

##### (1)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에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한 간에는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설문에서는 북한주민의 대남 안보불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였다.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이란 응답은 2017년 53.1%에서 2018년 56.3%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한미 연합군사 훈련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이 수습 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 실험을 자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한반도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한 및 미국에 돌리며 남한에 대한 군사적 호전성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8〉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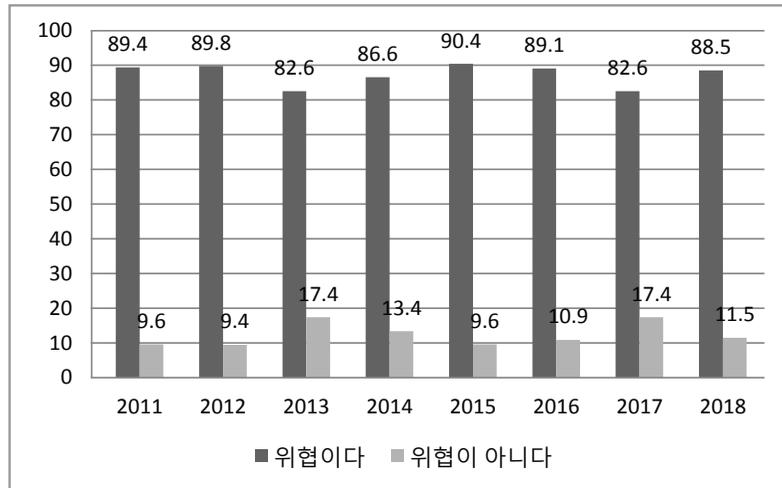
##### (2) 북한주민의 대남 북핵 위협 인식

2018년 현재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장애물은 단연코 북한 핵문제이다. 특히 2017년 북한과 미국 간에 핵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단순한 한반도 긴장을 넘어 전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핵 협상이 진행 중이며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 북한 핵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2017년 82.8%에서 78.6%로 소폭 하락하였다.<sup>8)</sup>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생각하는 남한의 북핵 위협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5%는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적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2017년 82.6%에서 5.9% 상승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한반도 긴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북제재, 사드배치, 전술 핵무기 재배치 검토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남 비난 및 위협과 동시에 미사일 실험 성공, 제6차 핵실험 등 핵무력 완성 선언 등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8년의 상황을 반영하는 2019년 조사에서는 올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8) 2018년 통일인식조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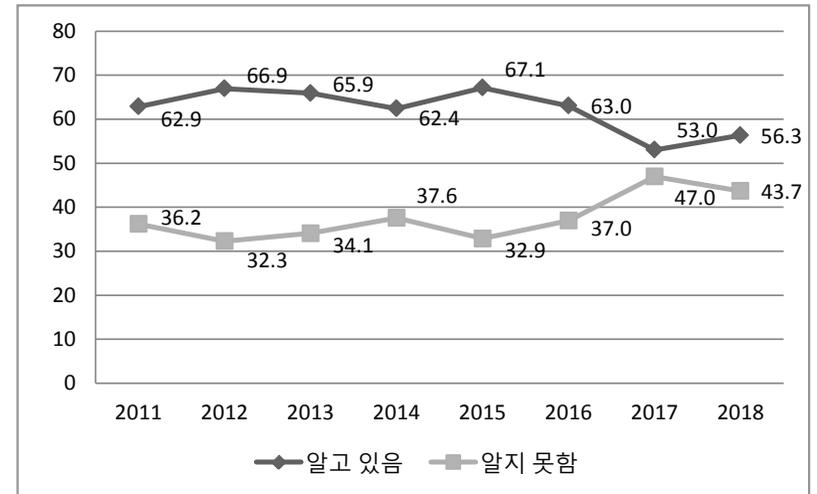
〈그림 3-9〉 북한 핵의 대남 위협 인식

(단위: %)



〈그림 3-1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 5.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 (1)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도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정부 + 민간)는 4,397억 원이었다. 이는 1995년부터 2017년을 통틀어 제일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2008년부터 대북지원 규모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해 2016년 30억 원, 2017년 11억 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민간차원의 무상지원만 있었을 뿐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응답자의 56.3%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표 3-2〉 남한의 대북지원 현황

(단위: 억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 차원	3488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2	0
민간 차원	909	726	377	201	131	118	51	54	114	28	11
총액	4397	1164	671	405	196	141	183	195	254	3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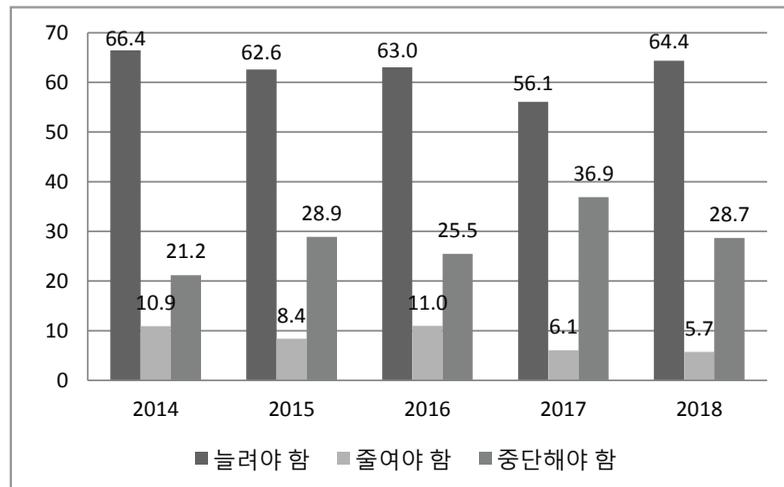
\* 출처: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

(2)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평가

또한 본 조사는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북한주민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북한에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4%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것이다.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36.9%에서 28.7%로 감소했고,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6.1%에서 5.7%로 소폭 감소했다.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주민 전체의 생활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보건의료 및 식량 사정 등이 열악하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1〉 대북 지원 규모에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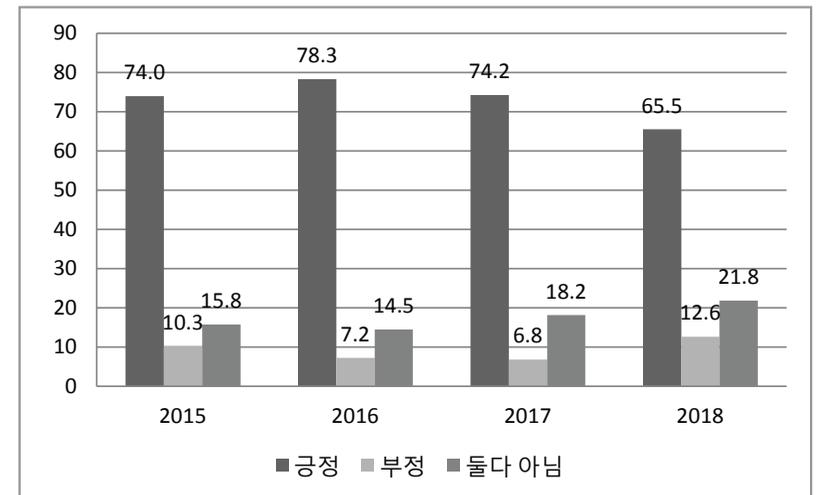


(3)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조치로 인도주의적 차원을 비롯한 그 어떠한 형식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북미 및 남북 간의 협상이 더디기는 해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북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사에서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비록 다수인 65.5%의 응답자가 남한의 대북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수치는 2017년 대비 8.7% 감소하였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6.8%에서 12.6%로 5.8% 상승했다. 한편,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평가도 18.2%에서 21.8%로 상승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배경에는 2017년 악화된 남북관계와 그로 인해 중단된 남북 간의 교류와 대북 지원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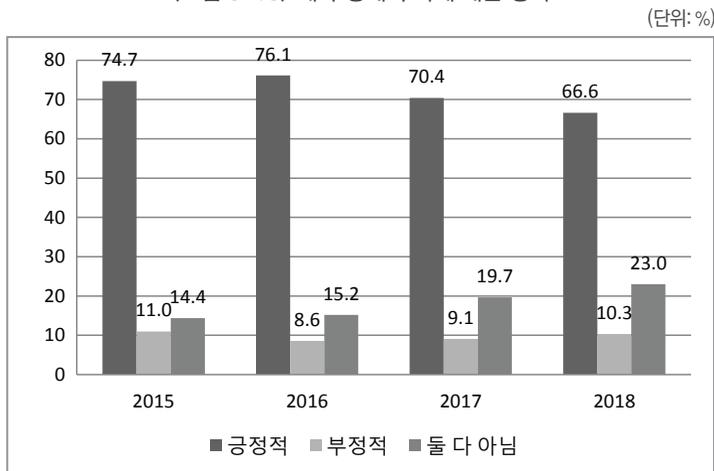
(단위: %)



(4)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평가

앞서 남한의 대북지원과 관련된 조사들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북 경제투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년(70.4%)보다 3.8% 하락한 수치이며, 나아가 2017년 9.1%에서 2018년 10.3%로 부정적 평가는 상승했다. 특히, 긍정적 평가는 2015년 이래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평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듯 소폭이기는 하나 부정적 평가가 상승하고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데에는 기술 하였듯이 전반적인 남북관계 악화와 경제협력의 중단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혹은 북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주민들 역시 남한이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여전히 60% 이상이 경제투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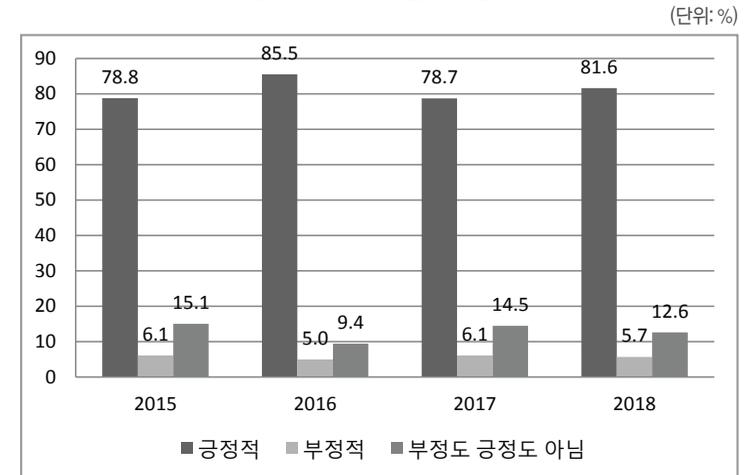
〈그림 3-13〉 대북 경제 투자에 대한 평가



(5)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앞서 대남인지도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주민의 대다수는 개성공단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조사 항목(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세월호 사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 재개에 북한주민들의 의견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개성공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81.6%가 개성공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2017년 78.7%에서 2.9% 상승한 것이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6.1%에서 5.7%로 감소했다. 한편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평가도 14.5%에서 12.6%로 감소했다. 이렇듯 개성공단 폐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갖는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4〉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 6. 소결

남한주민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만큼 북한주민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주체는 남북한 주민 모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조사는 ‘대남인식’, ‘남한문화 인식’, ‘북핵 및 대남위협 인식’, ‘대북지원 평가’ 등 크게 다섯 개 분야로 분류하여 북한주민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대남인식의 경우 우선 북한주민이 남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응답자의 58.6%가 ‘남한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2016년에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추세에 있다. 한편 ‘남한은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라는 응답도 상승했는데, 특기할 점은 2015년 이래, 좀 더 큰 틀에서 2011년 이후로 상승세에 있다는 것이다. 협력대상이라는 인식과 비교할 때 적대대상이란 응답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대상 인식의 상승은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번 조사에 2018년의 한반도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그 규모 또한 늘어나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응답자들 대다수가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와 개성공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은 그만큼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주민들은 개성공단(86.2%) - 5.18 광주항쟁(83.9%) - 세월호 사건(67.8%) - 4.19 혁명(59.7%) - 2002 월드컵(51.7%) -

88 서울올림픽(50.5%) 순으로 남한의 주요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작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모습이지만, 대략 10년 가까이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고 세월호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이 매우 오래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주민의 대남 인지도는 결코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남한문화를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주 접했다거나 한두 번 접했다는 의견이 각각 40% 수준으로 낮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단순히 남한문화를 접한 것으로만 보면 응답률은 80%를 넘어간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 및 사회통제가 김일성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제의 일상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데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통일과 평화의 실질적 주체는 남북한 주민들이고, 문화적 접촉의 증대는 상호이해 증진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더스와 링(Brothers & Ring)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인지적 차원은 나와 타자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자에 대해 내가 아는 지식과 관련된다. 반면 정서적 차원은 타자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공감 능력과 관련된다. 따라서 특정 행위자가 또 다른 행위자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이러한 두 차원이 얼마나 큰지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sup>9)</sup> 그렇게 볼 때 북한주민이 남한문화를 자주 접할수록 남한에

9) Leslie Brothers and Brian Ring, "A Neuroethological Framework for the Representation of Mind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Vol. 4, Issue 2 (1992), pp. 107-118.

대한 인지적 능력은 증대될 것이고, 이는 공감대의 확대로 이어져 결국 정서적 능력도 제고될 것이다. 실제로 남한(문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공감대 확대 즉, 정서적 능력 제고는 '남한문화 친숙도'와 '남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 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문화적이고 정서적 차원의 남북한 간 사회적 이질성 하락(언어사용, 가족중시, 돈에 대한 중시 등) 역시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북한주민의 대다수는 남한을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마음의 통합을 방해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북한의 핵보유와 남북한의 오랜 안보불안이다. 실제로 남한을 적대대상과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도합 30% 이상이 된다. 남한의 대북공격 가능성 또한 높아진 인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2018년 들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전례 없던 군사적인 신뢰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대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상황이고, 북한의 대남 적대적 군사행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고, 2019년 남한의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8.2%가 증대된 46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과 2018년 소위 대전환의 시기라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남한의 국방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이다. 한편 북한의 약 120만 명 이상의 병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남한을 향하고 있는 수천 여개의 장사정포 중 수백 여 개는 서울과 수도권을 여전히 표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분명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확고해 보이고, 이를 위해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최대 걸림돌인 핵문제는 분명 해결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분명 오랜 군사적 적대관계도 해소될 것이다.

정리하면, 북한주민의 대다수는 남한을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마음의 통합을 방해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북한의 핵과 남북한의 오랜 안보불안이다. 실제로 남한을 적대대상과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도합 30% 이상이 된다. 남한의 대북공격 가능성 또한 높아진 인식을 보여준다. 물론 이번 조사는 2018년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다. 응답시점이 2018년이란 점에서 올해의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응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의 조사결과가 작년인 2017년과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8년 일어난 대전환적 사건들이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내년도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북한실태  
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4장 북한실태인식

### 1. 서론

2017년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마이 웨이’ 행보를 지속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하에서도 이른바 ‘자력자강’을 앞세워 여명거리 준공식, 세포지구 축산기지 준공식을 가지는 등 김정은 영도력 과시와 체제의 결속에 힘을 넣었다.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 이후에는 연일 ‘자력갱생’ 강조를 통해 주민을 독려하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2016년과 2017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북한은 1-2년 사이에 핵실험을 3번 실시 하였고, ICBM, IRBM, SLBM 등 미사일 성능 완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8월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에 한하여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미사일 발사와 광 미군기지 포위사격 작전 등 잇따른 위협 발언을 내놓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의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에게 미국을 위협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위협적인 말들로 인해 한반도에는 여러차례 ‘전쟁 위기설’이 나돌기도 하였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에도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남한과 북한에 서로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지향하였다. 이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통해 공허한 울림이 아닌 진정한 메아리로 거듭났다. 남북한 관계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급진전되었고 4월 두 정상은 만남은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의 실태에 대한 남한 사회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18년 국내에 입국한 지 1년 안팎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 북한에서 살고 있을 당시의 실태를 물어본 것이다. 북한 연구의 특성상 대상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연구는 간접조사의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는 남북 간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 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있고 난 이후인 2018년 7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달라진 남북관계가 조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여러모로 영향을 줌으로써 북한의 실태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언급하는 바이다.

또한 조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도 연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이는 북한이 국경통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있다.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규모는 대폭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2011년 2,706명에서 2012년 1,502명, 2015년 1,275명, 2016년 1,418명, 2017년 1,127명, 2018년 9월까지 808명으로 집계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규모가 줄어드는 점은 현 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2011년 105명 조사 이래 가장 적은 87명이 면대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지역적 안배에 있어서는 양강도 52명(59.8%), 함경북도 20명(23.0%)으로 함경도

및 국경일대예로의 지역 쏠림 현상이 조사 대상자 중 20대의 비중이 33명으로 38.0%, 30대가 21명으로 24.1%, 40대 10명으로 11.5%, 50대 19명으로 21.8%로 조사 대상의 불균형을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실태 인식을 진행함으로써 축적된 기초자료들은 북한 변화의 유의미한 지점들을 읽어내기에 충분한 지표로 기능한다.

이에 조사는 북한 실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두 18개의 질문을 하였다. 본 파트는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북한주민의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의 경제의식의 세 범위로 나누어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체제와 사회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과거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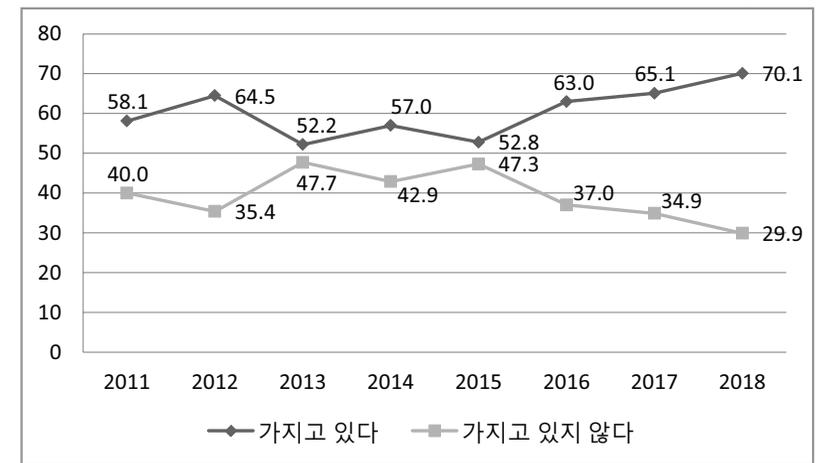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조사, 평가하기 위해 연구진은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으며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의 4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매우 큰 자부심’은 2017년 37.1%에서 2018년 42.5%로 5.4% 상승하였으며, ‘약간의 자부심’은 2017년 28.0%에서 2018년 27.6%

로 0.4% 소폭 하락하였다.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2017년 28.8%에서 2018년 20.7%로 8.1% 하락하였다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2017년 6.1%에서 2018년 9.2%로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단위: %)



전반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매우 큰 자부심 +약간의 자부심)는 응답은 2011년 58.1%에서 2018년 70.1%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별로+전혀)는 2011년 40.0%에서 2018년 29.9%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눈여겨 볼 부분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와 ‘가지고 있지 않다’의 변화이다.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2012년 64.5%에서 52.2%로 12.3% 하강하였다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은 2012년 35.4%에서 47.7%로 12.3% 상승하였다. 이후 ‘가지고 있

다’는 인식은 2014년 57.0%, 2015년 52.8%였고,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은 2014년 42.9%, 2015년 47.3%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70.1%, ‘가지고 있지 않다’ 29.9%로 4.02%의 격차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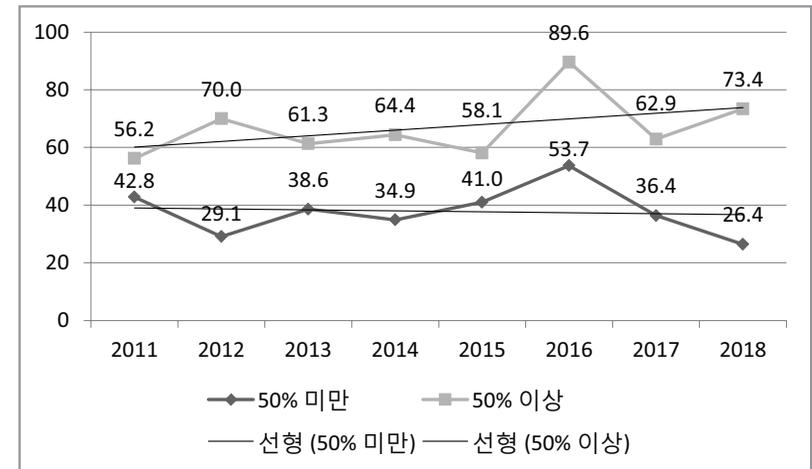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주민의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면서 주민에 대한 선전선동의 몫이 커지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상승하고 있다.

(2)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북한주민들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조사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10% 미만에서 90%이상까지로 9개의 보기를 제시하였다. 2011년 조사에서부터 2018년까지를 살펴보면 김정은 지지도는 50% 이상에서 지지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미만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단위: %)



2017년과 비교해 보면, 10%미만에서는 2017년에 9.1%에서 2018년 13.8%로 2018년이 4.7% 높은 반면, 20%에서는 2017년 3.8%이나 2018년에는 0.0%이다. 30%에서는 2017년 15.2%이나 2018년 9.2%로 2018년이 6.0% 낮다. 40%에서 2017년은 9.3% 나온 반면, 2018년에는 3.4%로 역시 2018년은 5.9% 낮다. 50%에서 2017년 15.2%에서 2018년 14.9%로 2018년이 0.3% 낮으며, 60%에서도 2017년이 11.4%인데, 2018년은 9.2%로 2018년은 2.2% 낮다. 이후 70%에서 2018년은 2017년보다 상승하는데, 2017년 9.8%였으나 2018년 10.3%로 0.5%, 80%에서 2017년 9.8%이나 2018년 14.9%로 5.1%, 90% 이상에서 2017년 16.7%에서 2018년 24.1%로 7.4% 앞서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2017년 당시 북한주민의 김정은 지지도는 기본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한다. 지지도에는 젊은 이미지와 더불어 대남, 대미에 대한 과격적인 언사와 행보, 핵무기 완성 대한 일종의 기대심리가 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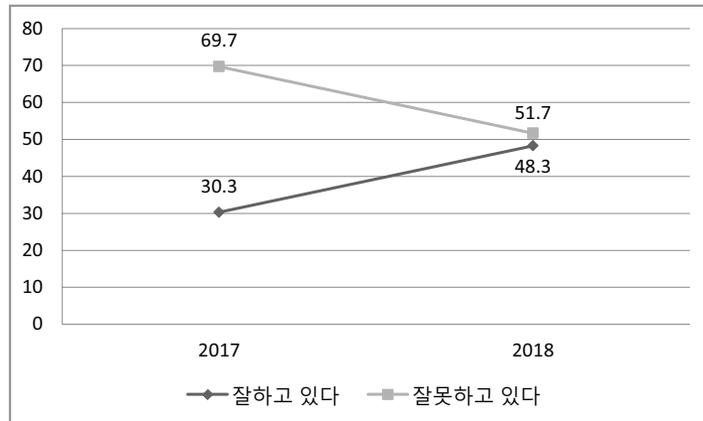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에서와 같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김정은 지도도는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의 북한 내부의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상황이 주민의 의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김정은 직무 평가

김정은 직무 평가는 2017년 처음 시작하여 2018년까지 2회 진행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써 직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의 4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그림 4-3〉 김정은 직무 평가

(단위: %)



2018년 ‘잘하고 있다’는 평가(매우+대체로)는 48.3%(9.2%+39.1%)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대체로 잘못+매우 잘못) 51.7%(32.2%+19.5%)보다 3.4% 낮다. 그러나 2018년 ‘잘하고 있다’는 평가(매우+대체로)는 48.3%(9.2%+39.1%)는 2017년 30.3%(7.6%+22.7%) 보다 18% 높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대체로 잘못+매우 잘못)는 2017년 69.7%(30.3%+39.4%)에서 2018년 51.7%(32.2%+19.5%)로 18% 감소하였다. 이에 북한주민들은 김정은 직무평가에 대하여 2017년보다 2018년을 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017년 22.7%에서 2018년 39.1%로 2018년이 16.4% 높게 나왔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017년 39.4%로 높게 나온 반면, 2018년 19.5%로 2018년 19.9% 감소하였다.

### (4) 생활총화 출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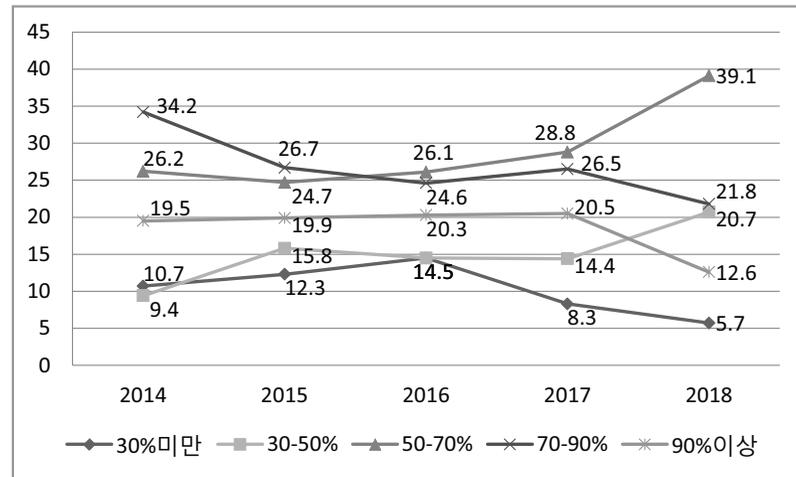
생활총화는 단순히 ‘주간 생활을 총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각종 강연회, 학습회 등 국가주도의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총화 출석률은 국가의 의도를 주민에게 해설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주민을 결속시키기 위한 각종 정치행사의 참여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직장 내 생산 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기적인 생활총화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30% 미만에서는 2017년 8.3%에서 5.7%로 2.6% 하락한 반면, 30-50%에서 2017년 14.4%에서 2018년 20.7%로 6.3% 상승하였다.

50-70%에서는 2017년 28.8%에서 2018년 39.1%로 10.3% 상승하였다. 70-90%와 90% 이상에서는 2017년에 비하여 4.7%, 7.9%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0-70%가 2014년 26.2%에서 2018년 39.1%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그림 4-4〉 생활충화 출석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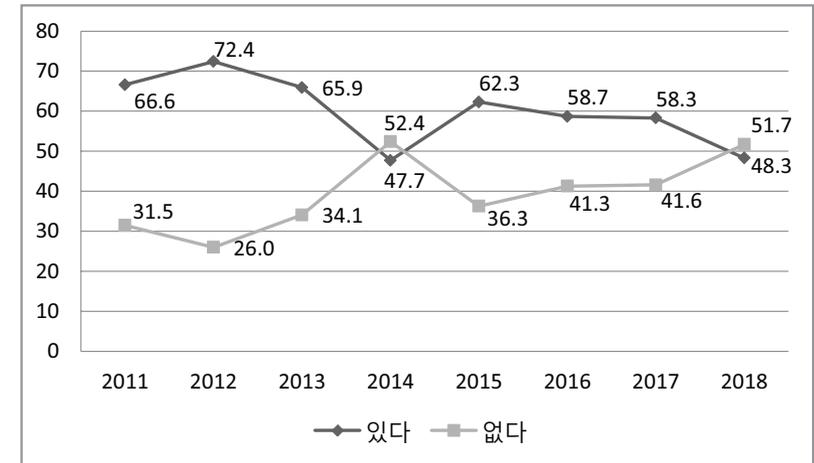


(5)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 정도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진은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라 묻고,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의 4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비판행위가 ‘약간 있다’는 인식은 2017년 47.7%에서 2018년 39.1%로 8.6% 감소한 반면, ‘대체로 없다’는 인식은 2017년 24.2%에서 2018년 35.6%로 11.4% 증가하였다. 2018년 비판행위가 ‘있다’는 인식이 48.3%(매우 많다+약간 있다)로, ‘없다’는 인식 51.7%(대체로 없다+전혀 없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 정도

(단위: %)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본다면 북한주민이 정부에 대한 소극적인 비판 행위에 머물러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2011년부터 장기적으로 살펴 보면, 2011년 당시만 해도 비판의식이 ‘있다’와 ‘없다’의 간극은 상당히 벌어져 있었다. 2011년 ‘있다’는 66.6%로 ‘없다’ 31.5%보다 35.1% 격차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있다’ 47.7%, ‘없다’ 52.4%로 4.7% 역전 된 후 2015년 ‘있다’ 62.3%, ‘없다’ 36.3%로 26.0% 벌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판행위가 ‘있다’는 인식은 2011년 이후로 하강하고 있으며 반면 ‘없다’는 인식은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2017년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체제 결속을 위한 일환으로 북한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이 이룬 성과에 대한 잦은 언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러한 성과 선전으로 덮고 핵무력이 완성되어야 경제가 나아진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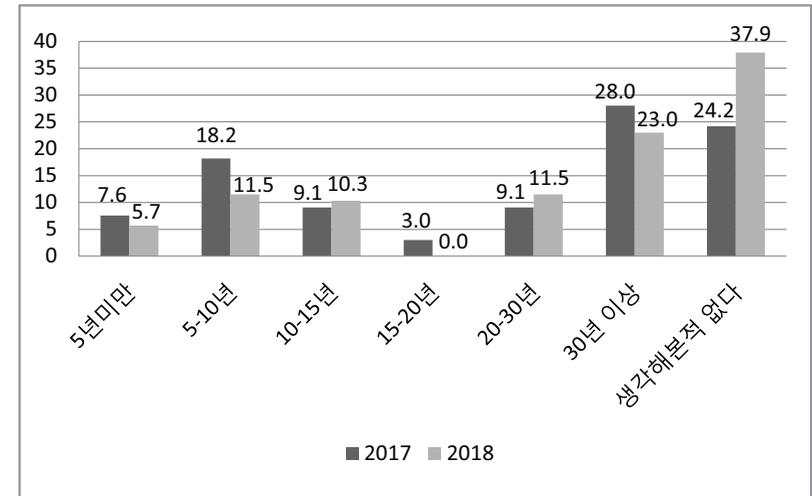
논리를 주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급격히 변화되는 평양의 모습, 시장화의 진전, 핵무기의 완성 등 여러 가지적인 성과들로 북한주민의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북한 정권 유지 기간 예상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 본 적 없다’ 의 각각의 보기 항목에 한하여 아래 <그림 4-6> 과 같이 나타냈다. 2017년에 비하여 2018년에는 예상 기간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인식이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냈다. 예상 유지기간을 5-10년으로 보는 시각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2017년 18.2%에서 2018년 11.5%로 나타났다, 예상 유지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보는 시각 역시 2017년 28%에서 2018년 23%로 낮아졌다. 10-15년으로 보는 시각은 2017년 9.1%에서 2018년 10.3%, 20-30년으로 보는 인식은 2017년 9.1%에서 2018년 11.5% 소폭 상승하였다.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시각은 2017년 24.2%에서 2018년 37.9%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보다는 북한주민 스스로가 생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정권에 거는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북한 정권 유지 기간 예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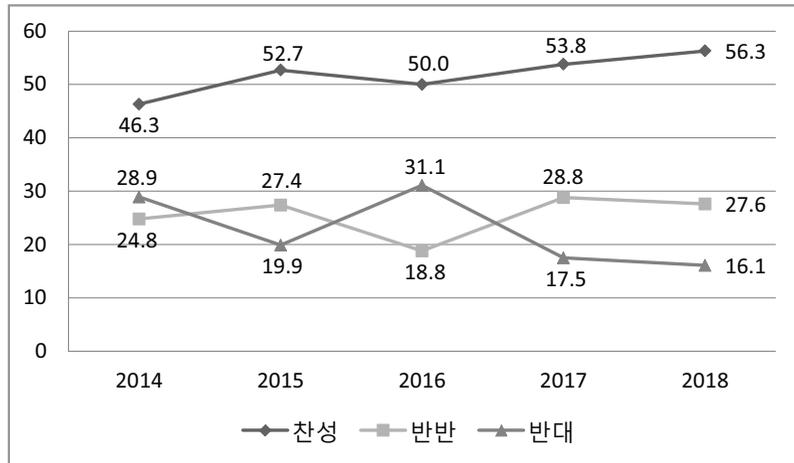


(7) 핵무기 보유 평가

2017년은 북한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행해지고 제6차 핵 실험마저 이루어진 해이다. 같은 해 11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상당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핵무기 보유는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무기 보유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논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림 4-7〉 핵무기 보유 평가

(단위: %)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했는가?”란 질문에 ‘매우 찬성했다’, ‘다소 찬성했다’, ‘반반/그저 그랬다’, ‘다소 반대했다’, ‘매우 반대했다’의 5개 항목을 보기를 제시하였다. 핵무기 찬성의 경우 2017년 53.8%(매우 찬성 32.6%+다소 찬성 21.2%)에서 2018년 56.3%(매우 찬성 28.7%+다소 찬성 27.6)로 2.5%의 소폭 상승을 나타냈다. 반반의 경우는 2018년 소폭 하락을 나타내는데, 2017년 28.8%에서 2018년 27.6%로 1.2% 낮다. 핵무기 반대 의견은 2017년 17.5%(다소 반대 6.1%+매우 반대 11.4%)에서 2018년 16.1%(다소 반대 4.6%+매우 반대 11.5%)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된 2014년부터 살펴보면, ‘찬성’의 경우 2014년 46.3%에서 2018년 56.3%로 10% 상승한 반면, ‘반대’는 2014년 28.9%에서 2018년 16.1%로 12.8% 낮아졌다. 이는 김정은 정권 들어 핵실험이 증가하면서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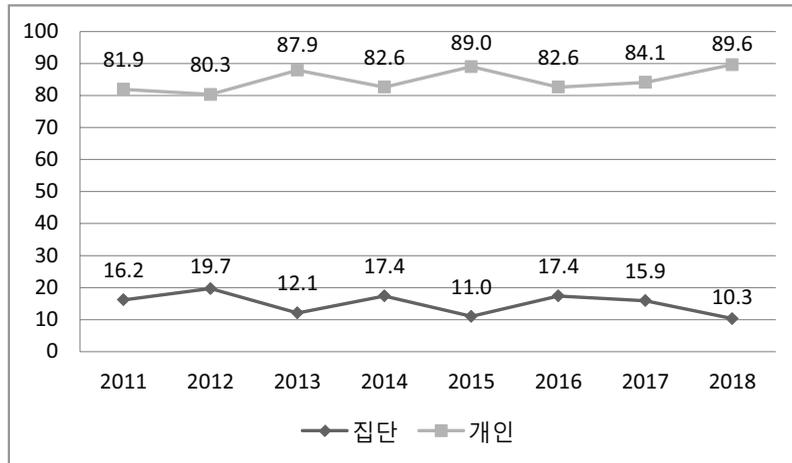
성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 ‘찬성’과 ‘반대’의 격차를 벌려 놓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는 인식은 2014년 24.8%에서 2018년 27.6%로 2.8% 소폭 상승, 핵무기 보유에 대한 평가에 소극적인 집단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8) 집단과 개인 우선순위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는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의 4가지 보기가 제시되었다. 먼저,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는 2011년부터 지속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 81.9%에서 2018년 98.6%로 상승 추세이다. 반면에 ‘집단’은 2011년 16.2%에서 2018년 10.3% 하락세를 보인다. 2017년 ‘집단’을 중시하는 태도는 15.9%였으나, 2018년 10.3%로 5.6% 하락하였다.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는 2017년 84.1%에서 2018년 89.6%로 5.5% 상승하였다. 이에 ‘개인’과 ‘집단’의 간극은 2011년 65.7%에서 2018년 79.3%의 격차로 벌어졌다.

〈그림 4-8〉 집단과 개인 우선 순위

(단위: %)



이는 사회통제 및 생활총화 참여 등 조직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 사회주의의 본질은 집단주의이다. 그것은 1960년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sup>10</sup> 라는 구호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지만 2002년 ‘실리 사회주의’로 노선 전환을 꾀한 이후 개인주의적 가치가 북한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10) “공산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문제는 넓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배격하고 근로자들을 나라와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로 교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공화국복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만들며 우리의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81년 9월 11일),” 『김일성저작집 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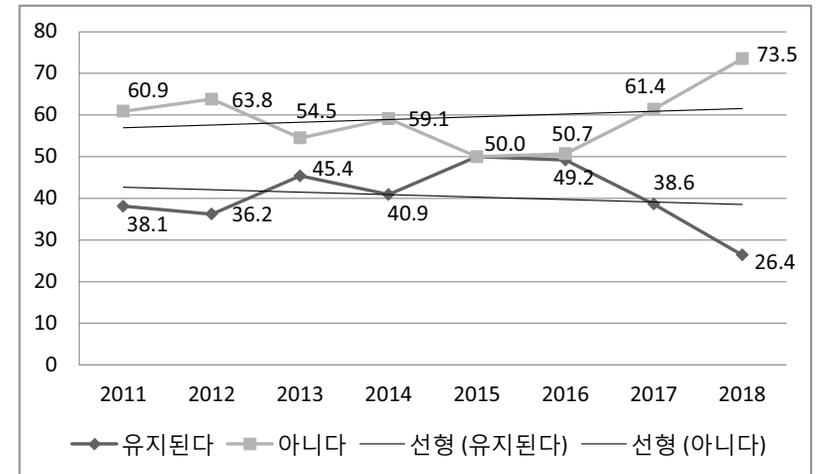
### 3. 북한주민의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

#### (1) 사회통제 유지 정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는 응답자들에게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의 네 문항으로 보기를 제시했다. 조사결과,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정도는 2017년에 비하여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통제가 ‘별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은 2017년에 44.7%에서 2018년 58.6%로 13.9% 높게 나타난 반면,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인식은 2017년 29.5%에서 2018년 18.4%로 11.1% 감소하였다. 사회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인식은 2017년 38.6%(9.1%+29.5%)에서 2018년 26.4%(8.0%+18.4%)로 12.2% 낮아졌다.

〈그림 4-9〉 사회통제 유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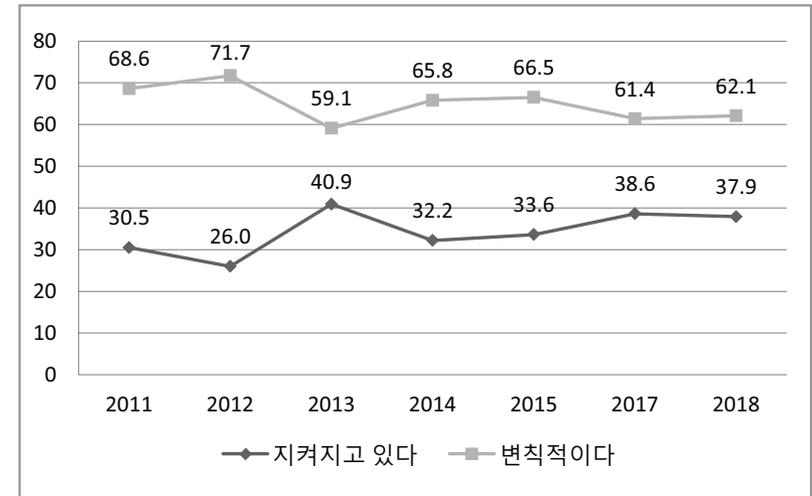
사회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은 2011년 38.1%에서 2015년 50.0%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8년에는 26.4%를 찍었다. 반면 사회통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2011년 60.9%에서 2015년 50.0%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8년 73.5%에 달하였다. 이번 조사로 김정은 집권 6년 차(2017년 기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안정화 국면에 사회의 통제는 느슨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통제의 정도가 ‘유지된다’는 인식과 ‘아니다’는 인식은 점차 그 차이를 넓히고 있어 앞으로의 북한주민의 인식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개인에 따라 사회통제를 느끼는 체감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이와 직종, 지역 등 여러 사회배경 변수에 따른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군사력 강화와 함께 체제 결속을 위해 주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서는 그것이 잘 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2)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가?”라는 연구진의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의 4가지 항목의 보기가 제시되었다.

〈그림 4-10〉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

(단위: %)



〈그림 4-10〉은 직장에서 생산규율을 ‘지킨다’는 항목이 ‘변칙적으로 운영된다’에 비하여 낮다.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가 37.9%(13.8%+24.1%)인 반면에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62.1%(34.5%+27.6%)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여 ‘지켜지고 있다’는 항목은 2017년 38.6%에서 2018년 37.9%로 0.7% 감소한 반면, ‘변칙적이다’는 2017년 61.4%에서 2018년 62.1%로 0.7% 상승에 그쳤다. ‘대체로 지켜진다’는 항목은 2017년 28.8%에서 2018년 24.1%로 4.7% 감소한 반면,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는 항목은 2017년 28.5%에서 2018년 34.5% 소폭 상승을 나타냈다.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는 항목은 2017년 9.8%에서 2018년 13.8%로 소폭 상승하였고,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는 항목은 2017년 32.6%에서 2018년 27.6%로 소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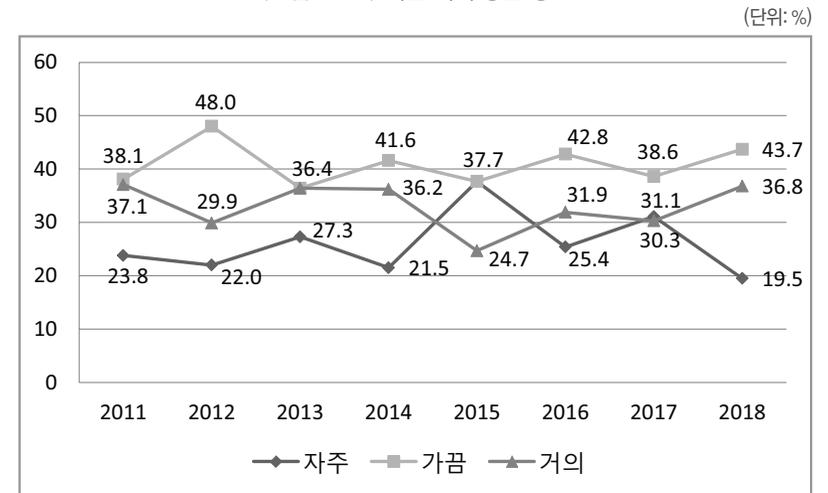
2017년 북한은 살림집, 발전소 건설과 일부 국산 제품 생산, 온라인 판매 등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무역회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중국이 북한 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연이어 8월에는 수출마저도 금지함에 따라 무역 업종 노동자들의 수입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생산규모가 변칙적으로 운용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8월 3일 인민소비품전시회’를 소개하면서 공장, 기업소들의 소비품 생산이 권장됨에 따라 직장 내 생산 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 (3) 다른 지역 방문 정도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 보셨습니까?”를 묻는 질문에 지역 간 방문 횟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북한 전역으로 확산된 시장은 북한 경제의 모습도 바꾸었다. 2002년 공식적으로 시장을 허용한 후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다. 시장화는 주민의 지역 내 이동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통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각종 정치행사 및 특별경비기간 등에는 주민 이동을 제한 및 금지되면서 식량 구입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북한의 주민 이동에 대한 통제는 2017년 4월 초 태양절, 7월 초 김일성 서거 추모 외에도 봄, 여름, 가을 농촌 동원 시기, 그리고 남북한 및 북미 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던 5월, 8월, 9월 등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자주 가보았다’는 응답은 2017년 31.1%에서 2018년 19.5%로 비하여 11.6% 낮아지고

‘가끔 가보았다’는 응답은 2017년 38.6%에서 2018년 43.7%로 5.1% 높아졌다. ‘거의 가보지 못했다’는 응답 역시 2017년 30.3%에서 2018년 36.8%로 6.5% 상승하는 등의 흐름세를 나타냈다.

〈그림 4-11〉 다른 지역 방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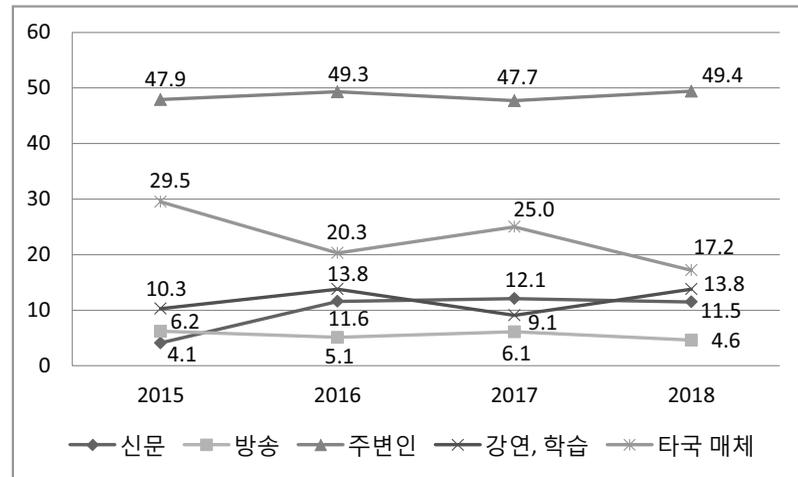
### (4) 외부소식 접촉 경로

2017년 11월 3일 『로동신문』에는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의 제목 하에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에서 첫째가는 대상은 청년들”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동적인 사상 문화의 전파를 막는 것은 혁명의 운명과 나라의 생사존망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요소”로 언급되었다. 위의 내용은 북한이 청년들 속에서 만연하는 외부 문화 유입의 풍조를 경계하면서 자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외부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는가?”의 질문에 조선신문

(로동신문), '조선방송', '주변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 '강연, 학습',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방송, 통신, 뼈라 등)'의 항목이 보기로 제시되었고, '주변인'을 통한 외부접촉이 4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외부소식 접촉 경로

(단위: %)



'주변인'을 통한 외부소식 접촉은 2017년 47.7%에서 2018년 49.4%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친척, 이웃, 친구 등을 통해 바깥세상을 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강연 및 학습'을 통한 접촉이 2017년 9.1%에서 2018년 1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국가의 공식 채널을 통하여 북한의 행보 및 해외의 반응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북한은 2017년 각종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관한 성공을 언급하면서 남한과 미국,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반면, '타국 매체'를 통한 접근은 2017년 25.0%에서 2018년 17.2%로 감소

추세이다. '타국 매체'를 통한 외부소식 접촉은 2015년 29.5%에서 2018년 17.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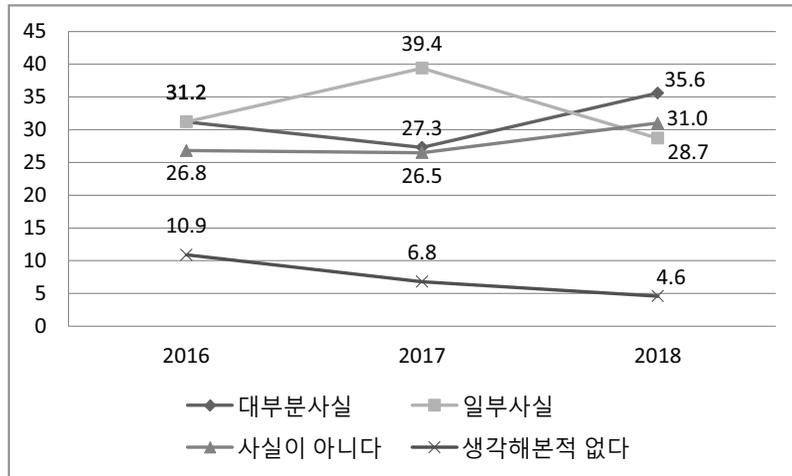
#### (5) 언론에 대한 신뢰도

2017년 4월 26일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7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180개 나라 중 언론 자유 84.98점으로 180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sup>11)</sup> 그것은 북한이 유일한 공식자료로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언론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조사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들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해 본 적 없다'의 4가지 보기 중에서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부분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은 2017년 27.3%에서 2018년 35.6% 상승을 나타낸다. 반면, '일부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은 2017년 39.4%에서 2018년 28.7%로 하락하였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는 인식은 2017년 26.5%에서 2018년 31.0% 상승했다.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은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1) 한국은 27.61점으로 63위를 기록하였다. 자료: "2017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리스트," <https://rsf.org/en/ranking/2017>. 검색일 2018년 12월 30일

〈그림 4-13〉 언론에 대한 신뢰도

(단위: %)



(6) 인권언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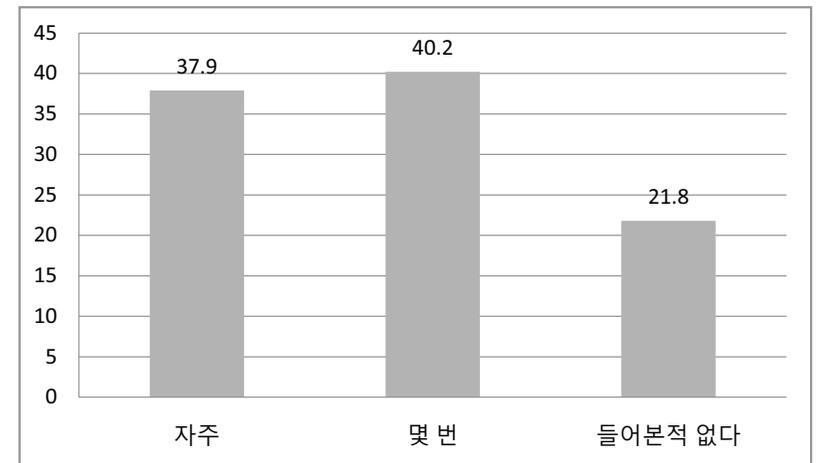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문제'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체의 노력이 계속되는 이유이다. 북한 '인권문제'의 범주에는 “납북자·국군포로 및 정치범에 대한 탄압, 경제파탄 및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아,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제약, 그리고 해외 강제노역 등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유형이 포함”<sup>12)</sup> 된다. 북한은 거듭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과 미국의 '북한인권유린보고서' 등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주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있다며 반박하곤 하였다.

12) 김부찬,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 『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4호(2015), p. 12.

“교육기관이나 언론에서 인권(또는 인민의 권리)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자주 들었다’, ‘몇 번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없다’의 항목 중에서 ‘자주 들었다’ 37.9%, ‘몇 번 들어본 적 있다’ 40.2%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 질문은 2018년 조사에서 처음 조사된 것으로 인권 언어의 사용에 대한 질문에 78.1%가 ‘들었다’고 응답한 것에 반하여 ‘들어본 적 없다’는 21.8%에 그쳤다. 이는 북한주민이 인권에 관한 용어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음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4-14〉 인권 언어 사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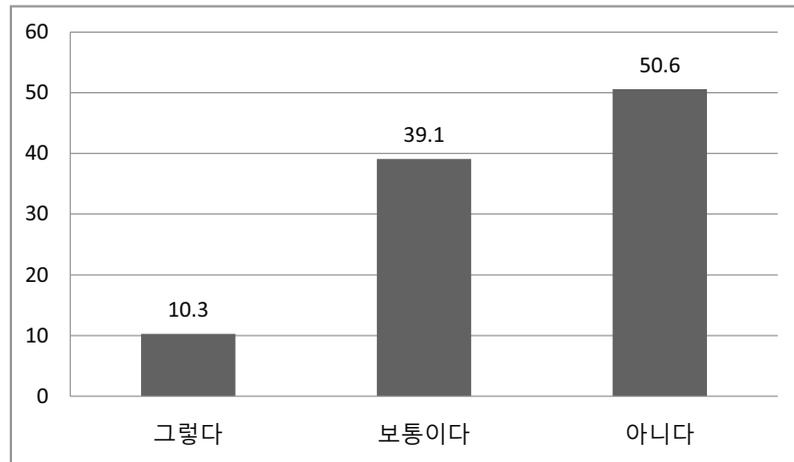


(7) 북한 당국의 인권 정책 평가

이어서 제시된 “북한 당국(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 ‘아니다’는 응답이 51%, ‘보통이다’ 39.1%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다’는 인식은 10%에 불과하여 인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5〉 북한 당국의 인권 정책 평가

(단위: %)



4. 북한주민의 경제인식

(1) 월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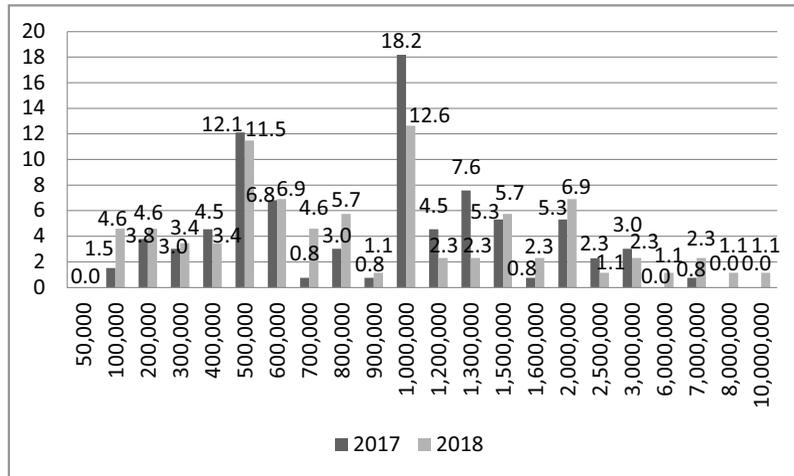
북한의 쌀값은 2017년 7월 초 1kg에 평양 5,750원, 신의주 5,705원, 혜산 5,800원에 거래되었다. 환율은 1달러 당 평양 8,100원, 신의주는 8,108원, 혜산 8,125원이며, 중국 돈 1위안은 평양 1,210원, 신의주 1,200원, 혜산은 1,205원에 거래되었다. 돼지고기는 1kg에 평양 12,980원, 신의주는 13,000원, 혜산 13,100원에 팔렸다. 휘발유는 1kg에 평양 18,150원, 신의주 18,100원, 혜산 18,075원으로 10여일 전 평양 15,080원, 신의주 16,010원, 혜산 16,000원에 거래됐던 가격보다 각각 3,070원, 2,090원, 2,075원 상승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sup>13</sup> 북한주민의 공식 월급이 3,000~5,000원선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시장 가격은 월급을 훨씬 초월한다. 이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비공식적 소득을 필요로 한다.

이에 “가족이 만족할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 조사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월 소득 100,000원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017년 1.5%에서 4.6%, 200,000원은 2017년 3.8%에서 4.6%, 300,000원은 2017년 3.0%에서 3.4%로 상승하였다. 반면, 400,000원은 2017년 4.5%에서 3.4%로 소폭 하락하였다. 월 소득을 500,000원으로 보는 응답자는 2017년 12.1%에서 2018년 11.5%의 0.6% 하락하였다. 600,000원은 2017년 6.8%에서 2018년 6.9%로, 700,000원은 2017년 8%에서 2018년 4.6%로, 800,000원은 2017년 3.0%에서 5.7%, 900,000원은 2017년 0.8%에서 2018년 1.1%의 소폭 상승을 보인다.

<sup>13</sup> 北 물가, “쌀값 여전히 강세속에 채소류는 내림세,” 서울평양뉴스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1>, 검색일: 2018년 12월 27일.

〈그림 4-16〉 월 소득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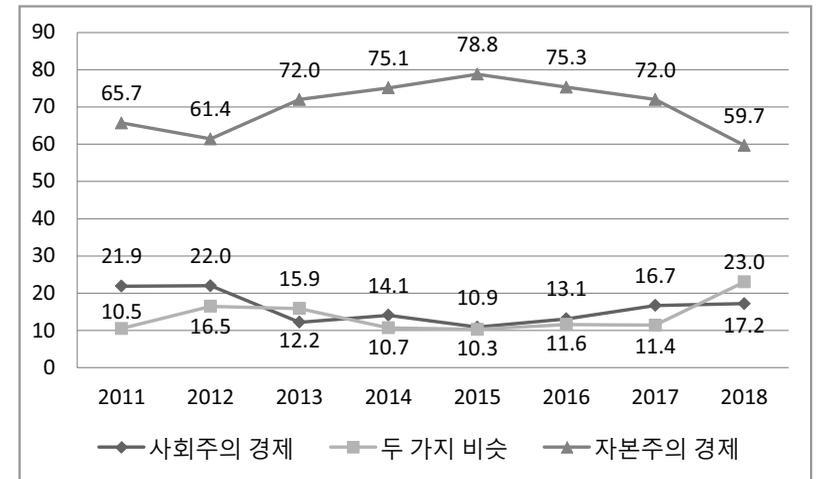
월 소득 1,000,000원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017년 18.2%에 비하여 2018년 12.6%로 5.6%의 하락을 보였다. 월 소득 1,200,000원으로 보는 응답자는 2017년 4.5%에서 2018년 2.3%, 1,300,000원은 2017년 7.6%에서 2018년 2.3%로 감소하였다. 월 소득 1,500,000원은 2017년 5.3%에서 2018년 5.7%, 1,600,000원은 2017년 0.8%에서 2018년 2.3%, 2,000,000원은 2017년 5.3%에서 2018년 6.9%로 상승하였다. 월 소득을 2,500,000원은 2017년 2.3%에서 2018년 1.1%, 월 소득 3,000,000원은 2017년 3.1%에서 2018년 2.3%로 감소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만 본다면, 소득에서 주민의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점과 감정은 정권 들어 주민의 소득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2) 경제체제 선호도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의 다섯 가지 보기가 제시되었다.

〈그림 4-17〉 경제체제 선호도

(단위: %)



우선,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가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 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8년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훨씬 더 지지 + 약간 더 지지)’는 항목은 59.7%로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약간 더 지지 + 훨씬 더 지지)’ 17.2%보다 42.5% 높다. 또한,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한다’는 항목은 지난해에 비하여 2018년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2017년

11.4%에서 2018년 23.0%로 상승했다. 다만,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는 인식은 2014년부터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정화의 진전에 따라 소득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나면서 나타난 결과라 보인다.

### (3) 경제 악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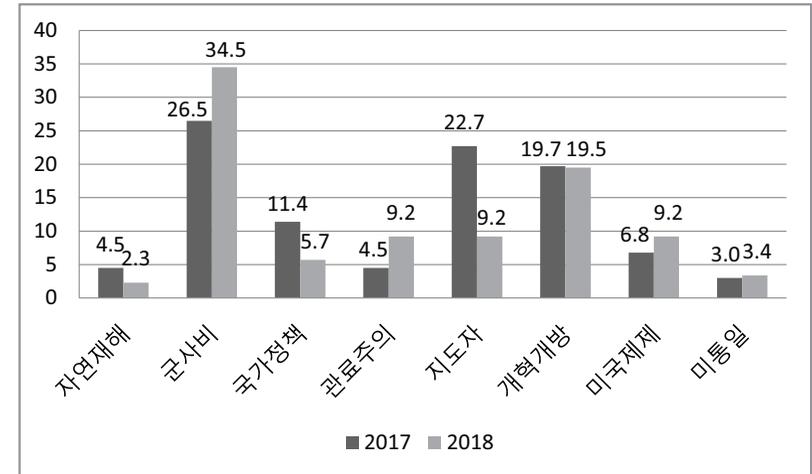
경제 악화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 ‘자연 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기타’의 9개 항목으로 보기를 제시하였다.

올해의 조사결과는 2017년과 다른 점이 관찰되었다. 2017년에는 ‘군사비 지출’ 26.5% > ‘지도자 책임’ 22.7% > ‘개혁개방 없음’ 19.7% > ‘국가정책 오류’ 11.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2018년에는 ‘군사비 지출’ 34.5% >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19.5% > ‘미국제재’ 9.2%, ‘관료주의’ 9.2% > ‘국가정책’ 5.7% 오류 순이다. 북한주민은 2018년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8개 항목 중 ‘군사비 지출’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잦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라는 항목은 지난해와 유사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19.5%로 비교적 높다. 반면에 ‘지도자의 책임’은 2017년 22.7%에서 2018년 9.2%로 13.5%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 정책의 책임’은 감소한 반면, ‘관료주의’는 상승한 것으로, 2017년 ‘국가정책’이 잘못되었다

는 인식은 11.4%에서 2018년 5.7%로 감소, ‘관료주의 때문’에는 2017년 4.5%에서 2018년 9.2%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4-18〉 경제 악화의 원인

(단위: %)



## 5. 소결

2018년 북한 실태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 경제의식을 살펴보는 작업은 통일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동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018년 실시된 북한실태 인식 조사를 통해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의 정권에 대한 만족도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어감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 정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은 집권 6년 차에 접어들며 정치와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과 지지도, 김정은 직무평가, 생활총화 출석률, 핵무기 보유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올라간 반면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북한주민 스스로도 정권의 붕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고, 기존의 전체주의적 시각 역시 점차 빛을 바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둘째, 전반적인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은 이전보다 느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생산 규율 역시 '변칙적이다'는 응답이 2017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통제는 2017년에 비해 높아졌다. 주변인을 통한 외부소식 접촉의 기회가 타 경로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언론을 통해 주민을 교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주민의 경제의식에서도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하락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소득 격차의 확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선호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다. 북한 경제의 악화 원인으로서는 군사비 지출을 가장 많이 꼽았고, 개혁개방이 안 된 점도 많은 응답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그만큼 경제 형편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핵·경제 병진이라고 했지만, '자력자강', '자력갱생' 등 국제사회의 제재 극복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고전

적 경제 정책을 되풀이함으로써 그만큼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이 제시한 '인민들이 허리띠를 풀게 될 것'이라던 희망은 주민 달래기용 멘트로 전락하였고, 항일투쟁과 6.25 전쟁의 정신을 되살려 '자력자강'을 강요하는 것에 북한주민들이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나이와 직종, 살았던 지역과 국경지대 거주 여부의 지역적 편파성으로 인하여 성급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된 전체적인 시기를 배경으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계열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안정기에 접어들수록 북한주민의 정치에 대한 만족은 높아진다. 사회통제의 측면에서는 주민 이동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통치기제는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공안 및 사회적 통제가 악화되면서 조금씩 자유화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의 진전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강화하고 개인 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기술하였듯이 2018년에는 중대한 변화들이 한반도에 일어났다.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는 북한 사회와 주민의 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적과 관찰로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본다면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조사의 연속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담론과 환경의 변화를 짚어 낼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북한주민의 내면을 읽어 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추가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조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sup>14</sup>

### 1. 서론

2017년에서 2018년을 넘어가는 북한의 행보는 현란했다. 2017년 하반기까지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했고, 국제사회는 무력시위와 제재로 대응했다. 특히,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시점을 전후하여, 한반도 근처에 미국 항공모함 3척과 이지스함 11척이 참여하는 해군합동훈련, 전투기 F-22와 F-35A를 포함하여 항공기 230대가 참여하는 공군합동훈련이 진행될 정도였다. 반면, 2018년 상반기 이후 김정은의 유화적인 신년사,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3차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전개되었다.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봄이 왔다”가 화두가 되었다. 북한발 평화공세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2018년 하반기 북한의 행보는 국제사회를 다시 미궁으로 끌어들었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동시에 비핵화를 언급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협상마저 지연시키고 있다. 비공식적이지만 병진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고 제대 명단과 항

목을 늘이면서 압박하고 있다. 양측이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북한이 언급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북한주민들은 주변국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2월 사이 북한을 이탈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마음을 조사했다. 이들은 2018년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 참여한 갈등 국면에서 주변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마음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탈북 이후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생각의 변화를 통제하고자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라는 문구를 응답마다 넣음으로써, 북한주민이 가지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추적하려 한다. 주변국 인식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주변국에 대해 가졌던 친밀감, 위협감,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성된다.

14] 이 글은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7』의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을 2018년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수정하였다.

## 2. 흠어지는 북한주민의 마음

북한주민은 주변국 중 어떤 국가에게 친밀감을 느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을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꼈습니까?”였고 선택지는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였다. 응답자가 북한 주변에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친밀감은 다른 국가에 대한 친밀감과 병립할 수 없는 문항이었다. 북한주민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중국, 북한의 과거 동맹국인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에 대하여 전통적 친밀감이 유지되는지 여부, 북한의 개방과 한류 유입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

(단위: %)

	북한 주민의 인식					남한 주민의 인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1.4	2.1	0.0	0.0	2.3	미국	74.9	78.3	73.8	72.9	70.3
일본	0.0	0.07	0.07	0.0	4.56	일본	4.3	3.9	5.2	8.6	4.8
한국	16.2	22.9	15.0	22.7	13.8	북한	8.9	8.1	10.8	11.4	20.8
중국	79.7	72.9	76.8	71.2	66.7	중국	10.3	8.8	9.7	5.4	4.0
러시아	2.7	1.4	6.5	6.1	12.6	러시아	1.0	0.9	0.4	0.1	0.2
합계 (명)	148	144	138	132	87	합계 (명)	1200	1200	1200	1196	1200

최근 북한을 이탈한 주민은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 중 중국에 가장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표 5-1〉가 보여주듯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했을 중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은 압도적으로 높다. 북한 정권의 수립 이후 중국의 대북한 지원, 특히 냉전 이후 북한 정권의 위기를 중국의 도움을 견딘 경험이 북한주민의 마음에 아직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인다. 대중 친밀감이 2년 연속 하락했지만(2016년 76.8%, 2017년 71.2%, 2018년 66.7%), 중국은 여전히 북한주민의 마음에 가장 친밀한 국가로 인식된다고 추정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러시아에 대하여 가진 친밀감은 조금 상승하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이 러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친밀감이 커졌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했을 때 중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이 하락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초반 사이 북한을 이탈하였는데, 중국에 대하여 가장 높은 친밀감을 보였었다. 반면, 2014년 조사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대중 친밀감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sup>15</sup> 2018년 조사결과에서 대중 친밀감이 통일평화연구원의 인식 조사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에 대한 북한의 반발, 북한 정권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를 북한주민에게 설파하려는 움직임 등 다양한 원인이 대중 친밀감 약화로 이어졌다고 추정된다.

북한에 거주할 때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전년도에 비하여 급락하였다.(22.7%→13.7%) 2016년부터 지속된 한반도 위기가 북한주민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떨어

15] 김병로 외, 2017, 『북한주민 통일인식 2016』(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p.129-130.

졌다고 추정된다. 2013년 한반도 위기,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탈북 직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을 향한 친밀감이 저조했었던 사례를 고려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북한주민의 마음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해석된다.

2018년 조사에서 특이한 현상이 확인되었는데, 한국을 향한 친밀감과 중국을 향한 친밀감이 동반 하락한 것이다. 2017년 조사까지는 한국의 향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은 중국을 향한 친밀감과 음의 상관계수를 보였는데 (개인 차원의 상관계수  $-0.6450$   $p$ -value  $< 0.000$ ; 연도별 집합 차원의 상관계수  $-0.9644$ ,  $p$ -value = 0.0019), 이는 북한주민의 마음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움직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달리 한국과 중국을 향한 친밀감이 동반 하락한 올해의 결과는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불신하는 북한주민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던 북한주민들이 북중관계의 악화로 러시아를 선택하고, 한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던 북한주민들이 남북관계의 악화로 미국과 일본까지 바라보는 현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큰 틀에서는 북방 진영(북한, 중국, 러시아)과 남방진영(한국, 미국, 일본) 간 균열선이 가장 크게 존재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북한주민의 마음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했을 때 친밀감이 가장 많이 가졌던 중국과 한국을 성별로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2015년 조사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대중 친밀감을 가진 반면, 2016년 조사 이후 남성이 여성보다 대중 친밀감을 가졌다. 성별 친밀감 격차가 2018년 조사에서 최대점을 찍어 10.9%에 이르렀다. 둘째, 중국에 대한 성별 간 친밀감 차이와 한국에 대한 성별 간 친밀감 차이가 연결되어 있다. 2013년 조사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친밀감을 더 가진 반면, 2016년 조사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친밀감을 더 가진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성별에 따라 분화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성별 친밀감의 분화 추세가 보인다.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중국	한국	기타	합계(명)
2013	남성	78.6	14.3	7.1	58
	여성	86.5	12.2	1.3	74
2014	남성	79.6	12.2	8.2	50
	여성	79.8	18.2	2.0	99
2015	남성	63.6	29.1	7.2	57
	여성	78.7	19.1	2.2	89
2016	남성	83.0	13.2	3.8	53
	여성	72.9	17.6	9.4	85
2017	남성	72.7	21.4	5.7	70
	여성	69.4	24.2	6.5	62
2018	남성	60.5	13.2	26.3	38
	여성	71.4	14.3	14.3	49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수준이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까? 북한에서 교육이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 미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는 교육이 강한 정치사회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국 중 북한 정권에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가 나쁠 때 교육 수준에 따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하고, 북중관계가 나쁠 때 교육 수준에 따라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에서 교육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적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북한에서 받

는 교육이 외부 세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한국에 대한 친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 지표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서, 상기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은 응답자에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게 나타났다.<sup>16</sup> 학력별로 한국에 가장 큰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의 비중은 대학 졸업자가 20%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4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북한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주민보다 한국에 더 친밀감을 가졌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교육 수준이 정치사회화의 결과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개별적 지적 능력을 더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교육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자유국가를 적대시하는 정치사회화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지적 능력의 향상이 정치 현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측면도 크게 나타난 것이다.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3			2014			2015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미국	0.0	0.0	2.1	0.0	0.0	2.2	0.0	0.0	3.4
일본	0.0	0.0	0.0	0.0	0.0	0.0	0.0	4.2	0.0
한국	23.8	13.3	10.6	10.0	9.4	19.8	27.6	20.8	23.0
중국	71.4	86.7	85.1	85.0	87.5	75.8	69.0	75.0	73.6
러시아	4.8	0.0	2.1	5.0	3.1	2.2	3.4	0.0	0.0
합계(명)	21	15	94	20	32	91	29	24	87

16] 김병로 외, 2017, pp.132.

	2016			2017			2018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미국	0.0	0.0	0.0	0.0	0.0	0.0	4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16.7	3.2
한국	27.8	0.0	16.5	40.0	13.0	24.2	20.0	8.3	12.7
중국	72.2	93.8	74.8	60.0	87.0	69.5	40.0	58.3	73.0
러시아	0.0	6.3	7.8	0.0	0.0	6.3	0.0	16.7	11.1
합계(명)	18	16	103	10	23	95	5	12	63

북한에 거주할 당시 정치적 성향과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은 어떤 연관성을 보일까? 2016년 조선노동당의 당원 규모를 약 346만 명, 북한 인구를 25,368만 명으로 추산하면,<sup>17</sup>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원은 전체 북한 사람 중 13.6%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조선노동당 가입이 정치적 의견과 활동을 반영한다면,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은 북한에게 적대적인 국가에게 적대감을 가지며 북한에게 우호적인 국가에는 친밀감을 가질 것이다.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체제인 북한에서 당원층은 북한 정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능성이 작지만, 조선노동당이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충원한다면 당원 경력이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 대중 친밀감의 저하, 대한 친밀감을 상승과 연결될 수도 있다.

17] 2016년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 "각급 당 대표회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가 참가했다는 공식 보고와 당원 천 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는 관행[3차 당대회(1956) 대의원 916명/당원 106만 명, 4차 당대회(1961) 대의원 1657명/당원 131만 천 명, 5차 당대회(1970) 대의원 1734명/당원 160만 명]을 고려하면, 조선노동당 당원은 약 346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진철, "북 당대회 이모저모," 한겨레(2016년 5월 8일); 이영태, "김정은 북한 7차 노동당대회, 사회주의 새로운 이정표," 뉴스핌(2016년 5월 7일).]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던 북한주민이 비당원보다 한국을 향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친밀감, 중국을 상대적으로 향하여 강한 친밀감을 가졌었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졌던 정치적 성향이 주변국을 향한 친밀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반면, 2018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던 북한주민이 비당원보다 한국에 대하여 더 친밀감을 가졌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표본의 과소로 일어난 현상으로 추정된다.<sup>19</sup>

〈표 5-4〉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원	비당원								
미국	0.0	1.6	7.7	0.9	0.0	0.0	0.0	0.0	0.8	1.4
일본	0.0	0.0	3.8	0.0	0.0	0.9	0.0	0.0	16.7	2.7
한국	10.0	17.3	26.9	22.2	7.7	17.9	20.0	23.6	25.0	12.3
중국	90.0	78.0	61.5	75.2	92.3	73.2	80.0	70.0	50.0	69.8
러시아	0.0	3.1	0.0	1.7	0.0	8.0	0.0	6.6	0.0	13.7
합계(명)	20	127	26	117	26	112	25	106	12	73

주) 2014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 응답자 중 후보당원 각각 1명을 당원으로 처리함.

18] 김병로 외 2017, p.133.

19] 2018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 87명 12명이 조선노동당 당원이었고, 조선노동당 당원 12명 가운데 3명이 한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었다고 응답했다. 2015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 144명 가운데 조선노동당 당원이 26명이었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던 26명 중 7명이 한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었다고 응답했다.

### 3. 미국발 공포의 증가

북한주민은 주변국 중 어떤 국가로부터 위협감을 느낄까?<sup>20</sup>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주체 노선을 설파하면서, 북한이 적대적인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둘러싸여 있다는 ‘피포위의식’을 북한주민들의 마음에 투영하였다. 2016-17년 북한의 핵도전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는 북한주민의 안보 불안을 더욱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 이를 알기 위해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자가 북한 주변에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은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과 병립할 수 없는 문항이었다.

〈표 5-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북한 주민의 인식					남한 주민의 인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73.8	65.7	84.1	75.8	84.5	미국	5.4	4.7	4.7	5.0	5.5
일본	9.7	12.6	3.6	5.3	0.0	일본	24.6	16.1	10.0	7.8	13.9
한국	2.1	1.4	2.9	1.5	2.4	북한	49.8	54.8	66.7	62.4	32.4
중국	14.5	19.6	8.0	15.2	13.1	중국	17.6	23.3	16.8	23	46.2
러시아	0.0	0.7	1.4	0.0	0.0	러시아	2.6	1.3	1.7	1.8	2.0
합계(명)	133	145	143	138	87	합계(명)	1199	1200	1200	1200	1200

20]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서 주변국을 향한 친밀감과 위협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대중국 친밀감과 위협감 간 교차분석의 결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음[Pearson chi2(1) = 5.6224, p-value = 0.018], 한국을 향한 친밀감과 위협감 간 교차분석의 결과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함[Pearson chi2(1) = 2.4519, p-value = 0.117].

올해의 조사 결과, 미국발 위협감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발 위협감은 북한인식조사에서 항상 수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의 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떠나기 전 겪었던 국제관계가 북한주민의 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조사결과가 올해에도 확인되었다.<sup>21)</sup>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이 험한 말싸움을 하고 양국이 군사적 시위를 벌이던 상황에서 북한을 떠난 사람들은 심각한 미국발 위협감을 가졌었다고 회고하였다. 북한정권이 미국을 위협국으로 지목하여 주민에게 선전하지만, 국제관계와 북한주민의 위협감 간 관계는 북한주민의 마음에서 미국발 위협감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 당시 가졌던 중국발 위협감이 미국발 위협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현상 역시 올해에도 이어졌다. 전년도 조사에 비하여 미국발 위협감의 증가는 중국발 위협감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북한주민의 마음 속에서 중국이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2위국이지만, 2017년 북미긴장을 경험한 북한주민들은 중국발 위협보다는 미국발 위협에 더 민감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중관계가 악화되었지만 중국발 위협감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음을 볼 때, 북한주민은 중국에 잠재적 위협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발 위협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일본발 위협감이 미국발 위협감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현상

21) 2011년과 2014년 상대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미미했던 현상을 반영하여 2012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는 대미 위협감이 많이 감소했다. 반면, 2013년 위기와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북한에서 경험했던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조사와 2016년 조사에서 미국발 위협을 높게 평가했다.

역시 올해에도 확인되었다. 2018년 조사에서 미국발 위협감이 전년에 비하여 높아지면서, 어떤 조사대상자도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었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위협감을 가졌더라도 2017년 북미 간 긴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본에 위협감을 언급한 조사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위협감이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다. 남북 간 적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실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남북이 교전할 위험이 매우 크지만, 북한주민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한국의 능력을 낮추어 평가하는 북한 정권의 선전이 북한주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에 따른 위협감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북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중국발 위협감을 보다 크게 느끼는 추세가 확인된다. 2016년 조사결과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탈북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중국발 위협감을 더 가졌다고 응답한 것이다. 한반도 위기 직후 북한을 이탈한 주민 중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미국발 위협감을 가졌던 과거 조사결과가 올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sup>22)</sup> 2017년 남북관계 악화 속에서 탈북한 주민 중 여성이 미국발 위협감을 더 가졌다고 회고한 것이다. 올해 표본의 수가 예년보다 작기 때문에 나타난 이상 현상인지, 아니면 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지 여부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위협감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22) 이전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3년 한반도 위기,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북한에서 겪은 후 탈북한 북한주민 중 남성이 여성보다 미국발 위협감을 더 가졌었다고 회고하였다.

〈표 5-6〉 성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미국	중국	기타	합계(명)
2013	남성	62.1	27.6	10.3	58
	여성	79.7	13.5	6.8	74
2014	남성	77.1	14.6	8.3	50
	여성	72.2	14.4	13.4	99
2015	남성	53.6	30.4	16.0	57
	여성	73.6	12.6	13.8	89
2016	남성	90.6	5.7	3.7	53
	여성	80.0	9.4	10.6	85
2017	남성	75.4	17.4	7.2	70
	여성	80.0	13.3	6.2	62
2018	남성	77.8	22.2	0.0	38
	여성	89.6	6.3	4.2	49

학력이 위협감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올해 조사대상 중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탈북한 5명 모두는 중국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꼽았다. 반면, 전문학교 또는 고등중학 이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미국발 위협감을 가졌었다고 회고하였다. 2015년 이후 대학을 졸업한 탈북민들이 느끼는 미국발 위협감이 전문대 이하 학력을 가진 탈북민에 비해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위협감이 학력에 따라 분화되는지는 명확치 않다. 미국발 위협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위협감이 학력에 따라 분화된다면, 이는 거꾸로 북한의 고학력자들은 중국발 위협을 더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 학력과 위협감 간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 5-7〉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2013			2014			2015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미국	77.3	60.0	71.6	85.0	73.3	72.2	46.4	75.0	69.0
일본	9.1	6.7	6.3	5.0	10.0	11.1	25.0	4.2	11.5
한국	0.0	0.0	2.1	0.0	3.3	2.2	0.0	4.2	1.1
중국	13.6	33.3	20.0	10.0	13.3	14.4	28.6	16.7	18.4
러시아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명)	22	15	95	20	30	90	28	24	87

	2016			2017			2018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미국	77.8	75.0	87.4	60.0	73.9	81.5	0.0	91.7	90.0
일본	0.0	12.5	1.9	0.0	8.7	4.3	0.0	0.0	0.0
한국	5.6	6.3	1.9	0.0	0.0	2.2	0.0	0.0	1.7
중국	11.1	6.3	7.8	40.0	17.4	12.0	100.0	8.3	8.3
러시아	5.6	0.0	1.0	0.0	0.0	0.0	0.0	0.0	0.0
합계(명)	18	16	103	10	23	95	5	12	63

조선노동당 당원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거주 당시 비당원에 비하여 주변국에 대하여 다른 위협감을 가졌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북한 인구의 13.6%를 포함하는 조선노동당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2018년 조사에서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북한이탈주민의 미국발 위협감이 거의 변화가 없다.(2017년 83%, 2018년 85.6%) 당원의 대미 위협감이 감소하였지만

(2017년 84.0%, 2018년 75.0%). 조사대상자 중 당원의 숫자가 너무 작아 그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당원과 비당원의 위협감 순위가 해마다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원과 비당원 간 위협감의 차이가 구조적이지는 않다고 추정된다.

북한을 떠나기 전 북한에서 위기를 겪었던 당원은 비당원에서 비하여 미국발 위협을 높게 인식하던 과거의 추세가 올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3년 위기를 북한에서 겪고 2014년 조사에 응했던 과거 당원 응답자와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북한에서 겪고 2016년 조사에 응했던 당원 응답자는 비당원 응답자에 비하여 높은 대미 위협감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북한을 떠나기 전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북관계/북미관계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조선노동당 당원은 대미 위협감을 상대적으로 낮게 가졌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2017년의 위기를 겪은 후 북한을 이탈한 조선노동당 당원이 미국발 위협을 높게 평가하리라 예상되었지만, 조사 결과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올해의 과소표집 문제인지, 아니면 당원 여부와 주변국 인식이 무관해서 나타난 결과인지는 앞으로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표 5-8〉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원	비당원								
미국	75.0	73.4	53.8	68.1	88.5	83.0	84.0	75.7	75.0	85.6
일본	15.0	8.9	15.4	12.1	7.7	2.7	4.0	5.8	0.0	0.0
한국	0.0	2.4	0.0	1.7	0.0	3.6	4.0	1.0	0.0	2.9
중국	10.0	15.3	30.8	17.2	3.8	8.9	8.0	17.5	25.0	11.4
러시아	0.0	0.0	0.0	0.9	0.0	1.8	0.0	0.0	0.0	0.0
합계 (명)	21	127	27	118	26	112	25	106	12	73

주: 2014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 응답자 중 후보당원 각각 1명을 당원으로 처리함.

#### 4.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북한주민의 마음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는가? 2017년 조사까지 북한이탈주민은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북한의 자주통일과 주변국의 현상유지를 대비하여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려 하는 북한 정권의 정치적 선전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16-17년의 한반도 위기가 이러한 북한주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행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표 5-9〉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주 변 국	통일 희망 정도	북한주민의 인식					남한 주민의 인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원함	21.1	33.1	18.8	23.5	24.1	40.0	47.3	38.8	40.3	46.8
	원하지 않음	78.9	66.9	81.2	76.5	75.9	60.0	52.7	61.2	59.7	53.2
중국	원함	14.9	14.4	17.4	14.4	18.4	18.8	21.7	15.1	14.8	10.6
	원하지 않음	85.1	85.6	82.6	85.6	81.4	81.2	78.3	84.9	85.2	89.4
일본	원함	6.8	8.3	10.9	10.0	13.8	12.3	13.4	14.5	18.2	11.3
	원하지 않음	93.2	91.7	89.1	90.0	86.2	87.6	86.6	85.5	81.8	88.7
러시아	원함	30.1	26.6	34.8	23.5	40.3	16.3	16.5	16.1	15.5	14.0
	원하지 않음	69.9	73.4	65.2	76.5	59.7	83.7	83.5	83.9	84.5	86.0
합계(명)		146	143	138	132	87	1195	1198	1200	1200	1200

올해의 조사 결과는 예년과 비슷하였다. 모든 주변국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응답 비율로 볼 때 그 중에서도 1순위는 일본으로 조사됐고 중국과 미국이 그 뒤를 따랐다. 일본의 경우 통일 한국이 자신들의 경쟁국으로 부상할 위험이 있고,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북한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에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이라는 인식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북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을 때 북한을 떠난 북한이탈주민이 미국의

통일 희망을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가 과거 조사에서는 나타났었다. 미국의 통일 희망에 관한 긍정적 조사 결과가 2012년과 2015년에 나왔었는데, 2011년과 2014년 모두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안정적이었었다. 이에 반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후 미국의 통일 희망에 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 하지만 올해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의 결과에서 미국이 한국의 통일에 긍정적일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조사 이래 최고점을 찍은 것이다. 북미관계를 포함한 국제관계의 변화가 통일과 관련한 주변국의 입장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다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협력에 관한 인식 조사는 이미 확인된 두 가지 경향을 다시 보여주었다. 첫째,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하향 평가가 지속됐다. 2017년 조사에 비하여 2018년 조사에서 중국의 협조 필요성이 조금 올랐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고 장기적인 시계열적 추세를 볼 때 여전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는 하락하였지만, 전체적인 추세로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다. 자주적 통일에 대한 믿음은, 비록 2016년과 2017년 조사보다는 낮아졌지만 2015년 이전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상기 두 현상의 원인을 지목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북한주민의 자신감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북한이 내부적 경제조치와 중국을 통한 세계경제 참여로 경제사정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고, 핵무력 역시 완성을 선포할 정도로 강화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였고 이것이 그들의 인식에 투영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 북한이 통일 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북한주민의 마음에 퍼진 것이다.

〈표 5-10〉 통일을 위한 협조 필요성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빈도	%								
중국	76	52.8	68	48.6	60	43.8	52	39.4	35	40.2
미국	30	20.8	24	17.1	17	12.4	19	14.4	18	20.7
러시아	5	3.5	8	5.7	16	11.7	11	8.3	6	6.9
일본	0	0.0	0	0.0	0	0.0	0	0.0	1	1.1
없음	33	22.9	40	28.6	44	32.1	50	37.9	27	31.0
합계(명)	149	100	146	100	138	100	132	100	87	100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번영에 어떤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2016년 조사부터 추가하였다. 이 문항에 대하여 조사 참여사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016년 조사에는 중국이 1위(47.1%)였지만 2017년 조사에는 한국이 1위(56.1%)가 되었다. 2018년 조사에서도 한국이 1위로 나타났지만, 중국을 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34.1%→ 43.7%) 능력 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발전에 더 필요하겠지만, 북한이탈주민은 한국과 중국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아직 주변국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 5-11〉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우호 관계가 필요한 국가

(단위: %)

	2016		2017		2018	
	빈도	%	빈도	%	빈도	%
미국	6	4.3	8	6.1	4	4.6
일본	1	0.7	2	1.5	0	0.0
한국	60	43.5	74	56.1	44	50.6
중국	65	47.1	45	34.1	38	43.7
러시아	6	4.3	3	2.3	1	1.1
합계(명)	138	100	132	100	87	100

## 5. 소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주변국 인식을 추정하려고 하였다. 친밀감과 관련하여 네 가지 중요한 조사 결과가 확인되었다. 첫째, 북한주민이 중국에 대하여 강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만, 점차 약화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18년 조사에서 대중 친밀감이 조사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수년째 이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 친밀감의 감소는 기정 사실로 보인다. 둘째, 북한에 거주할 때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하락하였다. 2017년의 한반도 위기가 북한주민의 마음에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갖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자들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한국에 대해 가지는 친밀감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북한에서 교육이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정치사회화를 의미하기보다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인지와 평가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하게 한다. 넷째,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북한이탈주민은 비당원 주민에 비하여 중국에는 더 높고 한국에는 더 낮은 친밀감을 가졌던 과거의 결과가 올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원과 비당원 간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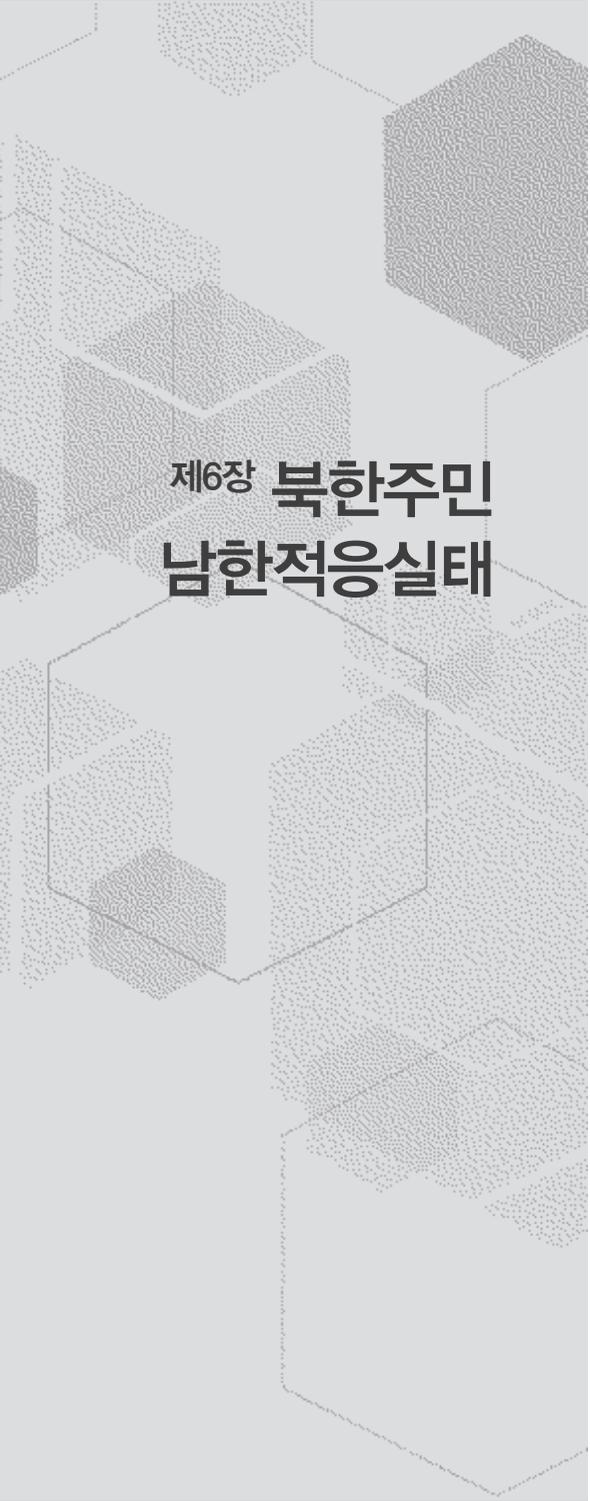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라 생각하고 있으며, 2017년 한반도 위기가 이러한 대미 위협감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조사에 비하여 미국을 한반도 위기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하는 비중이 8.7% 증가한 것이다. 둘째, 중국발 위협감은 미국발 위협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북한주민의 마음에 중국발 위협감과 미국발 위협감이 병존하지만,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표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이 여성보다 북미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2018년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진행된 조사 결과에서 남성이 미국발 위협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여성의 대미 위협감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넷째,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었던 북한이탈주민이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던 현상이 올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8년 조사에서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는 북한주민이

미국에게 더 위협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것이다. 당성과 정치의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통일과 관련된 인식조사에서 발견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모든 주변국에 대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은 통일 한국을 경계할 것이라 예상한 듯 하며, 미국과 중국은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예상하는 듯하다. 둘째,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반면, 자체 역량에 기반한 통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드러났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2018년 조사에는 북한주민의 자신이 소폭 약화되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자주적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지되었다. 작년 조사에 비하여 한국을 향한 기대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2019년 진행될 조사는 북한주민의 마음이 정세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2018년 남북관계가 화해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국제적으로 여전히 대북제재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소가 북한주민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지는 2019년의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2019년 조사에서는 대중국 친밀감과 대미국 위협감이 감소하고, 대한국 친밀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주민의 마음이 한국으로 향하는 추세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북한주민  
남한적응실태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6장 북한주민 남한적응실태

###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분명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출연하는 공중파와 케이블 프로그램들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해당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들로 자리를 잡았으며, 최근 들어 특집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전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는 극화된 형태로 일반 대중들에게 꾸준히 전달된다는 것은 한 사회에서 아직 소수자로 남아있는 집단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와 동시에 영상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매체의 특성상 극적이고 동시에 극단적인 예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또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정체성과 생활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터전으로 이주한 이들의 삶이란 자연적으로 극적인 요소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을 그려내는 방식과 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자극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의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동

반자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은 그들만의 고단한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통의 과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활과 생경한 습관, 특이한 사고와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에 대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보다, 그러한 차이를 넘어서서 남한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력과 어려움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의식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더 나은 적응방안을 위해 고민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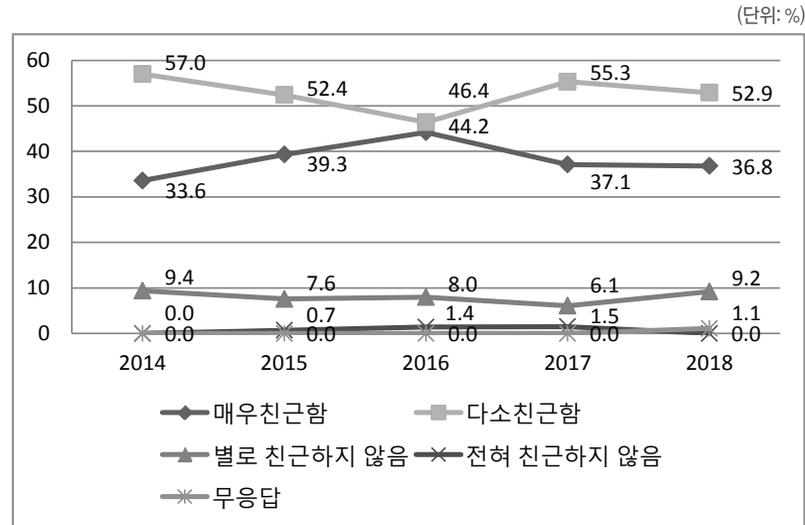
### 2.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포용감

남한주민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과 포용감은 2016년부터 그 전반적인 추이뿐 아니라 두 질문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는 비율에 주목해오고 있다. 친근감은 상대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비해 포용성은 나에게 대해 “상대가”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두 가치는 그 행위의 주체라는 차원에서 우선 차이를 보인다. 이에 더해, 현재 북한주민 의식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보여주는 포용성이라는 가치는 다시금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에 기반하여 측정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친근감은 남한주민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투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서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감정으로 파악하는 반면, 포용성은 남한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척도를 매긴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이 개입한 반응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로부터 친근감과 포용성 사이의 교차분석을 통해 추상적 기대와 구체적 경험의 간극을 가늠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 정도를 묻는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림 6-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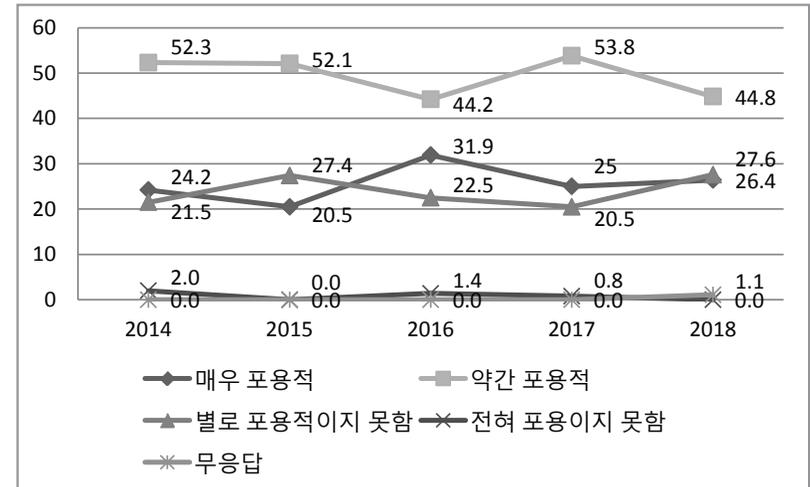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친근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다소 감소(92.4%→89.7%)하였고 부정적 반응은 다소 증가한 것(6.1%→10.3%)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사람들의 포용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017년 대비 78.8%에서 71.2%로 소폭 하락하였고, 부정

적 응답은 20.5%에서 28.7%로 비슷한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6-2〉 남한주민의 포용성

(단위: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친근감과 포용성을 교차 분석하여 그 간극을 기대와 현실, 혹은 정서와 경험의 불일치의 지표로 파악한다고 할 때, 친근감에서는 긍정적(매우 친근함, 다소 친근함)인 응답을 하였으나 포용성에서는 부정적(전혀 포용적이지 않음, 별로 포용적이지 않음)인 응답을 한 경우를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해당 부분에 대한 2018년의 수치는 44.2%로, 전년도에 행한 같은 방식의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26.7%의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6-1〉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표 (2018)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 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 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50.0	40.6	<b>9.4</b>	<b>0.0</b>	100.0
다소 친근	13.0	52.2	<b>34.8</b>	<b>0.0</b>	10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12.5	25.0	62.5	0.0	10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0	0.0	0.0	0.0	0.0
응답수(빈도)	23.0	39.0	24.0	0.0	86.0

〈표 6-2〉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표 (2017)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 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 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53.1	40.8	<b>6.1</b>	<b>0.0</b>	100.0
다소 친근	9.6	69.9	<b>19.2</b>	<b>1.4</b>	10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0.0	0.0	100.0	0.0	10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0	0.0	100.0	0.0	100.0
응답수(빈도)	33.0	71.0	27.0	1.0	132.0

### 3. 남한생활의 만족도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주목할 만한 다른 문항이 있다.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에 현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귀하의 현재 남한생활은 귀하가 북한에 계실 때 생각했던 남한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0.3%가 “(매우, 다소) 가깝다”는 답변을 했다는 점이다. 친근감과 포용성이 그 대상과 주체를 “남한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문항은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이라는 사회에서의 생활과 남한사람들에게서 느끼는 현실감을 분리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 의식조사에 포함된 유사한 질문으로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은 최근 5년간 80% 안팎의 수치에 머물며 큰 변동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가까운 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과 교차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면, 남한생활이 기대했던 것과 별로 가깝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의 57.2%, 전혀 가깝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의 75.0%가 남한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한생활에의 만족도를 “남한에 오신 것을 후회하십니까?”라는 문항의 응답과 교차분석을 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남한에 온 것을 약간 후회한다’는 응답자 중 87.6%가 ‘남한생활에는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6-3〉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가까운 정도 교차표  
(단위: %)

	매우 가까움	다소 가까움	별로 가깝지 않음	전혀 가깝지 않음	계
매우 만족	65.4	16.3	<b>14.3</b>	<b>50.0</b>	100.0
대체로 만족	23.1	60.5	<b>42.9</b>	<b>25.0</b>	100.0
보통	7.7	18.6	35.7	25.0	100.0
별로 만족 않음	0.0	4.7	7.1	0.0	100.0
응답수	26.0	43.0	14.0	4.0	87.0

〈표 6-4〉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 후회 정도 교차표  
(단위: %)

	매우 가까움	다소 가까움	별로 가깝지 않음	전혀 가깝지 않음	계
매우 만족	0.0	0.0	0.0	100.0	100.0
대체로 만족	<b>6.3</b>	<b>37.5</b>	<b>43.8</b>	12.5	100.0
보통	20.0	63.3	16.7	0.0	100.0
별로 만족 않음	52.5	35.0	10.0	0.0	100.0
응답수	28.0	39.0	16.0	3.0	87.0

이러한 결과를 두고 어떠한 해석이 가능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록 현재의 생활이 남한에 오기 전에 기대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해도, 그와 별개

로 남한생활 자체는 대체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 “남한생활”이라는 세분화되지 않은 큰 경험의 덩어리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에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렸으나, “후회” 혹은 “기대”와 같이 구체적인 감정 상태를 짚어내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쪽으로 응답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남한생활이 기대에 못 미치고, 혹은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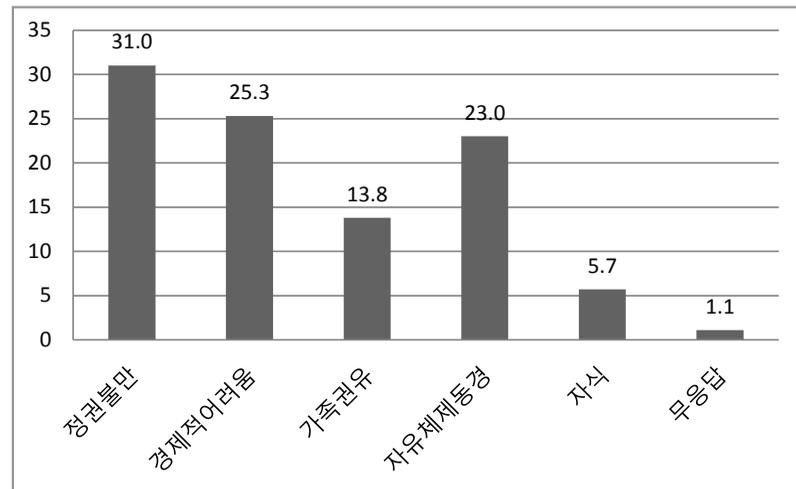
이는 사실상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와서도 후회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에의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일반적 추론을 내리기 쉬운데, 위의 교차분석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와 후회의 여파가 남한에서의 적응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질문이나 질적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들이 확보될 때 면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그러한 분석을 통해 기대와 후회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더욱 고양하는 지원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4. 탈북을 결심하게 된 원인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질문은 올해 처음 추가되었다. 상위 3순위의 답변을 보면 각각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이 31.0%, 경제적 어려움이 25.3%, 자유체제에의 동경이 23.0%로 나타났다. 흔히 탈북의 이유를 헤아릴 때, 경제적인 부분 즉, “먹고살기 힘들어서”나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어서”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문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훨씬 높은 비율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순위와 3순위의 선택지가 사실상 특정 정권에 대한 것이나 체제 전반에 관한 것이냐는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수렴된다고 본다면, 전체 54%에 해당하는 응답이 정치적인 이유를 탈북의 주요인으로 손꼽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6-3〉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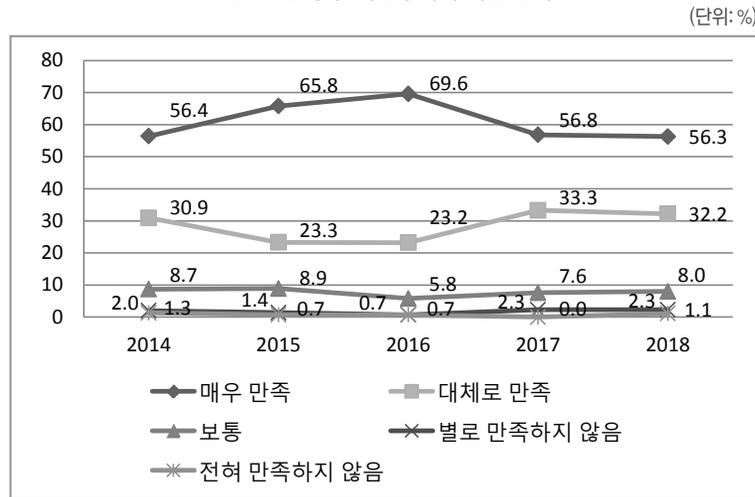
위의 결과에서 한 가지 주의를 끄는 부분은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에 따라서”라는 답변을 선택한 비율은 13.7%, “자식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하여”라는 답변을 선택한 비율은 5.7%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탈북하여 남한에 먼저 들어 온 가족들이 브로커와 송금 등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이른바 “연쇄탈북”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 등에서 종종 등장하며,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에서 함께 살던 가족들이 남한에서 순차적으로 다시 합가하게 되는 경우는 더 이상 드문 예가 아니다. 또한 탈북동기를 설명할 때 자신보다는 어린 자녀들에게 (북한 사회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주기 위해 남한으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위의 설문결과에서는 비중이 미미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가족과 연관된 탈북동기들이 물론 존재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을 하나 꼽으라고 할 때는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동기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가족의 권유에 의해서 혹은 자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탈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탈북의 과정이나 효과로 이해되는 반면, 본질적인 탈북의 요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선호한 것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들이 오라고 권유하는 곳이 지금 사는 곳보다 낫지 않다면 가질 않을 것이고,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자 하더라도 그곳의 정치·경제적 체제가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 낫지 않다면 굳이 탈북이라는 위험요소가 가득한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지원정책과 적응의 어려움

올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88.5%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5년간 90% 안팎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굳이 변화를 따지자면 최근 3년간 만족도는 미세하게 감소하고 불만족도 역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가 보이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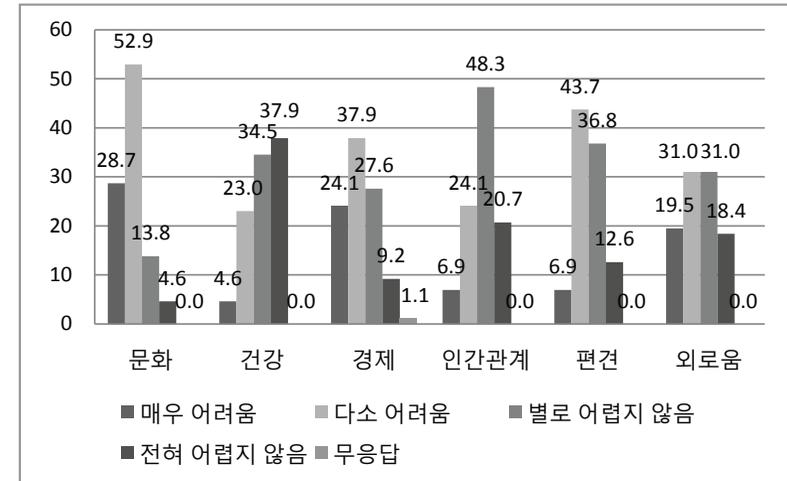
〈그림 6-4〉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남한에서 거주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의 여러 요인에 대한 질문은 2017년 처음 추가되었고, 올해로 2년째 질문지에 포함되어 응답자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려움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결과에서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림 6-5〉 남한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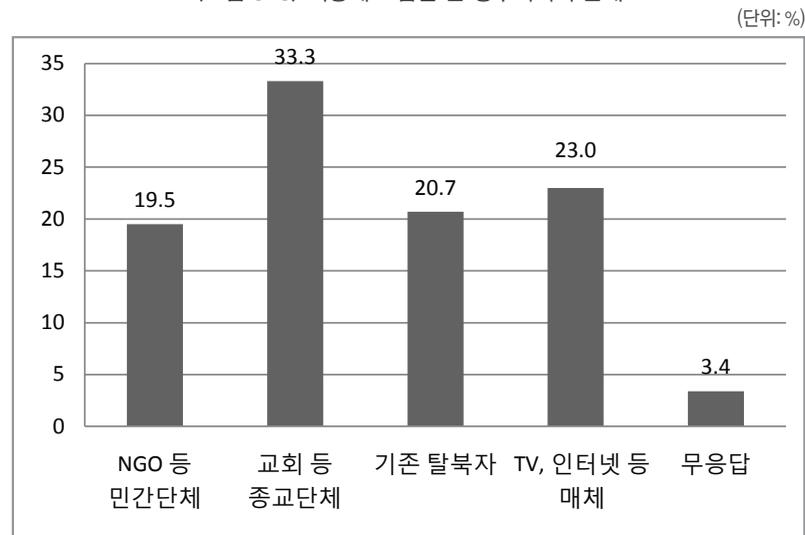


위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다수가 문화적인 차이를 정착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면서도, 편견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문화적인 차이”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수준에서 확인된 결과라기보다는, 남한사회 일반의 가치와 사고방식, 행동성향 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설문지에 답한 응답자가 모두 탈북한 지 1년 미만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회전반의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차이가 적응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남한에서 느끼게 되는 문화적 차이가 남한 입국 이후 얼마나 지속적으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남한 내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대하여 같은 질문으로 조사를 하여 비교한다면 유효한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이외에 남한사회 정착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지원이 33.3%의 비율로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지원 방식, 시작된 시점, 지원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함께 분석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 지원 방안 수립에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포함한 선택지를 제공한 전년도의 조사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91.7%의 압도적 비율로 나타난 것에 비해, 정부 이외의 선택지로만 구성된 올해의 경우 종교단체에 이어 TV, 인터넷 등 매체(23.0%), 기존 북한이탈주민(20.7%), NGO 등 민간단체(19.5%)의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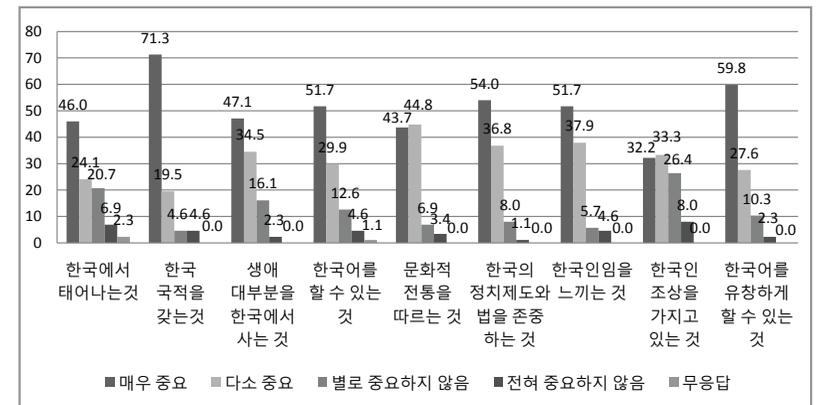
〈그림 6-6〉 적응에 도움을 준 정부이외의 단체



한국 사람이 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에 대해 각각 중요도를 매기는 질문에서는 국적습득, 유창한 한국어 구사, 남한의 법과 정치제도 존중이 상위 3개 중요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인 조상을 가지거나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응답된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응답의 유형을 볼 때, 한국 사람의 구성 요건으로 민족적인 것보다는 시민적인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잠정적이고 제한적인 분석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그림 6-7〉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 중요한 요인들

(단위: %)



## 6. 소결

2018년은 북한의 신년사와 그에 대한 남한의 응대를 필두로 남북한의 특사단 상호 방문,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남북 고위급회담, 1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2차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3차 남북 정상회담(평양), 북미 고위급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까지, 전년도만 하더라도 예기치 못했던 상황과 이벤트들이 숨 가쁘게 일어난 한 해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관계, 한미관계, 미중관계, 북중관계 등이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힌 상황에서, 남북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갈등과 적대로 점철된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정권에 따라, 국제정세에 따라 남북한은 교류와 협력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며 주변 상황에 조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관심과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에 따라 잔잔하거나 거칠어지는 수면의 파도와 관계없이 그 나름의 지속적인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 심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경색과 같은 변화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응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정이며, 적응이 완료되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항상 진행되는 지속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적응은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은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소수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공동의 문제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주민 의식조사의 한 챕터로만 진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

민의 남한적응실태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필요를 느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올해 북한주민 의식조사를 통해 본 남한적응 실태는 전년도 및 최근 5년간의 추세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서 여러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표면적 답변의 저변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심리와 반응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남북관계에서 일어난 많은 합의와 계획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며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지를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제7장 결장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7장 결장

올해 조사의 질문 시점인 2017년까지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거듭한 해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가 컸지만,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그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오히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으로 남한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중관계마저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대북제제제를 불러왔다. 제제가 얼마나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북한체제는 건실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지속적인 경제자유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핵무력을 통한 군사력 강화와 함께 제한적 개혁 조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김정은 식 병진노선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으로는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천명했을 정도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경제적으로도 민간 부문을 살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 역시 과거에 비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듯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사회가 안정되면서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올해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북한사회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단기간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감소하고 있고, 북한체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주체사상과 핵보유에 대한 지지 역시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을 바라보는 북한주민들의 생각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과거 북한경제가 어려울 때 나타났던 통일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경향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같은 민족이니라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통일의 방식 역시 남한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감소한 반면, 남 북한 체제의 장점이 절충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은 세대와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올해의 조사결과에서는 북한체제의 안정 속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외식을 엿볼 수 있다. 북한체제가 안정되어 간다는 것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일이다. 어느 한 쪽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통일은, 그 과정을 단기간으로 줄여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만큼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상호 이익이 가능한 수준의 협력과 교류가 일어날 때, 통일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보다 평화롭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체제의 안정 속에서 평화적 통일을 논의하게 될수록 통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은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주민들도 점차 통일을 어느 한쪽 국가의 체제로 흡수되는 일방적이고 제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고 있다. 양측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변화될수록 통일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낳게 되

고, 그만큼 복잡한 통일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이 요구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올해의 조사에서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가? 먼저 통일인식에 있어서는 지속성과 변화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통일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있어서는 예년과 비슷한 응답 수준을 보였다. 절대다수의 응답자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고 북한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율의 응답자만이 동일한 응답을 보인 남한주민의 조사결과와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꼭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남북 간의 통일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향후 통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예년과 달라진 결과들도 눈에 띈다. 특히 통일의 방식에 있어 남북한의 체제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두 응답률의 차이가 2% 정도로 줄어들었다. 통일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경제적·실용적 응답은 줄어든 반면 민족주의적 응답이 증가하였고,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란 응답이 증가하였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이 여러 경제자유화 조치들을 통해 군수보다 민간 부문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에 대해서도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제제재의 효과에 따라 이러한 자신감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호의적으로 나타났지만, 남한이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라는 응답 역시 작년 대비 증가한 것은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에 계속된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응하는 남한 정부의 사드 배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적 긴장관계와 상관없이 남한의 문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대다수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남한의 문화 및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감보다는 친밀감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의 대남 인식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결국 한반도의 정치적, 안보적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거꾸로 말해, 안보적 위협이 어느 정도 제거된다면 남한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심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이를 통해 통일에 유리한 국민정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통일인식과 마찬가지로 북한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설문결과 곳곳에서 드러났다.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과 김정은에 대한 주관적 및 객관적 평가, 그리고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지지가 계속하여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사회통제가 과거에 비해 유연해지고 변칙적인 모습이 증가한 반면, 타지역 방문 빈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북한의 사회통제 자체는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 규율이 차츰 완화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사회적 자율성이 조금이나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여러 경제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사회통제 부문에 있어서도 조금씩 '제도화 된 자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주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경제 인식에 있어 개인주의적 가치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북한경제의 문제점으로 폐쇄적 경제구조와 관료주의를 드는 경향이 늘어난 점은, 북한사회의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악화와 사드배치 등으로 대미 위협감이 상승하였고 한국에 대한 친밀감 역시 하락하였다. 대미 위협감의 상승으로 대중 위협감은 감소하였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대중 친밀감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감소세에 있고, 중국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위해 다른 나라의 협조가 필요 없다는 응답이 30%에 달한다는 점은, 그만큼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올해의 조사결과에서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문항들은, 소폭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합의가 올해의 결과에서도 대부분 반복되었고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문항들 역시 그 패턴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의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조사가 질문하고 있는 시점이 주로 2017년이었고, 2017년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

세는 그 이전의 해와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설문에서 묻고 있는 시점이 과거라 하여도 설문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이 2018년 여름, 즉,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때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사 환경이 응답에 편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의 결과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우려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큰 변화가 일어난 2018년에 북한주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내년의 조사결과에 많은 관심이 간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남한에 대한 전반적인 친밀감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북미 간에도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큰 진전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미국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무력을 완성하여 더 이상 이를 것이 없기에 군사적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북한내부에서도 환영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북 및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국제적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북한체제 및 김정은에 대한 지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수는 대북제재의 지속기간 및 그 효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아직 실질적인 합의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제재가 장기화될수록 북한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은이 얼마나 외교적 협상력을 잘 발휘하여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느냐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생각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2018년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은 한층 더 복잡하게 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당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경향과 통일로 인해 일방적인 경제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은 약화되는 대신, 양체제의 장점을 절충한 통일방식을 보다 원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북한체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대외관계가 좋아질수록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현재 남한주민들의 생각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해갈 가능성이 크다. 통일을 굳이 두 나라가 제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통일의 개념을 정의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를 경험한 젊은 층에서 이러한 통일의식의 다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올해 조사의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 경우 통일에 대한 양측의 선택은 보다 복잡해질 것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동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통합의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다. 양측 모두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가운데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면 향후 통일과 통합의 과정이 보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듯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의 변화는 양측의 통일정책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요구된다.

---

# 부록

집계표 2018

설문지 2018

---

통일의 필요성

문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0.0%(0)	0.0%(0)	90.8%(79)	4.6%(4)	4.6%(4)	0.0%(0)	0.0%(0)
성별	남자	0.0	0.0	94.7	5.3	0.0	0.0	0.0
	여자	0.0	0.0	87.8	4.1	8.2	0.0	0.0
연령대	10대	0.0	0.0	75.0	25.0	0.0	0.0	0.0
	20대	0.0	0.0	87.9	3.0	9.1	0.0	0.0
	30대	0.0	0.0	95.2	4.8	0.0	0.0	0.0
	40대	0.0	0.0	90.0	0.0	10.0	0.0	0.0
	50대	0.0	0.0	94.7	5.3	0.0	0.0	0.0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100.0	0.0	0.0	0.0	0.0
	전문학교	0.0	0.0	100.0	0.0	0.0	0.0	0.0
	고등중학교	0.0	0.0	87.5	6.3	6.3	0.0	0.0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91.7	8.3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90.5	4.1	5.4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90.6	3.8	5.7	0.0	0.0
	없다	0.0	0.0	91.2	5.9	2.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88.2	5.9	5.9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89.1	5.5	5.5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90.9	6.8	2.3	0.0	0.0
	없다	0.0	0.0	90.7	2.3	7.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88.6	4.5	6.8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0.0	91.7	5.6	2.8	0.0	0.0
	이혼	0.0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주민 통일의지

문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0)	0.0%(0)	93.1%(81)	5.7%(5)	0.0%(0)	1.1%(1)
성별	남자	0.0	0.0	94.7	5.3	0.0	0.0
	여자	0.0	0.0	91.8	6.1	0.0	2.0
연령대	10대	0.0	0.0	75.0	25.0	0.0	0.0
	20대	0.0	0.0	93.9	3.0	0.0	3.0
	30대	0.0	0.0	90.5	9.5	0.0	0.0
	40대	0.0	0.0	90.0	10.0	0.0	0.0
	50대	0.0	0.0	100.0	0.0	0.0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80.0	20.0	0.0	0.0
	전문학교	0.0	0.0	100.0	0.0	0.0	0.0
	고등중학교	0.0	0.0	92.2	6.3	0.0	1.6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00.0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91.9	6.8	0.0	1.4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92.5	5.7	0.0	1.9
	없다	0.0	0.0	94.1	5.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88.2	11.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92.7	5.5	0.0	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95.5	2.3	0.0	2.3
	없다	0.0	0.0	90.7	9.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90.9	6.8	0.0	2.3
	결혼(동거 포함)	0.0	0.0	94.4	5.6	0.0	0.0
	이혼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통일이유

문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에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0.0%(0)	2.3%(2)	41.4%(36)	4.6%(4)	13.8%(12)	29.9%(26)	5.7%(5)	2.3%(2)
성별	남자	0.0	2.6	44.7	2.6	7.9	28.9	7.9	5.3
	여자	0.0	2.0	38.8	6.1	18.4	30.6	4.1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50.0	50.0	0.0	0.0
	20대	0.0	6.1	36.4	6.1	15.2	27.3	3.0	6.1
	30대	0.0	0.0	52.4	4.8	0.0	33.3	9.5	0.0
	40대	0.0	0.0	70.0	0.0	20.0	10.0	0.0	0.0
	50대	0.0	0.0	31.6	5.3	15.8	36.8	10.5	0.0
	60대	0.0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0.0	0.0	0.0	60.0	0.0
	전문학교	0.0	0.0	50.0	16.7	25.0	8.3	0.0	0.0
	고등중학교	0.0	1.6	39.1	3.1	14.1	37.5	3.1	1.6
	인민학교	0.0	16.7	50.0	0.0	0.0	16.7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58.3	0.0	8.3	16.7	16.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2.7	37.8	5.4	14.9	32.4	4.1	2.7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1.9	34.0	5.7	13.2	37.7	5.7	1.9
	없다	0.0	2.9	52.9	2.9	14.7	17.6	5.9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41.2	5.9	5.9	47.1	0.0	0.0
북한소식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8	36.4	5.5	16.4	29.1	7.3	3.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7	60.0	0.0	13.3	13.3	6.7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4.5	27.3	9.1	11.4	40.9	6.8	0.0
	없다	0.0	0.0	55.8	0.0	16.3	18.6	4.7	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2.3	38.6	2.3	18.2	29.5	4.5	4.5
	결혼(동거 포함)	0.0	2.8	44.4	8.3	8.3	27.8	8.3	0.0
	이혼	0.0	0.0	20.0	0.0	20.0	6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통일시기

문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0.0%(0)	0.0%(0)	80.0%(7)	12.6%(11)	9.2%(8)	4.6%(4)	8.0%(7)	57.5%(50)
성별	남자	0.0	0.0	10.5	21.1	13.2	5.3	7.9	42.1
	여자	0.0	0.0	6.1	6.1	6.1	4.1	8.2	69.4
연령대	10대	0.0	0.0	0.0	0.0	25.0	0.0	25.0	50.0
	20대	0.0	0.0	9.1	6.1	15.2	6.1	9.1	54.5
	30대	0.0	0.0	4.8	14.3	0.0	9.5	14.3	57.1
	40대	0.0	0.0	10.0	50.0	10.0	0.0	0.0	30.0
	50대	0.0	0.0	10.5	5.3	5.3	0.0	0.0	78.9
	60대	0.0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60.0	0.0	20.0	0.0	0.0
	전문학교	0.0	0.0	16.7	16.7	8.3	0.0	8.3	50.0
	고등중학교	0.0	0.0	4.7	9.4	9.4	4.7	7.8	64.1
	인민학교	0.0	0.0	16.7	0.0	16.7	0.0	16.7	5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16.7	33.3	8.3	8.3	0.0	33.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비당원	0.0	0.0	6.8	9.5	9.5	4.1	9.5	60.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9.4	9.4	5.7	1.9	7.5	66.0
	없다	0.0	0.0	5.9	17.6	14.7	8.8	8.8	44.1
북한소식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9	11.8	5.9	5.9	5.9	64.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5	9.1	10.9	3.6	10.9	60.0
남한친척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0.0	26.7	6.7	6.7	0.0	4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9.1	13.6	9.1	2.3	4.5	61.4
결혼상태	없다	0.0	0.0	7.0	11.6	9.3	7.0	11.6	53.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9.1	13.6	11.4	4.5	15.9	45.5
결혼상태	결혼(동거 포함)	0.0	0.0	5.6	11.1	8.3	5.6	0.0	69.4
	이혼	0.0	0.0	0.0	20.0	0.0	0.0	0.0	80.0
	무응답	0.0	0.0	50.0	0.0	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통일 개인 이익

문5) 그럼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0)	0.0%(0)	69.0%(60)	28.7%(25)	2.3%(2)	0.0%(0)
성별	남자	0.0	0.0	71.1	26.3	2.6	0.0
	여자	0.0	0.0	67.3	30.6	2.0	0.0
연령대	10대	0.0	0.0	75.0	25.0	0.0	0.0
	20대	0.0	0.0	57.6	42.4	0.0	0.0
	30대	0.0	0.0	71.4	19.0	9.5	0.0
	40대	0.0	0.0	80.0	20.0	0.0	0.0
	50대	0.0	0.0	78.9	21.1	0.0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60.0	20.0	0.0
	전문학교	0.0	0.0	83.3	16.7	0.0	0.0
	고등중학교	0.0	0.0	70.3	28.1	1.6	0.0
	인민학교	0.0	0.0	66.7	33.3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66.7	33.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70.3	27.0	2.7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71.7	26.4	1.9	0.0
	없다	0.0	0.0	64.7	32.4	2.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2.9	41.2	5.9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72.7	25.5	1.8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73.3	26.7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72.7	27.3	0.0	0.0
	없다	0.0	0.0	65.1	30.2	4.7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68.2	29.5	2.3	0.0
	결혼(동거 포함)	0.0	0.0	69.4	27.8	2.8	0.0
	이혼	0.0	0.0	80.0	20.0	0.0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통일 집단 이익

문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 집단 이익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0)	0.0%(0)	82.8%(72)	16.1%(14)	1.1%(1)	0.0%(0)
성별	남자	0.0	0.0	84.2	15.8	0.0	0.0
	여자	0.0	0.0	81.6	16.3	2.0	0.0
연령대	10대	0.0	0.0	75.0	25.0	0.0	0.0
	20대	0.0	0.0	75.8	21.2	3.0	0.0
	30대	0.0	0.0	85.7	14.3	0.0	0.0
	40대	0.0	0.0	80.0	20.0	0.0	0.0
	50대	0.0	0.0	94.7	5.3	0.0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60.0	0.0	0.0
	전문학교	0.0	0.0	83.3	8.3	8.3	0.0
	고등중학교	0.0	0.0	84.4	15.6	0.0	0.0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66.7	33.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85.1	13.5	1.4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86.8	11.3	1.9	0.0
	없다	0.0	0.0	76.5	23.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70.6	29.4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87.3	10.9	1.8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80.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86.4	11.4	2.3	0.0
	없다	0.0	0.0	79.1	20.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77.3	20.5	2.3	0.0
	결혼(동거 포함)	0.0	0.0	88.9	11.1	0.0	0.0
	이혼	0.0	0.0	80.0	2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빈부격차

문7)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1.1%(1)	0.0%(0)	58.6%(51)	27.6%(24)	5.7%(5)	2.3%(2)	4.6%(4)
성별	남자	0.0	0.0	57.9	26.3	2.6	2.6	10.5
	여자	2.0	0.0	59.2	28.6	8.2	2.0	0.0
연령대	10대	0.0	0.0	50.0	50.0	0.0	0.0	0.0
	20대	3.0	0.0	48.5	33.3	9.1	3.0	3.0
	30대	0.0	0.0	71.4	23.8	0.0	0.0	4.8
	40대	0.0	0.0	70.0	0.0	10.0	10.0	10.0
	50대	0.0	0.0	57.9	31.6	5.3	0.0	5.3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20.0	20.0	0.0	20.0
	전문학교	8.3	0.0	41.7	25.0	8.3	8.3	8.3
	고등중학교	0.0	0.0	62.5	28.1	4.7	1.6	3.1
	인민학교	0.0	0.0	66.7	33.3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3.3	33.3	8.3	8.3	1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63.5	25.7	5.4	1.4	2.7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9	0.0	66.0	22.6	5.7	1.9	1.9
	없다	0.0	0.0	47.1	35.3	5.9	2.9	8.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64.7	35.3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	0.0	54.5	27.3	7.3	1.8	7.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20.0	6.7	6.7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3	0.0	70.5	20.5	2.3	2.3	2.3
	없다	0.0	0.0	46.5	34.9	9.3	2.3	7.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2.3	0.0	56.8	27.3	6.8	2.3	4.5
	결혼(동거 포함)	0.0	0.0	61.1	27.8	5.6	0.0	5.6
	이혼	0.0	0.0	60.0	20.0	0.0	20.0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실업문제

문8)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1.1%(1)	0.0%(0)	67.8%(59)	17.2%(15)	4.6%(4)	4.6%(4)	4.6%(4)
성별	남자	0.0	0.0	71.1	13.2	2.6	5.3	7.9
	여자	2.0	0.0	65.3	20.4	6.1	4.1	2.0
연령대	10대	0.0	0.0	50.0	50.0	0.0	0.0	0.0
	20대	3.0	0.0	63.6	15.2	9.1	6.1	3.0
	30대	0.0	0.0	90.5	4.8	0.0	0.0	4.8
	40대	0.0	0.0	70.0	10.0	0.0	0.0	20.0
	50대	0.0	0.0	52.6	31.6	5.3	5.3	5.3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60.0	40.0	0.0	0.0	0.0
	전문학교	8.3	0.0	58.3	16.7	0.0	0.0	16.7
	고등중학교	0.0	0.0	73.4	14.1	4.7	4.7	3.1
	인민학교	0.0	0.0	33.3	33.3	16.7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50.0	25.0	8.3	0.0	1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70.3	16.2	4.1	5.4	2.7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9	0.0	69.8	17.0	3.8	3.8	3.8
	없다	0.0	0.0	64.7	17.6	5.9	5.9	5.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76.5	17.6	5.9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	0.0	67.3	16.4	5.5	3.6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0.0	20.0	0.0	13.3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3	0.0	77.3	15.9	0.0	2.3	2.3
	없다	0.0	0.0	58.1	18.6	9.3	7.0	7.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2.3	0.0	68.2	15.9	6.8	4.5	2.3
	결혼(동거 포함)	0.0	0.0	72.2	19.4	0.0	5.6	2.8
	이혼	0.0	0.0	40.0	20.0	20.0	0.0	20.0
	무응답	0.0	0.0	50.0	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지역갈등

문9)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0)	0.0%(0)	32.2%(28)	29.9%(26)	20.7%(18)	10.3%(9)	6.9%(6)
성별	남자	0.0	0.0	39.5	18.4	21.1	10.5	10.5
	여자	0.0	0.0	26.5	38.8	20.4	10.2	4.1
연령대	10대	0.0	0.0	0.0	75.0	25.0	0.0	0.0
	20대	0.0	0.0	33.3	24.2	24.2	12.1	6.1
	30대	0.0	0.0	42.9	19.0	28.6	4.8	4.8
	40대	0.0	0.0	20.0	50.0	0.0	10.0	20.0
	50대	0.0	0.0	31.6	31.6	15.8	15.8	5.3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60.0	20.0	0.0	20.0
	전문학교	0.0	0.0	33.3	16.7	0.0	25.0	25.0
	고등중학교	0.0	0.0	35.9	29.7	23.4	7.8	3.1
	인민학교	0.0	0.0	16.7	33.3	33.3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3.3	41.7	0.0	8.3	1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31.1	28.4	24.3	10.8	5.4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32.1	26.4	26.4	7.5	7.5
	없다	0.0	0.0	32.4	35.3	11.8	14.7	5.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35.3	41.2	23.5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34.5	25.5	18.2	12.7	9.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0.0	33.3	26.7	13.3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27.3	29.5	29.5	9.1	4.5
	없다	0.0	0.0	37.2	30.2	11.6	11.6	9.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31.8	27.3	22.7	11.4	6.8
	결혼(동거 포함)	0.0	0.0	33.3	30.6	22.2	11.1	2.8
	이혼	0.0	0.0	40.0	40.0	0.0	0.0	20.0
	무응답	0.0	0.0	0.0	5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이념갈등

문10)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1.1%(1)	0.0%(0)	34.5%(30)	32.2%(28)	6.9%(6)	16.1%(14)	9.2%(8)
성별	남자	0.0	0.0	39.5	15.8	10.5	23.7	10.5
	여자	2.0	0.0	30.6	44.9	4.1	10.2	8.2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25.0	25.0	0.0
	20대	3.0	0.0	30.3	39.4	9.1	9.1	9.1
	30대	0.0	0.0	52.4	14.3	9.5	23.8	0.0
	40대	0.0	0.0	20.0	40.0	0.0	10.0	30.0
	50대	0.0	0.0	31.6	36.8	0.0	21.1	10.5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40.0	0.0	60.0	0.0
	전문학교	8.3	0.0	25.0	16.7	0.0	25.0	25.0
	고등중학교	0.0	0.0	42.2	32.8	7.8	12.5	4.7
	인민학교	0.0	0.0	0.0	50.0	16.7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8.3	33.3	8.3	33.3	1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39.2	31.1	6.8	13.5	8.1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9	0.0	39.6	32.1	7.5	11.3	7.5
	없다	0.0	0.0	26.5	32.4	5.9	23.5	11.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4	41.2	11.8	17.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	0.0	38.2	29.1	5.5	16.4	9.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6.7	33.3	6.7	13.3	2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3	0.0	38.6	36.4	6.8	11.4	4.5
	없다	0.0	0.0	30.2	27.9	7.0	20.9	14.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2.3	0.0	31.8	29.5	9.1	20.5	6.8
	결혼(동거 포함)	0.0	0.0	33.3	38.9	5.6	13.9	8.3
	이혼	0.0	0.0	60.0	20.0	0.0	0.0	20.0
	무응답	0.0	0.0	50.0	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문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0.0%(0)	58.6%(51)	18.4%(16)	14.9%(13)	8.0%(7)
성별	남자	0.0	0.0	55.3	21.1	13.2	10.5
	여자	0.0	0.0	61.2	16.3	16.3	6.1
연령대	10대	0.0	0.0	25.0	0.0	75.0	0.0
	20대	0.0	0.0	60.6	21.2	9.1	9.1
	30대	0.0	0.0	61.9	23.8	9.5	4.8
	40대	0.0	0.0	40.0	30.0	20.0	10.0
	50대	0.0	0.0	68.4	5.3	15.8	10.5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60.0	20.0	0.0
	전문학교	0.0	0.0	75.0	8.3	8.3	8.3
	고등중학교	0.0	0.0	57.8	17.2	15.6	9.4
	인민학교	0.0	0.0	66.7	16.7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41.7	25.0	25.0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60.8	17.6	13.5	8.1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60.4	11.3	17.0	11.3
	없다	0.0	0.0	55.9	29.4	11.8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2.9	11.8	29.4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65.5	12.7	14.5	7.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40.0	46.7	0.0	1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59.1	18.2	11.4	11.4
	없다	0.0	0.0	58.1	18.6	18.6	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52.3	22.7	18.2	6.8
	결혼(동거 포함)	0.0	0.0	66.7	13.9	8.3	11.1
	이혼	0.0	0.0	60.0	0.0	40.0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사회문화교류

문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0.0%(0)	33.3%(29)	44.8%(39)	18.4%(16)	3.4%(3)
성별	남자	0.0	0.0	34.2	47.4	15.8	2.6
	여자	0.0	0.0	32.7	42.9	20.4	4.1
연령대	10대	0.0	0.0	0.0	0.0	75.0	25.0
	20대	0.0	0.0	36.4	51.5	9.1	3.0
	30대	0.0	0.0	33.3	33.3	28.6	4.8
	40대	0.0	0.0	20.0	80.0	0.0	0.0
	50대	0.0	0.0	42.1	36.8	21.1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40.0	20.0	20.0
	전문학교	0.0	0.0	16.7	83.3	0.0	0.0
	고등중학교	0.0	0.0	37.5	37.5	23.4	1.6
	인민학교	0.0	0.0	33.3	50.0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5.0	58.3	16.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35.1	41.9	18.9	4.1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30.2	45.3	20.8	3.8
	없다	0.0	0.0	38.2	44.1	14.7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7.6	41.2	35.3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36.4	41.8	18.2	3.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40.0	6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25.0	50.0	25.0	0.0
	없다	0.0	0.0	41.9	39.5	11.6	7.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36.4	40.9	15.9	6.8
	결혼(동거 포함)	0.0	0.0	22.2	52.8	25.0	0.0
	이혼	0.0	0.0	60.0	4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경제협력

문1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0.0%(0)	48.3%(42)	33.3%(29)	14.9%(13)	3.4%(3)
성별	남자	0.0	0.0	42.1	36.8	18.4	2.6
	여자	0.0	0.0	53.1	30.6	12.2	4.1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20대	0.0	0.0	51.5	36.4	9.1	3.0
	30대	0.0	0.0	57.1	28.6	9.5	4.8
	40대	0.0	0.0	50.0	40.0	10.0	0.0
	50대	0.0	0.0	42.1	36.8	15.8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20.0	40.0	20.0
	전문학교	0.0	0.0	75.0	16.7	0.0	8.3
	고등중학교	0.0	0.0	43.8	39.1	15.6	1.6
	인민학교	0.0	0.0	66.7	16.7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5.0	50.0	16.7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1.4	31.1	14.9	2.7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47.2	34.0	13.2	5.7
	없다	0.0	0.0	50.0	32.4	17.6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35.3	35.3	29.4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7.3	34.5	12.7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26.7	6.7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34.1	43.2	15.9	6.8
	없다	0.0	0.0	62.8	23.3	14.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47.7	29.5	20.5	2.3
	결혼(동거 포함)	0.0	0.0	44.4	41.7	8.3	5.6
	이혼	0.0	0.0	60.0	20.0	2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북회담

문1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0.0%(0)	49.4%(43)	37.9%(33)	6.9%(6)	5.7%(5)
성별	남자	0.0	0.0	47.4	42.1	5.3	5.3
	여자	0.0	0.0	51.0	34.7	8.2	6.1
연령대	10대	0.0	0.0	0.0	75.0	0.0	25.0
	20대	0.0	0.0	51.5	30.3	12.1	6.1
	30대	0.0	0.0	57.1	28.6	4.8	9.5
	40대	0.0	0.0	30.0	70.0	0.0	0.0
	50대	0.0	0.0	57.9	36.8	5.3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40.0	20.0	20.0
	전문학교	0.0	0.0	50.0	41.7	0.0	8.3
	고등중학교	0.0	0.0	48.4	40.6	7.8	3.1
	인민학교	0.0	0.0	83.3	0.0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41.7	58.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0.0	35.1	8.1	6.8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45.3	37.7	9.4	7.5
	없다	0.0	0.0	55.9	38.2	2.9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4	47.1	17.6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2.7	38.2	3.6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0.0	26.7	6.7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43.2	45.5	6.8	4.5
	없다	0.0	0.0	55.8	30.2	7.0	7.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40.9	38.6	11.4	9.1
	결혼(동거 포함)	0.0	0.0	52.8	41.7	2.8	2.8
	이혼	0.0	0.0	80.0	2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통일방식

문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0.0%(0)	0.0%(0)	8.0%(7)	29.9%(26)	5.7%(5)	32.2%(28)	24.1%(21)
성별	남자	0.0	0.0	10.5	34.2	5.3	36.8	13.2
	여자	0.0	0.0	6.1	26.5	6.1	28.6	32.7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0.0	75.0	0.0
	20대	0.0	0.0	12.1	33.3	3.0	21.2	30.3
	30대	0.0	0.0	9.5	33.3	9.5	23.8	23.8
	40대	0.0	0.0	10.0	40.0	0.0	30.0	20.0
	50대	0.0	0.0	0.0	15.8	10.5	52.6	21.1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20.0	20.0	60.0	0.0
	전문학교	0.0	0.0	16.7	33.3	0.0	25.0	25.0
	고등중학교	0.0	0.0	7.8	28.1	4.7	31.3	28.1
	인민학교	0.0	0.0	0.0	50.0	16.7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8.3	41.7	8.3	41.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8.1	27.0	5.4	31.1	28.4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7	26.4	5.7	35.8	26.4
	없다	0.0	0.0	11.8	35.3	5.9	26.5	20.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17.6	11.8	41.2	29.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0.9	36.4	3.6	27.3	2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7	20.0	6.7	40.0	2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2.3	18.2	4.5	45.5	29.5
	없다	0.0	0.0	14.0	41.9	7.0	18.6	18.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11.4	34.1	4.5	29.5	20.5
	결혼(동거 포함)	0.0	0.0	5.6	19.4	8.3	38.9	27.8
	이혼	0.0	0.0	0.0	60.0	0.0	20.0	20.0
	무응답	0.0	0.0	0.0	5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통일 후 거주

문16)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북한에서 살 것이다	남한에서 살 것이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0.0%(0)	0.0%(0)	19.5%(17)	49.4%(43)	29.9%(26)	1.1%(1)
성별	남자	0.0	0.0	23.7	44.7	31.6	0.0
	여자	0.0	0.0	16.3	53.1	28.6	2.0
연령대	10대	0.0	0.0	50.0	0.0	50.0	0.0
	20대	0.0	0.0	9.1	51.5	39.4	0.0
	30대	0.0	0.0	47.6	33.3	14.3	4.8
	40대	0.0	0.0	20.0	60.0	20.0	0.0
	50대	0.0	0.0	0.0	68.4	31.6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60.0	20.0	0.0
	전문학교	0.0	0.0	8.3	66.7	25.0	0.0
	고등중학교	0.0	0.0	20.3	45.3	32.8	1.6
	인민학교	0.0	0.0	33.3	50.0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8.3	75.0	16.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20.3	45.9	32.4	1.4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22.6	47.2	28.3	1.9
	없다	0.0	0.0	14.7	52.9	3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4	47.1	23.5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21.8	41.8	34.5	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80.0	2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11.4	59.1	27.3	2.3
	없다	0.0	0.0	27.9	39.5	32.6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15.9	40.9	40.9	2.3
	결혼(동거 포함)	0.0	0.0	22.2	63.9	13.9	0.0
	이혼	0.0	0.0	40.0	20.0	40.0	0.0
	무응답	0.0	0.0	0.0	5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對 남한 인식

문1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0.0%(0)	0.0%(0)	6.9%(6)	58.6%(51)	1.1%(1)	4.6%(4)	28.7%(25)
성별	남자	0.0	0.0	2.6	57.9	0.0	2.6	36.8
	여자	0.0	0.0	10.2	59.2	2.0	6.1	22.4
연령대	10대	0.0	0.0	0.0	50.0	0.0	0.0	50.0
	20대	0.0	0.0	6.1	63.6	3.0	6.1	21.2
	30대	0.0	0.0	4.8	52.4	0.0	9.5	33.3
	40대	0.0	0.0	0.0	80.0	0.0	0.0	20.0
	50대	0.0	0.0	15.8	47.4	0.0	0.0	36.8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80.0	0.0	0.0	20.0
	전문학교	0.0	0.0	8.3	83.3	0.0	0.0	8.3
	고등중학교	0.0	0.0	7.8	50.0	1.6	6.3	34.4
	인민학교	0.0	0.0	0.0	83.3	0.0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0.0	75.0	0.0	0.0	2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8.1	55.4	1.4	5.4	29.7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7.5	47.2	0.0	5.7	39.6
	없다	0.0	0.0	5.9	76.5	2.9	2.9	11.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9	64.7	0.0	0.0	29.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7.3	52.7	0.0	7.3	3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7	73.3	6.7	0.0	1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6.8	59.1	0.0	0.0	34.1
	없다	0.0	0.0	7.0	58.1	2.3	9.3	2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6.8	63.6	2.3	4.5	22.7
	결혼(동거 포함)	0.0	0.0	8.3	52.8	0.0	5.6	33.3
	이혼	0.0	0.0	0.0	40.0	0.0	0.0	6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4.19 혁명

문1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1.1%(1)	0.0%(0)	25.3%(22)	33.3%(29)	25.3%(22)	14.9%(13)
성별	남자	0.0	0.0	13.2	36.8	13.2	36.8
	여자	2.0	0.0	6.1	34.7	16.3	40.8
연령대	10대	0.0	0.0	0.0	50.0	25.0	25.0
	20대	0.0	0.0	3.0	39.4	15.2	42.4
	30대	0.0	0.0	14.3	9.5	19.0	57.1
	40대	0.0	0.0	10.0	60.0	20.0	10.0
	50대	5.3	0.0	15.8	42.1	5.3	31.6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60.0	20.0	20.0	0.0
	전문학교	0.0	0.0	16.7	58.3	8.3	16.7
	고등중학교	1.6	0.0	3.1	35.9	14.1	45.3
	인민학교	0.0	0.0	16.7	0.0	33.3	5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6.7	58.3	16.7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8.1	32.4	14.9	43.2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9	0.0	13.2	35.8	13.2	35.8
	없다	0.0	0.0	2.9	35.3	17.6	44.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35.3	29.4	35.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	0.0	10.9	38.2	10.9	38.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3.3	26.7	13.3	4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11.4	43.2	13.6	31.8
	없다	2.3	0.0	7.0	27.9	16.3	46.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11.4	38.6	18.2	31.8
	결혼(동거 포함)	0.0	0.0	5.6	36.1	8.3	50.0
	이혼	20.0	0.0	20.0	20.0	20.0	20.0
	무응답	0.0	0.0	0.0	0.0	5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5.18 항쟁

문1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1.1%(1)	0.0%(0)	25.3%(22)	33.3%(29)	25.3%(22)	14.9%(13)
성별	남자	0.0	0.0	34.2	34.2	15.8	15.8
	여자	2.0	0.0	18.4	32.7	32.7	14.3
연령대	10대	0.0	0.0	0.0	50.0	50.0	0.0
	20대	0.0	0.0	24.2	33.3	18.2	24.2
	30대	0.0	0.0	19.0	23.8	38.1	19.0
	40대	0.0	0.0	50.0	30.0	20.0	0.0
	50대	5.3	0.0	26.3	42.1	21.1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60.0	40.0	0.0	0.0
	전문학교	0.0	0.0	25.0	58.3	8.3	8.3
	고등중학교	1.6	0.0	25.0	29.7	28.1	15.6
	인민학교	0.0	0.0	0.0	16.7	50.0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3.3	58.3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24.3	29.7	28.4	16.2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9	0.0	35.8	28.3	24.5	9.4
	없다	0.0	0.0	8.8	41.2	26.5	23.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4	23.5	41.2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	0.0	23.6	36.4	23.6	14.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6.7	33.3	13.3	2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31.8	40.9	15.9	11.4
	없다	2.3	0.0	18.6	25.6	34.9	18.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29.5	34.1	22.7	13.6
	결혼(동거 포함)	0.0	0.0	19.4	38.9	22.2	19.4
	이혼	20.0	0.0	40.0	0.0	40.0	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88 서울 올림픽

문2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3.4%(3)	0.0%(0)	4.6%(4)	21.8%(19)	24.1%(21)	46.0%(40)
성별	남자	0.0	0.0	7.9	28.9	21.1	42.1
	여자	6.1	0.0	2.0	16.3	26.5	49.0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25.0	50.0
	20대	3.0	0.0	0.0	15.2	27.3	54.5
	30대	0.0	0.0	4.8	9.5	28.6	57.1
	40대	0.0	0.0	10.0	40.0	10.0	40.0
	50대	10.5	0.0	10.5	36.8	21.1	21.1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40.0	20.0	0.0
	전문학교	8.3	0.0	16.7	16.7	16.7	41.7
	고등중학교	3.1	0.0	0.0	23.4	23.4	50.0
	인민학교	0.0	0.0	0.0	0.0	50.0	5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6.7	41.7	25.0	1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4.1	0.0	2.7	18.9	24.3	50.0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7	0.0	3.8	22.6	22.6	45.3
	없다	0.0	0.0	5.9	20.6	26.5	47.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17.6	23.5	58.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5	0.0	5.5	20.0	25.5	43.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7	33.3	20.0	4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3	0.0	4.5	27.3	22.7	43.2
	없다	4.7	0.0	4.7	16.3	25.6	48.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2.3	0.0	4.5	20.5	27.3	45.5
	결혼(동거 포함)	2.8	0.0	5.6	22.2	25.0	44.4
	이혼	20.0	0.0	0.0	40.0	0.0	40.0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2002 월드컵

문2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2002 월드컵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1.1%(1)	0.0%(0)	2.3%(2)	18.4%(16)	31.0%(27)	47.1%(41)
성별	남자	0.0	0.0	2.6	23.7	31.6	42.1
	여자	2.0	0.0	2.0	14.3	30.6	51.0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25.0	50.0
	20대	0.0	0.0	3.0	21.2	24.2	51.5
	30대	0.0	0.0	4.8	14.3	28.6	52.4
	40대	0.0	0.0	0.0	0.0	60.0	40.0
	50대	5.3	0.0	0.0	26.3	31.6	36.8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40.0	40.0	0.0
	전문학교	0.0	0.0	8.3	8.3	33.3	50.0
	고등중학교	1.6	0.0	0.0	20.3	31.3	46.9
	인민학교	0.0	0.0	0.0	0.0	16.7	83.3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0.0	25.0	58.3	1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2.7	17.6	27.0	51.4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9	0.0	1.9	20.8	26.4	49.1
	없다	0.0	0.0	2.9	14.7	38.2	44.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17.6	35.3	47.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	0.0	3.6	20.0	32.7	4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13.3	20.0	6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0.0	22.7	29.5	47.7
	없다	2.3	0.0	4.7	14.0	32.6	46.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4.5	15.9	34.1	45.5
	결혼(동거 포함)	0.0	0.0	0.0	19.4	30.6	50.0
	이혼	20.0	0.0	0.0	20.0	20.0	40.0
	무응답	0.0	0.0	0.0	5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세월호 사건

문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세월호 사건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3.4%(3)	0.0%(0)	20.7%(18)	26.4%(23)	20.7%(18)	28.7%(25)
성별	남자	5.3	0.0	21.1	31.6	18.4	23.7
	여자	2.0	0.0	20.4	22.4	22.4	32.7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50.0	0.0
	20대	0.0	0.0	24.2	33.3	18.2	24.2
	30대	4.8	0.0	14.3	19.0	23.8	38.1
	40대	10.0	0.0	10.0	20.0	20.0	40.0
	50대	5.3	0.0	26.3	26.3	15.8	26.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60.0	0.0	0.0
	전문학교	0.0	0.0	33.3	25.0	8.3	33.3
	고등중학교	4.7	0.0	15.6	25.0	23.4	31.3
	인민학교	0.0	0.0	33.3	16.7	33.3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8.3	0.0	16.7	41.7	8.3	2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2.7	0.0	21.6	23.0	23.0	29.7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9	0.0	28.3	24.5	20.8	24.5
	없다	5.9	0.0	8.8	29.4	20.6	35.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4	17.6	41.2	11.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6	0.0	16.4	30.9	14.5	34.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7	0.0	26.7	20.0	20.0	2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3	0.0	20.5	27.3	25.0	25.0
	없다	4.7	0.0	20.9	25.6	16.3	32.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2.3	0.0	27.3	29.5	15.9	25.0
	결혼(동거 포함)	2.8	0.0	13.9	27.8	27.8	27.8
	이혼	20.0	0.0	20.0	0.0	0.0	60.0
	무응답	0.0	0.0	0.0	0.0	5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운영

문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0%(0)	0.0%(0)	23.0%(20)	40.2%(35)	23.0%(20)	13.8%(12)
성별	남자	0.0	0.0	21.1	50.0	10.5	18.4
	여자	0.0	0.0	24.5	32.7	32.7	10.2
연령대	10대	0.0	0.0	0.0	75.0	0.0	25.0
	20대	0.0	0.0	27.3	39.4	21.2	12.1
	30대	0.0	0.0	19.0	28.6	28.6	23.8
	40대	0.0	0.0	30.0	20.0	30.0	20.0
	50대	0.0	0.0	21.1	57.9	21.1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60.0	40.0	0.0	0.0
	전문학교	0.0	0.0	58.3	16.7	8.3	16.7
	고등중학교	0.0	0.0	15.6	42.2	26.6	15.6
	인민학교	0.0	0.0	0.0	66.7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3.3	41.7	16.7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21.6	39.2	24.3	14.9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30.2	39.6	18.9	11.3
	없다	0.0	0.0	11.8	41.2	29.4	17.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4	35.3	11.8	23.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21.8	45.5	20.0	1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0.0	26.7	46.7	6.7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20.5	40.9	20.5	18.2
	없다	0.0	0.0	25.6	39.5	25.6	9.3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22.7	38.6	22.7	15.9
	결혼(동거 포함)	0.0	0.0	19.4	47.2	22.2	11.1
결혼상태	이혼	0.0	0.0	40.0	20.0	20.0	20.0
	무응답	0.0	0.0	50.0	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문화 경험

문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자주 접해 봤다	한두번 접해봤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0.0%(0)	0.0%(0)	40.2%(35)	41.4%(36)	18.4%(16)
성별	남자	0.0	0.0	52.6	31.6	15.8
	여자	0.0	0.0	30.6	49.0	20.4
연령대	10대	0.0	0.0	50.0	25.0	25.0
	20대	0.0	0.0	48.5	39.4	12.1
	30대	0.0	0.0	47.6	38.1	14.3
	40대	0.0	0.0	30.0	60.0	10.0
	50대	0.0	0.0	21.1	42.1	36.8
	60대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60.0	40.0	0.0
	전문학교	0.0	0.0	33.3	41.7	25.0
	고등중학교	0.0	0.0	40.6	42.2	17.2
	인민학교	0.0	0.0	33.3	33.3	33.3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5.0	50.0	2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41.9	40.5	17.6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37.7	49.1	13.2
	없다	0.0	0.0	44.1	29.4	26.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70.6	29.4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38.2	40.0	2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3.3	60.0	26.7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0.0	31.8	50.0	18.2
	없다	0.0	0.0	48.8	32.6	18.6
	무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미혼	0.0	0.0	43.2	43.2	13.6
	결혼(동거 포함)	0.0	0.0	36.1	38.9	25.0
	이혼	0.0	0.0	40.0	40.0	2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5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문화 친숙도

문25) (1과 2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다가?

		남한문화 친숙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친숙했다	약간 친숙했다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0.0%(0)	0.0%(0)	46.0%(40)	34.5%(30)	2.3%(2)	1.1%(1)
성별	남자	0.0	0.0	60.6	39.4	0.0	0.0
	여자	0.0	0.0	50.0	42.5	5.0	2.5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0.0	55.2	41.4	3.4	0.0
	30대	0.0	0.0	61.1	33.3	5.6	0.0
	40대	0.0	0.0	20.0	80.0	0.0	0.0
	50대	0.0	0.0	61.5	30.8	0.0	7.7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60.0	40.0	0.0	0.0
	전문학교	0.0	0.0	55.6	44.4	0.0	0.0
	고등중학교	0.0	0.0	54.5	40.0	3.6	1.8
	인민학교	0.0	0.0	50.0	5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40.0	60.0	0.0	0.0
장사경험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8.1	37.1	3.2	1.6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7.4	36.2	4.3	2.1
	없다	0.0	0.0	50.0	50.0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7.4	36.2	4.3	2.1
결혼상태	없다	0.0	0.0	50.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70.6	29.4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0.0	56.8	36.4	4.5	2.3
	이혼	0.0	0.0	25.0	75.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5.3	39.5	2.6	2.6
결혼상태	없다	0.0	0.0	54.3	42.9	2.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65.8	31.6	2.6	0.0
	결혼(동거 포함)	0.0	0.0	41.4	51.7	3.4	3.4
	이혼	0.0	0.0	50.0	5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5.3	39.5	2.6	2.6

남한문화 유통경로

문26)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셨습니다가?

		남한문화 유통경로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 (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 (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0.0%(0)	3.4%(3)	0.0%(0)	51.7%(45)	16.1%(14)	11.5%(10)
성별	남자	0.0	0.0	0.0	0.4	0.0	0.0
	여자	0.0	0.0	0.0	0.4	0.1	0.0
	10대	0.0	0.0	0.0	0.4	0.0	0.1
	20대	0.0	0.0	0.0	0.4	0.0	0.0
	30대	0.0	0.0	0.0	0.4	0.0	0.0
	40대	0.0	0.0	0.0	0.3	0.1	0.0
	50대	0.0	0.0	0.0	0.3	0.1	0.0
연령대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대학교	0.0	0.0	0.0	0.6	0.0	0.0
	전문학교	0.0	0.0	0.0	0.1	0.1	0.0
	고등중학교	0.0	0.0	0.0	0.4	0.0	0.0
	인민학교	0.0	0.0	0.0	0.3	0.1	0.1
	무학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0.0	0.4	0.0	0.0
당원여부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0.0	0.4	0.0	0.0
	무응답	0.0	0.0	0.0	0.0	1.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0.0	0.3	0.0	0.0
	없다	0.0	0.0	0.0	0.5	0.0	0.0
북한소식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0.6	0.0	0.0
남한친척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0.3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0.3	0.1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0.0	0.5	0.0	0.0
	없다	0.0	0.0	0.0	0.3	0.0	0.1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0.0	0.4	0.0	0.0
결혼상태	결혼(동거 포함)	0.0	0.0	0.0	0.4	0.0	0.0
	이혼	0.0	0.1	0.0	0.6	0.0	0.0
	무응답	0.0	0.0	0.0	0.3	0.3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0.0	0.5	0.0	0.0
	없다	0.0	0.0	0.0	0.3	0.0	0.1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0.0	0.4	0.0	0.0
결혼상태	결혼(동거 포함)	0.0	0.0	0.0	0.4	0.0	0.0
	이혼	0.0	0.1	0.0	0.6	0.0	0.0
	무응답	0.0	0.0	0.0	0.3	0.3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0.0	0.5	0.0	0.0
	없다	0.0	0.0	0.0	0.3	0.0	0.1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문27) 귀하는 남한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호감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호감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호감도에 변화가 없었다	호감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호감도가 매우 감소하였다
				1.1%(1)	0.0%(0)	49.4%(43)	28.7%(25)	3.4%(3)
성별	남자	0.0	0.0	66.7	33.3	0.0	0.0	0.0
	여자	2.5	0.0	52.5	35.0	7.5	2.5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0.0	0.0
	20대	3.4	0.0	55.2	37.9	3.4	0.0	0.0
	30대	0.0	0.0	55.6	38.9	0.0	5.6	0.0
	40대	0.0	0.0	60.0	30.0	10.0	0.0	0.0
	50대	0.0	0.0	69.2	23.1	7.7	0.0	0.0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60.0	0.0	0.0	0.0
	전문학교	0.0	0.0	77.8	11.1	11.1	0.0	0.0
	고등중학교	1.8	0.0	56.4	36.4	3.6	1.8	0.0
	인민학교	0.0	0.0	75.0	25.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50.0	50.0	0.0	0.0	0.0
당원여부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6	0.0	59.7	32.3	4.8	1.6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장시경험	있다	2.1	0.0	59.6	29.8	6.4	2.1	0.0
	없다	0.0	0.0	57.7	42.3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9	0.0	58.8	35.3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6.8	34.1	6.8	2.3	0.0
북한소식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33.3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6	0.0	68.4	23.7	2.6	2.6	0.0
	없다	0.0	0.0	48.6	45.7	5.7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63.2	34.2	2.6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0.0	58.6	31.0	6.9	3.4	0.0
	이혼	0.0	0.0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50.0	0.0	0.0	5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선거방식

문28)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0.0%(0)	86.2%(75)	10.3%(9)	1.1%(1)	2.3%(2)
성별	남자	0.0	0.0	86.8	7.9	0.0	5.3
	여자	0.0	0.0	85.7	12.2	2.0	0.0
연령대	10대	0.0	0.0	75.0	25.0	0.0	0.0
	20대	0.0	0.0	69.7	24.2	3.0	3.0
	30대	0.0	0.0	95.2	0.0	0.0	4.8
	40대	0.0	0.0	100.0	0.0	0.0	0.0
	50대	0.0	0.0	100.0	0.0	0.0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0.0	0.0	0.0
	전문학교	0.0	0.0	0.0	0.0	0.0	0.0
	고등중학교	0.0	0.0	80.0	0.0	0.0	20.0
	인민학교	0.0	0.0	91.7	0.0	8.3	0.0
	무학	0.0	0.0	84.4	14.1	0.0	1.6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100.0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장시경험	비당원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83.8	12.2	1.4	2.7
	있다	0.0	0.0	0.0	0.0	0.0	0.0
	없다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무응답	0.0	0.0	90.6	5.7	1.9	1.9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79.4	17.6	0.0	2.9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82.4	17.6	0.0	0.0
	무응답	0.0	0.0	87.3	7.3	1.8	3.6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86.7	13.3	0.0	0.0
	있다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없다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90.9	6.8	2.3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81.4	14.0	0.0	4.7
	미혼	0.0	0.0	100.0	0.0	0.0	0.0
결혼상태	결혼(동거 포함)	0.0	0.0	0.0	0.0	0.0	0.0
	이혼	0.0	0.0	75.0	18.2	2.3	4.5
	무응답	0.0	0.0	97.2	2.8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100.0	0.0	0.0	0.0

언어사용

문29)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0.0%(0)	59.8%(52)	26.4%(23)	9.2%(8)	4.6%(4)
성별	남자	0.0	0.0	50.0	34.2	7.9	7.9
	여자	0.0	0.0	67.3	20.4	10.2	2.0
연령대	10대	0.0	0.0	50.0	0.0	25.0	25.0
	20대	0.0	0.0	63.6	21.2	12.1	3.0
	30대	0.0	0.0	66.7	28.6	0.0	4.8
	40대	0.0	0.0	50.0	40.0	10.0	0.0
	50대	0.0	0.0	52.6	31.6	10.5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40.0	0.0	20.0
	전문학교	0.0	0.0	66.7	33.3	0.0	0.0
	고등중학교	0.0	0.0	59.4	25.0	12.5	3.1
	인민학교	0.0	0.0	66.7	16.7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5.0	66.7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64.9	20.3	9.5	5.4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67.9	20.8	7.5	3.8
	없다	0.0	0.0	47.1	35.3	11.8	5.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70.6	11.8	17.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61.8	27.3	5.5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40.0	40.0	13.3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63.6	18.2	13.6	4.5
	없다	0.0	0.0	55.8	34.9	4.7	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59.1	22.7	11.4	6.8
	결혼(동거 포함)	0.0	0.0	58.3	33.3	5.6	2.8
	이혼	0.0	0.0	60.0	20.0	2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생활풍습

문30)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0.0%(0)	55.2%(48)	31.0%(27)	8.0%(7)	5.7%(5)
성별	남자	0.0	0.0	60.5	26.3	5.3	7.9
	여자	0.0	0.0	51.0	34.7	10.2	4.1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25.0	25.0
	20대	0.0	0.0	60.6	24.2	9.1	6.1
	30대	0.0	0.0	66.7	23.8	4.8	4.8
	40대	0.0	0.0	40.0	50.0	10.0	0.0
	50대	0.0	0.0	47.4	42.1	5.3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40.0	0.0	40.0
	전문학교	0.0	0.0	58.3	41.7	0.0	0.0
	고등중학교	0.0	0.0	56.3	29.7	10.9	3.1
	인민학교	0.0	0.0	66.7	16.7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3.3	58.3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8.1	27.0	8.1	6.8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60.4	26.4	7.5	5.7
	없다	0.0	0.0	47.1	38.2	8.8	5.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2.9	23.5	17.6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60.0	29.1	5.5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40.0	46.7	6.7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56.8	34.1	4.5	4.5
	없다	0.0	0.0	53.5	27.9	11.6	7.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54.5	29.5	6.8	9.1
	결혼(동거 포함)	0.0	0.0	58.3	30.6	8.3	2.8
	이혼	0.0	0.0	60.0	20.0	2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가족중시

문31)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0.0%(0)	34.5%(30)	31.0%(27)	26.4%(23)	8.0%(7)
성별	남자	0.0	0.0	42.1	28.9	21.1	7.9
	여자	0.0	0.0	28.6	32.7	30.6	8.2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75.0	0.0
	20대	0.0	0.0	33.3	30.3	27.3	9.1
	30대	0.0	0.0	38.1	38.1	9.5	14.3
	40대	0.0	0.0	40.0	20.0	30.0	10.0
	50대	0.0	0.0	36.8	31.6	31.6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20.0	0.0	40.0
	전문학교	0.0	0.0	25.0	41.7	33.3	0.0
	고등중학교	0.0	0.0	35.9	29.7	26.6	7.8
	인민학교	0.0	0.0	33.3	33.3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3.3	33.3	33.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33.8	31.1	25.7	9.5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35.8	34.0	18.9	11.3
	없다	0.0	0.0	32.4	26.5	38.2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2.9	23.5	5.9	17.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27.3	36.4	30.9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40.0	20.0	33.3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36.4	29.5	27.3	6.8
	없다	0.0	0.0	32.6	32.6	25.6	9.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29.5	27.3	31.8	11.4
	결혼(동거 포함)	0.0	0.0	33.3	38.9	22.2	5.6
	이혼	0.0	0.0	60.0	20.0	2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사회복지

문32)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0.0%(0)	86.2%(75)	5.7%(5)	4.6%(4)	3.4%(3)
성별	남자	0.0	0.0	89.5	2.6	2.6	5.3
	여자	0.0	0.0	83.7	8.2	6.1	2.0
연령대	10대	0.0	0.0	75.0	0.0	0.0	25.0
	20대	0.0	0.0	75.8	9.1	12.1	3.0
	30대	0.0	0.0	90.5	9.5	0.0	0.0
	40대	0.0	0.0	100.0	0.0	0.0	0.0
	50대	0.0	0.0	94.7	0.0	0.0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100.0	0.0	0.0	0.0
	전문학교	0.0	0.0	91.7	0.0	8.3	0.0
	고등중학교	0.0	0.0	84.4	7.8	4.7	3.1
	인민학교	0.0	0.0	83.3	0.0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00.0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83.8	6.8	5.4	4.1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83.0	7.5	5.7	3.8
	없다	0.0	0.0	91.2	2.9	2.9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82.4	5.9	11.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87.3	5.5	3.6	3.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86.7	6.7	0.0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86.4	4.5	4.5	4.5
	없다	0.0	0.0	86.0	7.0	4.7	2.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79.5	6.8	9.1	4.5
	결혼(동거 포함)	0.0	0.0	91.7	5.6	0.0	2.8
	이혼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돈에 대한 중시

문33)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0.0%(0)	62.1%(54)	12.6%(11)	18.4%(16)	6.9%(6)
성별	남자	0.0	0.0	57.9	10.5	21.1	10.5
	여자	0.0	0.0	65.3	14.3	16.3	4.1
연령대	10대	0.0	0.0	25.0	0.0	75.0	0.0
	20대	0.0	0.0	57.6	6.1	24.2	12.1
	30대	0.0	0.0	52.4	33.3	9.5	4.8
	40대	0.0	0.0	90.0	0.0	0.0	10.0
	50대	0.0	0.0	73.7	10.5	15.8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20.0	0.0	40.0
	전문학교	0.0	0.0	66.7	0.0	33.3	0.0
	고등중학교	0.0	0.0	59.4	15.6	18.8	6.3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58.3	8.3	33.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62.2	13.5	16.2	8.1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67.9	11.3	11.3	9.4
	없다	0.0	0.0	52.9	14.7	29.4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76.5	0.0	17.6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6.4	16.4	21.8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13.3	6.7	1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63.6	15.9	15.9	4.5
	없다	0.0	0.0	60.5	9.3	20.9	9.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52.3	11.4	25.0	11.4
	결혼(동거 포함)	0.0	0.0	69.4	16.7	11.1	2.8
	이혼	0.0	0.0	80.0	0.0	2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무력도발

문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0.0%(0)	20.7%(18)	35.6%(31)	31.0%(27)	12.6%(11)
성별	남자	0.0	0.0	28.9	21.1	28.9	21.1
	여자	0.0	0.0	14.3	46.9	32.7	6.1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25.0	25.0
	20대	0.0	0.0	18.2	36.4	36.4	9.1
	30대	0.0	0.0	9.5	38.1	38.1	14.3
	40대	0.0	0.0	20.0	50.0	20.0	10.0
	50대	0.0	0.0	36.8	26.3	21.1	15.8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0.0	20.0	60.0
	전문학교	0.0	0.0	25.0	33.3	25.0	16.7
	고등중학교	0.0	0.0	20.3	39.1	32.8	7.8
	인민학교	0.0	0.0	16.7	33.3	33.3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3.3	16.7	33.3	1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17.6	39.2	31.1	12.2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24.5	37.7	22.6	15.1
	없다	0.0	0.0	14.7	32.4	44.1	8.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7.6	29.4	47.1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25.5	36.4	29.1	9.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7	40.0	20.0	3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22.7	31.8	27.3	18.2
	없다	0.0	0.0	18.6	39.5	34.9	7.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15.9	40.9	27.3	15.9
	결혼(동거 포함)	0.0	0.0	22.2	27.8	38.9	11.1
	이혼	0.0	0.0	60.0	40.0	0.0	0.0
	무응답	0.0	0.0	0.0	5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핵무기 위협

문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위험적이다	다소 위험적이다	별로 위험적이지 않다	전혀 위험적이지 않다
		0.0%(0)	0.0%(0)	57.5%(50)	31.0%(27)	11.5%(10)	0.0%(0)
성별	남자	0.0	0.0	65.8	18.4	15.8	0.0
	여자	0.0	0.0	51.0	40.8	8.2	0.0
연령대	10대	0.0	0.0	75.0	25.0	0.0	0.0
	20대	0.0	0.0	48.5	36.4	15.2	0.0
	30대	0.0	0.0	61.9	23.8	14.3	0.0
	40대	0.0	0.0	40.0	60.0	0.0	0.0
	50대	0.0	0.0	73.7	15.8	10.5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0.0	60.0	0.0
	전문학교	0.0	0.0	58.3	41.7	0.0	0.0
	고등중학교	0.0	0.0	57.8	32.8	9.4	0.0
	인민학교	0.0	0.0	66.7	16.7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58.3	25.0	16.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6.8	32.4	10.8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60.4	30.2	9.4	0.0
	없다	0.0	0.0	52.9	32.4	14.7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70.6	17.6	11.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0.9	38.2	10.9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20.0	13.3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52.3	36.4	11.4	0.0
	없다	0.0	0.0	62.8	25.6	11.6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56.8	29.5	13.6	0.0
	결혼(동거 포함)	0.0	0.0	55.6	33.3	11.1	0.0
	이혼	0.0	0.0	80.0	20.0	0.0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인식

문36)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잘 알고 있다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0.0%(0)	0.0%(0)	16.1%(14)	40.2%(35)	27.6%(24)	16.1%(14)
성별	남자	0.0	0.0	18.4	36.8	28.9	15.8
	여자	0.0	0.0	14.3	42.9	26.5	16.3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25.0	50.0
	20대	0.0	0.0	15.2	24.2	39.4	21.2
	30대	0.0	0.0	14.3	57.1	14.3	14.3
	40대	0.0	0.0	20.0	70.0	0.0	10.0
	50대	0.0	0.0	21.1	36.8	36.8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20.0	60.0	0.0
	전문학교	0.0	0.0	16.7	25.0	33.3	25.0
	고등중학교	0.0	0.0	14.1	42.2	26.6	17.2
	인민학교	0.0	0.0	33.3	66.7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5.0	33.3	25.0	1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13.5	41.9	28.4	16.2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18.9	37.7	28.3	15.1
	없다	0.0	0.0	11.8	44.1	26.5	17.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7.6	29.4	35.3	17.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8.2	41.8	23.6	16.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7	46.7	33.3	1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13.6	29.5	38.6	18.2
	없다	0.0	0.0	18.6	51.2	16.3	14.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11.4	29.5	34.1	25.0
	결혼(동거 포함)	0.0	0.0	19.4	50.0	22.2	8.3
	이혼	0.0	0.0	40.0	60.0	0.0	0.0
	무응답	0.0	0.0	0.0	5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규모

문3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1%(1)	0.0%(0)	31.0%(27)	33.3%(29)	3.4%(3)	2.3%(2)	28.7%(25)
성별	남자	2.6	0.0	26.3	31.6	5.3	5.3	28.9
	여자	0.0	0.0	34.7	34.7	2.0	0.0	28.6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50.0	0.0	25.0
	20대	0.0	0.0	36.4	39.4	3.0	6.1	15.2
	30대	0.0	0.0	23.8	52.4	0.0	0.0	23.8
	40대	10.0	0.0	10.0	20.0	0.0	0.0	60.0
	50대	0.0	0.0	47.4	10.5	0.0	0.0	42.1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20.0	0.0	0.0	60.0
	전문학교	8.3	0.0	25.0	41.7	0.0	0.0	25.0
	고등중학교	0.0	0.0	31.3	32.8	3.1	3.1	29.7
	인민학교	0.0	0.0	50.0	33.3	16.7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8.3	0.0	16.7	25.0	0.0	0.0	5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32.4	35.1	4.1	2.7	25.7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9	0.0	30.2	28.3	1.9	3.8	34.0
	없다	0.0	0.0	32.4	41.2	5.9	0.0	20.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35.3	29.4	5.9	0.0	29.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	0.0	29.1	34.5	3.6	3.6	27.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33.3	33.3	0.0	0.0	3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3	0.0	27.3	31.8	2.3	0.0	36.4
	없다	0.0	0.0	34.9	34.9	4.7	4.7	20.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22.7	45.5	4.5	4.5	22.7
	결혼(동거 포함)	0.0	0.0	38.9	22.2	2.8	0.0	36.1
	이혼	20.0	0.0	40.0	0.0	0.0	0.0	4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대북지원

문38)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공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0.0%(0)	0.0%(0)	46.0%(40)	19.5%(17)	21.8%(19)	6.9%(6)	5.7%(5)
성별	남자	0.0	0.0	34.2	21.1	28.9	7.9	7.9
	여자	0.0	0.0	55.1	18.4	16.3	6.1	4.1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50.0	0.0	0.0
	20대	0.0	0.0	42.4	30.3	18.2	3.0	6.1
	30대	0.0	0.0	38.1	14.3	33.3	9.5	4.8
	40대	0.0	0.0	50.0	0.0	20.0	10.0	20.0
	50대	0.0	0.0	63.2	15.8	10.5	10.5	0.0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0.0	60.0	40.0	0.0
	전문학교	0.0	0.0	50.0	16.7	25.0	0.0	8.3
	고등중학교	0.0	0.0	50.0	17.2	20.3	6.3	6.3
	인민학교	0.0	0.0	33.3	66.7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41.7	16.7	33.3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47.3	18.9	20.3	6.8	6.8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52.8	9.4	18.9	11.3	7.5
	없다	0.0	0.0	35.3	35.3	26.5	0.0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8.8	17.6	11.8	5.9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0.0	20.0	25.5	9.1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53.3	20.0	20.0	0.0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54.5	9.1	15.9	11.4	9.1
	없다	0.0	0.0	37.2	30.2	27.9	2.3	2.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38.6	25.0	25.0	6.8	4.5
	결혼(동거 포함)	0.0	0.0	47.2	16.7	22.2	5.6	8.3
	이혼	0.0	0.0	80.0	0.0	0.0	2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대북경제투자

문39)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0.0%(0)	0.0%(0)	49.4%(43)	17.2%(15)	23.0%(20)	4.6%(4)	5.7%(5)
성별	남자	0.0	0.0	39.5	21.1	31.6	2.6	5.3
	여자	0.0	0.0	57.1	14.3	16.3	6.1	6.1
연령대	10대	0.0	0.0	25.0	75.0	0.0	0.0	0.0
	20대	0.0	0.0	57.6	15.2	21.2	3.0	3.0
	30대	0.0	0.0	42.9	9.5	38.1	4.8	4.8
	40대	0.0	0.0	50.0	0.0	20.0	10.0	20.0
	50대	0.0	0.0	47.4	26.3	15.8	5.3	5.3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40.0	60.0	0.0	0.0
	전문학교	0.0	0.0	58.3	8.3	25.0	0.0	8.3
	고등중학교	0.0	0.0	53.1	14.1	21.9	6.3	4.7
	인민학교	0.0	0.0	33.3	50.0	0.0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50.0	16.7	33.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48.6	17.6	21.6	5.4	6.8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45.3	18.9	20.8	5.7	9.4
	없다	0.0	0.0	55.9	14.7	26.5	2.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64.7	11.8	17.6	0.0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1.8	23.6	23.6	7.3	3.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0.0	0.0	26.7	0.0	1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50.0	15.9	15.9	9.1	9.1
	없다	0.0	0.0	48.8	18.6	30.2	0.0	2.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50.0	20.5	22.7	4.5	2.3
	결혼(동거 포함)	0.0	0.0	41.7	16.7	27.8	2.8	11.1
	이혼	0.0	0.0	80.0	0.0	0.0	2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문40)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0.0%(0)	0.0%(0)	55.2%(48)	26.4%(23)	12.6%(11)	1.1%(1)	4.6%(4)
성별	남자	0.0	0.0	47.4	26.3	15.8	2.6	7.9
	여자	0.0	0.0	61.2	26.5	10.2	0.0	2.0
연령대	10대	0.0	0.0	25.0	50.0	25.0	0.0	0.0
	20대	0.0	0.0	60.6	24.2	9.1	0.0	6.1
	30대	0.0	0.0	47.6	23.8	23.8	0.0	4.8
	40대	0.0	0.0	70.0	10.0	10.0	0.0	10.0
	50대	0.0	0.0	52.6	36.8	5.3	5.3	0.0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60.0	20.0	20.0	0.0
	전문학교	0.0	0.0	50.0	33.3	16.7	0.0	0.0
	고등중학교	0.0	0.0	60.9	20.3	12.5	0.0	6.3
	인민학교	0.0	0.0	50.0	5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50.0	25.0	16.7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5.4	27.0	12.2	0.0	5.4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56.6	24.5	11.3	1.9	5.7
	없다	0.0	0.0	52.9	29.4	14.7	0.0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70.6	17.6	5.9	0.0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7.3	30.9	16.4	1.8	3.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20.0	6.7	0.0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54.5	25.0	9.1	2.3	9.1
	없다	0.0	0.0	55.8	27.9	16.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52.3	27.3	15.9	0.0	4.5
	결혼(동거 포함)	0.0	0.0	50.0	30.6	11.1	2.8	5.6
	이혼	0.0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주체사상 자부심

문41)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큰 자부심을 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0.0%(0)	0.0%(0)	42.5%(37)	27.6%(24)	20.7%(18)	9.2%(8)
성별	남자	0.0	0.0	42.1	26.3	23.7	7.9
	여자	0.0	0.0	42.9	28.6	18.4	10.2
연령대	10대	0.0	0.0	0.0	50.0	50.0	0.0
	20대	0.0	0.0	45.5	36.4	12.1	6.1
	30대	0.0	0.0	42.9	23.8	28.6	4.8
	40대	0.0	0.0	70.0	20.0	10.0	0.0
	50대	0.0	0.0	31.6	15.8	26.3	26.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0.0	40.0	20.0
	전문학교	0.0	0.0	58.3	8.3	16.7	16.7
	고등중학교	0.0	0.0	39.1	32.8	20.3	7.8
	인민학교	0.0	0.0	50.0	33.3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50.0	8.3	25.0	1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40.5	31.1	20.3	8.1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39.6	30.2	17.0	13.2
	없다	0.0	0.0	47.1	23.5	26.5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41.2	41.2	17.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3.6	23.6	21.8	10.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40.0	26.7	20.0	1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27.3	29.5	29.5	13.6
	없다	0.0	0.0	58.1	25.6	11.6	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43.2	31.8	20.5	4.5
	결혼(동거 포함)	0.0	0.0	33.3	27.8	22.2	16.7
	이혼	0.0	0.0	80.0	0.0	2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김정은 지지도

문4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0.0% (0)	0.0% (0)	13.8% (12)	0.0% (0)	9.2% (8)	3.4% (3)	14.9% (13)	9.2% (8)	10.3% (9)	14.9% (13)	24.1% (21)	
성별	남자	0.0	0.0	13.2	0.0	7.9	5.3	7.9	13.2	10.5	18.4	23.7	
	여자	0.0	0.0	14.3	0.0	10.2	2.0	20.4	6.1	10.2	12.2	24.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25.0	25.0	0.0	0.0	25.0	0.0	25.0
		20대	0.0	0.0	9.1	0.0	6.1	6.1	18.2	3.0	12.1	18.2	27.3
		30대	0.0	0.0	9.5	0.0	9.5	0.0	19.0	0.0	9.5	23.8	28.6
		40대	0.0	0.0	10.0	0.0	10.0	0.0	30.0	10.0	20.0	20.0	0.0
		50대	0.0	0.0	31.6	0.0	10.5	0.0	15.8	21.1	5.3	0.0	15.8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문학교	0.0	0.0	60.0	0.0	20.0	0.0	0.0	0.0	20.0	0.0	0.0	
	고등중학교	0.0	0.0	33.3	0.0	8.3	8.3	8.3	16.7	8.3	16.7	0.0	
	고등중학교	0.0	0.0	7.8	0.0	7.8	3.1	15.6	9.4	7.8	17.2	31.3	
	인민학교	0.0	0.0	0.0	0.0	16.7	0.0	33.3	0.0	33.3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3.3	0.0	0.0	0.0	0.0	16.7	8.3	16.7	2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10.8	0.0	10.8	4.1	17.6	8.1	10.8	14.9	23.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15.1	0.0	11.3	3.8	18.9	9.4	5.7	13.2	22.6	
	없다	0.0	0.0	11.8	0.0	5.9	2.9	8.8	8.8	17.6	17.6	26.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9	0.0	11.8	5.9	17.6	5.9	5.9	11.8	35.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6.4	0.0	10.9	3.6	9.1	9.1	14.5	12.7	23.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3.3	0.0	0.0	0.0	33.3	13.3	0.0	26.7	1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22.7	0.0	6.8	4.5	20.5	11.4	9.1	6.8	18.2	
	없다	0.0	0.0	4.7	0.0	11.6	2.3	9.3	7.0	11.6	23.3	30.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9.1	0.0	11.4	6.8	13.6	2.3	13.6	18.2	25.0	
결혼상태	결혼(동거 포함)	0.0	0.0	19.4	0.0	8.3	0.0	19.4	16.7	2.8	13.9	19.4	
	이혼	0.0	0.0	20.0	0.0	0.0	0.0	20.0	40.0	0.0	2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회통제 유지도

문4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잘 유지 되었다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0.0%(0)	0.0%(0)	8.0%(7)	18.4%(16)	58.6%(51)	14.9%(13)
성별	남자	0.0	0.0	10.5	15.8	52.6	21.1
	여자	0.0	0.0	6.1	20.4	63.3	10.2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20대	0.0	0.0	9.1	21.2	48.5	21.2
	30대	0.0	0.0	14.3	23.8	47.6	14.3
	40대	0.0	0.0	0.0	20.0	70.0	10.0
	50대	0.0	0.0	5.3	10.5	73.7	10.5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40.0	60.0	0.0
	전문학교	0.0	0.0	8.3	25.0	41.7	25.0
	고등중학교	0.0	0.0	9.4	15.6	62.5	12.5
	인민학교	0.0	0.0	0.0	16.7	50.0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8.3	8.3	75.0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8.1	20.3	56.8	14.9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7.5	22.6	56.6	13.2
	없다	0.0	0.0	8.8	11.8	61.8	17.6
북한소식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9	17.6	64.7	11.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7.3	23.6	52.7	16.4
남한친척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3.3	0.0	73.3	1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9.1	6.8	68.2	15.9
결혼상태	없다	0.0	0.0	7.0	30.2	48.8	14.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11.4	25.0	52.3	11.4
결혼상태	결혼(동거 포함)	0.0	0.0	5.6	13.9	61.1	19.4
	이혼	0.0	0.0	0.0	0.0	80.0	2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비판행위 정도

문4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
		0.0%(0)	0.0%(0)	9.2%(8)	39.1%(34)	35.6%(31)	16.1%(14)
성별	남자	0.0	0.0	10.5	39.5	39.5	10.5
	여자	0.0	0.0	8.2	38.8	32.7	20.4
연령대	10대	0.0	0.0	25.0	0.0	75.0	0.0
	20대	0.0	0.0	9.1	33.3	36.4	21.2
	30대	0.0	0.0	9.5	42.9	42.9	4.8
	40대	0.0	0.0	10.0	40.0	40.0	10.0
	50대	0.0	0.0	5.3	52.6	15.8	26.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60.0	20.0	20.0
	전문학교	0.0	0.0	25.0	25.0	33.3	16.7
	고등중학교	0.0	0.0	4.7	40.6	39.1	15.6
	인민학교	0.0	0.0	33.3	33.3	16.7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8.3	50.0	25.0	1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9.5	36.5	37.8	16.2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9.4	45.3	28.3	17.0
	없다	0.0	0.0	8.8	29.4	47.1	14.7
북한소식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1.8	35.3	29.4	23.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5	41.8	40.0	12.7
남한친척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0.0	33.3	26.7	2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9.1	43.2	29.5	18.2
결혼상태	없다	0.0	0.0	9.3	34.9	41.9	14.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11.4	27.3	47.7	13.6
결혼상태	결혼(동거 포함)	0.0	0.0	2.8	52.8	25.0	19.4
	이혼	0.0	0.0	40.0	40.0	0.0	20.0
	무응답	0.0	0.0	0.0	5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문4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 본 적 없다
		0.0%(0)	0.0%(0)	5.7%(5)	11.5%(10)	10.3%(9)	0.0%(0)	11.5%(10)	23.0%(20)	37.9%(33)
성별	남자	0.0	0.0	10.5	13.2	13.2	0.0	13.2	21.1	28.9
	여자	0.0	0.0	2.0	10.2	8.2	0.0	10.2	24.5	44.9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50.0	50.0
	20대	0.0	0.0	3.0	15.2	18.2	0.0	6.1	27.3	30.3
	30대	0.0	0.0	4.8	4.8	9.5	0.0	14.3	23.8	42.9
	40대	0.0	0.0	10.0	10.0	0.0	0.0	30.0	0.0	50.0
	50대	0.0	0.0	10.5	15.8	5.3	0.0	10.5	21.1	36.8
	60대	0.0	0.0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40.0	0.0	0.0	40.0	0.0	0.0
	전문학교	0.0	0.0	16.7	16.7	0.0	0.0	16.7	0.0	50.0
	고등중학교	0.0	0.0	1.6	9.4	10.9	0.0	7.8	29.7	40.6
	인민학교	0.0	0.0	16.7	0.0	33.3	0.0	16.7	16.7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6.7	8.3	0.0	0.0	25.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4.1	12.2	10.8	0.0	9.5	27.0	36.5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5.7	7.5	11.3	0.0	9.4	24.5	41.5
	없다	0.0	0.0	5.9	17.6	8.8	0.0	14.7	20.6	32.4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17.6	11.8	0.0	11.8	29.4	29.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7.3	7.3	10.9	0.0	12.7	21.8	4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7	20.0	6.7	0.0	6.7	20.0	4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4.5	11.4	9.1	0.0	9.1	22.7	43.2
	없다	0.0	0.0	7.0	11.6	11.6	0.0	14.0	23.3	32.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6.8	13.6	9.1	0.0	9.1	22.7	38.6
	결혼(동거 포함)	0.0	0.0	5.6	8.3	13.9	0.0	11.1	25.0	36.1
	이혼	0.0	0.0	0.0	0.0	0.0	0.0	40.0	0.0	60.0
	무응답	0.0	0.0	0.0	50.0	0.0	0.0	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핵무기 보유 견해

문4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찬성했다	다소 찬성했다	반반/ 그저 그랬다	다소 반대했다	매우 반대했다
		0.0%(0)	0.0%(0)	28.7%(25)	27.6%(24)	27.6%(24)	4.6%(4)	11.5%(10)
성별	남자	0.0	0.0	36.8	28.9	21.1	5.3	7.9
	여자	0.0	0.0	22.4	26.5	32.7	4.1	14.3
연령대	10대	0.0	0.0	50.0	25.0	25.0	0.0	0.0
	20대	0.0	0.0	27.3	30.3	27.3	9.1	6.1
	30대	0.0	0.0	28.6	28.6	28.6	0.0	14.3
	40대	0.0	0.0	40.0	40.0	20.0	0.0	0.0
	50대	0.0	0.0	21.1	15.8	31.6	5.3	26.3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0.0	0.0	20.0	60.0
	전문학교	0.0	0.0	33.3	25.0	16.7	8.3	16.7
	고등중학교	0.0	0.0	31.3	31.3	28.1	3.1	6.3
	인민학교	0.0	0.0	0.0	16.7	66.7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5.0	41.7	8.3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29.7	25.7	29.7	4.1	10.8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34.0	20.8	26.4	3.8	15.1
	없다	0.0	0.0	20.6	38.2	29.4	5.9	5.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7.6	41.2	29.4	5.9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32.7	23.6	27.3	5.5	10.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6.7	26.7	26.7	0.0	2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25.0	27.3	22.7	6.8	18.2
	없다	0.0	0.0	32.6	27.9	32.6	2.3	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38.6	27.3	15.9	6.8	11.4
	결혼(동거 포함)	0.0	0.0	16.7	25.0	41.7	2.8	13.9
	이혼	0.0	0.0	20.0	40.0	40.0	0.0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 경제 어려움의 이유

문47)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 오류, 중복응답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이 안되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 되어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도자 (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기타	
												0.0%(0)
성별	남자	0.0	7.9	0.0	28.9	7.9	10.5	13.2	18.4	13.2	0.0	0.0
	여자	0.0	6.1	4.1	38.8	4.1	8.2	6.1	20.4	6.1	6.1	0.0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0.0	0.0	25.0	0.0	25.0	25.0	0.0
	20대	0.0	6.1	0.0	39.4	6.1	18.2	9.1	12.1	6.1	3.0	0.0
	30대	0.0	4.8	4.8	38.1	4.8	9.5	0.0	23.8	9.5	4.8	0.0
	40대	0.0	10.0	0.0	40.0	10.0	0.0	10.0	10.0	20.0	0.0	0.0
	50대	0.0	10.5	5.3	21.1	5.3	0.0	15.8	36.8	5.3	0.0	0.0
	60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0.0	0.0	0.0	40.0	0.0	40.0	0.0	0.0	0.0	0.0
	전문학교	0.0	8.3	0.0	33.3	8.3	8.3	8.3	25.0	8.3	0.0	0.0
	고등중학교	0.0	6.3	1.6	35.9	3.1	9.4	7.8	21.9	10.9	3.1	0.0
	인민학교	0.0	0.0	16.7	50.0	0.0	16.7	0.0	0.0	0.0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8.3	0.0	25.0	16.7	0.0	25.0	8.3	16.7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6.8	2.7	35.1	4.1	10.8	6.8	21.6	8.1	4.1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9.4	1.9	34.0	3.8	11.3	5.7	20.8	7.5	5.7	0.0
	없다	0.0	2.9	2.9	35.3	8.8	5.9	14.7	17.6	11.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29.4	11.8	23.5	11.8	11.8	5.9	5.9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1	1.8	40.0	1.8	5.5	9.1	20.0	9.1	3.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7	6.7	20.0	13.3	6.7	6.7	26.7	13.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6.8	2.3	22.7	4.5	9.1	15.9	25.0	11.4	2.3	0.0
	없다	0.0	7.0	2.3	46.5	7.0	9.3	2.3	14.0	7.0	4.7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0	6.8	0.0	29.5	6.8	9.1	9.1	15.9	15.9	6.8	0.0
	결혼(동거 포함)	0.0	5.6	5.6	38.9	5.6	8.3	11.1	22.2	2.8	0.0	0.0
	이혼	0.0	20.0	0.0	40.0	0.0	20.0	0.0	20.0	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50.0	0.0	0.0	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생산규율 유지

문48)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0.0%(0)
성별	남자	0.0	0.0	10.5	26.3	39.5	23.7
	여자	0.0	0.0	16.3	22.4	30.6	30.6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50.0	0.0
	20대	0.0	0.0	12.1	21.2	36.4	30.3
	30대	0.0	0.0	0.0	28.6	42.9	28.6
	40대	0.0	0.0	20.0	10.0	20.0	50.0
	50대	0.0	0.0	26.3	31.6	26.3	15.8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40.0	0.0	60.0
	전문학교	0.0	0.0	25.0	25.0	8.3	41.7
	고등중학교	0.0	0.0	12.5	23.4	39.1	25.0
	인민학교	0.0	0.0	16.7	16.7	6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8.3	50.0	16.7	2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14.9	18.9	37.8	28.4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11.3	26.4	32.1	30.2
	없다	0.0	0.0	17.6	20.6	38.2	23.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1.8	29.4	23.5	35.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0.9	27.3	34.5	27.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6.7	6.7	46.7	2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13.6	25.0	31.8	29.5
	없다	0.0	0.0	14.0	23.3	37.2	25.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13.6	25.0	29.5	31.8
	결혼(동거 포함)	0.0	0.0	13.9	22.2	41.7	22.2
	이혼	0.0	0.0	0.0	40.0	20.0	4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50.0	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생활총화 출석률

문49)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0%미만	30-50%	50-70%	70-90%	90% 이상
		0.0%(0)	0.0%(0)	5.7%(5)	20.7%(18)	39.1%(34)	21.8%(19)	12.6%(11)
성별	남자	0.0	0.0	5.3	18.4	34.2	34.2	7.9
	여자	0.0	0.0	6.1	22.4	42.9	12.2	16.3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25.0	25.0	25.0
	20대	0.0	0.0	6.1	24.2	33.3	27.3	9.1
	30대	0.0	0.0	9.5	9.5	61.9	14.3	4.8
	40대	0.0	0.0	10.0	10.0	40.0	10.0	30.0
	50대	0.0	0.0	0.0	31.6	26.3	26.3	15.8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0.0	60.0	20.0	20.0
	전문학교	0.0	0.0	0.0	25.0	25.0	16.7	33.3
	고등중학교	0.0	0.0	7.8	18.8	43.8	20.3	9.4
	인민학교	0.0	0.0	0.0	50.0	0.0	5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0.0	16.7	41.7	33.3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6.8	21.6	39.2	18.9	13.5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9.4	15.1	39.6	20.8	15.1
	없다	0.0	0.0	0.0	29.4	38.2	23.5	8.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9	17.6	47.1	17.6	11.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7.3	23.6	34.5	23.6	10.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13.3	46.7	20.0	2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9.1	18.2	47.7	15.9	9.1
	없다	0.0	0.0	2.3	23.3	30.2	27.9	16.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9.1	18.2	34.1	22.7	15.9
	결혼(동거 포함)	0.0	0.0	2.8	25.0	44.4	19.4	8.3
	이혼	0.0	0.0	0.0	20.0	40.0	40.0	0.0
	무응답	0.0	0.0	0.0	0.0	5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북한 경제시스템 지지도

문5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0.0%(0)	0.0%(0)	12.6%(11)	4.6%(4)	23.0%(20)	26.4%(23)	33.3%(29)
성별	남자	0.0	0.0	15.8	5.3	13.2	26.3	39.5
	여자	0.0	0.0	10.2	4.1	30.6	26.5	28.6
연령대	10대	0.0	0.0	0.0	0.0	25.0	25.0	50.0
	20대	0.0	0.0	15.2	9.1	21.2	18.2	36.4
	30대	0.0	0.0	9.5	0.0	28.6	33.3	28.6
	40대	0.0	0.0	10.0	0.0	30.0	30.0	30.0
	50대	0.0	0.0	15.8	5.3	15.8	31.6	31.6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0.0	0.0	0.0	100.0
	전문학교	0.0	0.0	16.7	8.3	8.3	33.3	33.3
	고등중학교	0.0	0.0	10.9	3.1	28.1	26.6	31.3
	인민학교	0.0	0.0	33.3	16.7	16.7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6.7	8.3	25.0	25.0	2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10.8	4.1	23.0	27.0	35.1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11.3	1.9	22.6	22.6	41.5
	없다	0.0	0.0	14.7	8.8	23.5	32.4	20.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1.8	5.9	17.6	23.5	41.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2.7	5.5	20.0	30.9	30.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3.3	0.0	40.0	13.3	3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11.4	0.0	20.5	25.0	43.2
	없다	0.0	0.0	14.0	9.3	25.6	27.9	2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11.4	6.8	20.5	25.0	36.4
	결혼(동거 포함)	0.0	0.0	16.7	2.8	22.2	27.8	30.6
	이혼	0.0	0.0	0.0	0.0	40.0	40.0	20.0
	무응답	0.0	0.0	0.0	0.0	5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다른 지역 방문

문51)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자주 가보았다	가끔 가보았다	거의 가보지 못했다
		0.0%(0)	0.0%(0)	19.5%(17)	43.7%(38)	36.8%(32)
성별	남자	0.0	0.0	28.9	44.7	26.3
	여자	0.0	0.0	12.2	42.9	44.9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50.0
	20대	0.0	0.0	24.2	51.5	24.2
	30대	0.0	0.0	19.0	42.9	38.1
	40대	0.0	0.0	10.0	50.0	40.0
	50대	0.0	0.0	15.8	31.6	52.6
	60대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100.0	0.0	0.0
	전문학교	0.0	0.0	0.0	58.3	41.7
	고등중학교	0.0	0.0	18.8	43.8	37.5
	인민학교	0.0	0.0	0.0	50.0	5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0.0	25.0	50.0	2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18.9	41.9	39.2
	무응답	0.0	0.0	0.0	10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0.0	22.6	41.5	35.8
	없다	0.0	0.0	14.7	47.1	38.2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7.6	64.7	17.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20.0	47.3	3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0.0	6.7	73.3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0.0	18.2	38.6	43.2
	없다	0.0	0.0	20.9	48.8	30.2
	무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미혼	0.0	0.0	25.0	45.5	29.5
	결혼(동거 포함)	0.0	0.0	11.1	44.4	44.4
	이혼	0.0	0.0	40.0	40.0	2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집단과 개인 우선도

문5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0.0%(0)	0.0%(0)	5.7%(5)	4.6%(4)	81.6%(71)	8.0%(7)	
성별	남자	0.0	0.0	10.5	5.3	78.9	5.3	
	여자	0.0	0.0	2.0	4.1	83.7	10.2	
	연령대	10대	0.0	0.0	0.0	0.0	75.0	25.0
		20대	0.0	0.0	6.1	6.1	84.8	3.0
		30대	0.0	0.0	9.5	4.8	76.2	9.5
		40대	0.0	0.0	0.0	0.0	90.0	10.0
		50대	0.0	0.0	5.3	5.3	78.9	10.5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0.0	100.0	0.0	
	전문학교	0.0	0.0	0.0	0.0	83.3	16.7	
	고등중학교	0.0	0.0	7.8	4.7	79.7	7.8	
	인민학교	0.0	0.0	0.0	16.7	83.3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8.3	0.0	83.3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4	5.4	81.1	8.1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7	1.9	81.1	11.3	
	없다	0.0	0.0	5.9	8.8	82.4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1.8	0.0	88.2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5	3.6	80.0	10.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13.3	80.0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4.5	2.3	79.5	13.6	
	없다	0.0	0.0	7.0	7.0	83.7	2.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9.1	6.8	77.3	6.8	
	결혼(동거 포함)	0.0	0.0	2.8	2.8	86.1	8.3	
	이혼	0.0	0.0	0.0	0.0	80.0	2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언론에 대한 신뢰도

문5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대부분 사실이 라고 생각했다	일부만 사실이 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0.0%(0)	0.0%(0)	35.6%(31)	28.7%(25)	31.0%(27)	4.6%(4)
성별	남자	0.0	0.0	36.8	28.9	31.6	2.6
	여자	0.0	0.0	34.7	28.6	30.6	6.1
연령대	10대	0.0	0.0	50.0	0.0	50.0	0.0
	20대	0.0	0.0	39.4	15.2	36.4	9.1
	30대	0.0	0.0	23.8	47.6	28.6	0.0
	40대	0.0	0.0	30.0	40.0	20.0	10.0
	50대	0.0	0.0	42.1	31.6	26.3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20.0	80.0	0.0
	전문학교	0.0	0.0	50.0	8.3	41.7	0.0
	고등중학교	0.0	0.0	35.9	34.4	25.0	4.7
	인민학교	0.0	0.0	33.3	16.7	33.3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41.7	33.3	25.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33.8	28.4	32.4	5.4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34.0	26.4	34.0	5.7
	없다	0.0	0.0	38.2	32.4	26.5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35.3	11.8	47.1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36.4	32.7	27.3	3.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33.3	33.3	26.7	6.7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29.5	27.3	36.4	6.8
	없다	0.0	0.0	41.9	30.2	25.6	2.3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36.4	20.5	38.6	4.5
	결혼(동거 포함)	0.0	0.0	36.1	38.9	22.2	2.8
결혼상태	이혼	0.0	0.0	0.0	40.0	40.0	2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외부소식 접촉 경로

문5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조선신문 (로동신문)	조선방송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강연, 학습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방송, 통신, 배라 등)	
		0.0%(0)	3.4%(3)	11.5%(10)	4.6%(4)	49.4%(43)	13.8%(12)	17.2%(15)	
성별	남자	0.0	2.6	13.2	2.6	44.7	10.5	26.3	
	여자	0.0	4.1	10.2	6.1	53.1	16.3	10.2	
	연령대	10대	0.0	0.0	0.0	0.0	50.0	25.0	25.0
		20대	0.0	3.0	12.1	9.1	48.5	12.1	15.2
		30대	0.0	4.8	0.0	4.8	52.4	14.3	23.8
		40대	0.0	0.0	0.0	0.0	60.0	20.0	20.0
		50대	0.0	5.3	31.6	0.0	42.1	10.5	10.5
교육수준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대학교	0.0	20.0	0.0	0.0	20.0	0.0	60.0	
	전문학교	0.0	0.0	16.7	8.3	25.0	25.0	25.0	
	고등중학교	0.0	3.1	10.9	4.7	54.7	12.5	14.1	
	인민학교	0.0	0.0	16.7	0.0	66.7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25.0	0.0	33.3	16.7	2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비당원	0.0	4.1	8.1	5.4	52.7	13.5	16.2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3.8	7.5	5.7	52.8	11.3	18.9	
북한소식	없다	0.0	2.9	17.6	2.9	44.1	17.6	1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1.8	11.8	52.9	5.9	17.6	
남한친척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6	10.9	3.6	49.1	14.5	18.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7	13.3	0.0	46.7	20.0	1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있다	0.0	2.3	9.1	6.8	59.1	9.1	13.6	
	없다	0.0	4.7	14.0	2.3	39.5	18.6	20.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4.5	4.5	6.8	47.7	15.9	20.5	
	결혼(동거 포함)	0.0	2.8	19.4	2.8	50.0	13.9	11.1	
	이혼	0.0	0.0	0.0	0.0	60.0	0.0	40.0	
	무응답	0.0	0.0	50.0	0.0	5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주변국 친밀감

문5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0.0%(0)	0.0%(0)	2.3%(2)	4.6%(4)	13.8%(12)	66.7%(58)	12.6%(11)
성별	남자	0.0	0.0	5.3	10.5	13.2	60.5	10.5
	여자	0.0	0.0	0.0	0.0	14.3	71.4	14.3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0.0	50.0	25.0
	20대	0.0	0.0	3.0	0.0	6.1	66.7	24.2
	30대	0.0	0.0	4.8	4.8	14.3	71.4	4.8
	40대	0.0	0.0	0.0	10.0	20.0	60.0	10.0
	50대	0.0	0.0	0.0	5.3	26.3	68.4	0.0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0.0	20.0	40.0	0.0
	전문학교	0.0	0.0	0.0	16.7	8.3	58.3	16.7
	고등중학교	0.0	0.0	0.0	3.1	12.5	73.4	10.9
	인민학교	0.0	0.0	0.0	0.0	33.3	33.3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8.3	16.7	25.0	5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1.4	2.7	12.2	70.3	13.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100.0
장사경험	있다	0.0	0.0	0.0	1.9	18.9	64.2	15.1
	없다	0.0	0.0	5.9	8.8	5.9	70.6	8.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5.9	11.8	64.7	17.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8	3.6	9.1	72.7	1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7	6.7	33.3	46.7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2.3	4.5	22.7	56.8	13.6
	없다	0.0	0.0	2.3	4.7	4.7	76.7	11.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4.5	4.5	6.8	65.9	18.2
	결혼(동거 포함)	0.0	0.0	0.0	5.6	25.0	66.7	2.8
	이혼	0.0	0.0	0.0	0.0	0.0	80.0	20.0
	무응답	0.0	0.0	0.0	0.0	0.0	5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평화 위협 국가

문5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0.0%(0)	3.4%(3)	81.6%(71)	0.0%(0)	2.3%(2)	12.6%(11)	0.0%(0)
성별	남자	0.0	5.3	73.7	0.0	0.0	21.1	0.0
	여자	0.0	2.0	87.8	0.0	4.1	6.1	0.0
연령대	10대	0.0	25.0	75.0	0.0	0.0	0.0	0.0
	20대	0.0	3.0	87.9	0.0	0.0	9.1	0.0
	30대	0.0	0.0	76.2	0.0	0.0	23.8	0.0
	40대	0.0	0.0	80.0	0.0	0.0	20.0	0.0
	50대	0.0	5.3	78.9	0.0	10.5	5.3	0.0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0.0	0.0	100.0	0.0
	전문학교	0.0	0.0	91.7	0.0	0.0	8.3	0.0
	고등중학교	0.0	4.7	85.9	0.0	1.6	7.8	0.0
	인민학교	0.0	0.0	83.3	0.0	16.7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75.0	0.0	0.0	25.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4.1	82.4	0.0	2.7	10.8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8	81.1	0.0	3.8	11.3	0.0
	없다	0.0	2.9	82.4	0.0	0.0	14.7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9	82.4	0.0	0.0	11.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8	83.6	0.0	1.8	12.7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7	73.3	0.0	6.7	13.3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4.5	81.8	0.0	4.5	9.1	0.0
	없다	0.0	2.3	81.4	0.0	0.0	16.3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4.5	77.3	0.0	0.0	18.2	0.0
	결혼(동거 포함)	0.0	2.8	83.3	0.0	5.6	8.3	0.0
	이혼	0.0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미국의 통일희망

문5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0)	0.0%(0)	8.0%(7)	16.1%(14)	26.4%(23)	49.4%(43)
성별	남자	0.0	0.0	10.5	21.1	31.6	36.8
	여자	0.0	0.0	6.1	12.2	22.4	59.2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50.0	25.0
	20대	0.0	0.0	6.1	12.1	30.3	51.5
	30대	0.0	0.0	14.3	23.8	23.8	38.1
	40대	0.0	0.0	0.0	10.0	30.0	60.0
	50대	0.0	0.0	10.5	15.8	15.8	57.9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60.0	0.0	0.0
	전문학교	0.0	0.0	16.7	0.0	25.0	58.3
	고등중학교	0.0	0.0	4.7	15.6	28.1	51.6
	인민학교	0.0	0.0	0.0	16.7	33.3	5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8.3	8.3	41.7	41.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8.1	17.6	24.3	50.0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9.4	18.9	15.1	56.6
	없다	0.0	0.0	5.9	11.8	44.1	38.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9	23.5	29.4	41.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5	12.7	25.5	56.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0.0	20.0	26.7	3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9.1	20.5	25.0	45.5
	없다	0.0	0.0	7.0	11.6	27.9	53.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9.1	20.5	31.8	38.6
	결혼(동거 포함)	0.0	0.0	8.3	13.9	19.4	58.3
	이혼	0.0	0.0	0.0	0.0	20.0	80.0
	무응답	0.0	0.0	0.0	0.0	5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중국의 통일희망

문5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0)	0.0%(0)	8.0%(7)	10.3%(9)	32.2%(28)	49.4%(43)
성별	남자	0.0	0.0	5.3	10.5	26.3	57.9
	여자	0.0	0.0	10.2	10.2	36.7	42.9
연령대	10대	0.0	0.0	0.0	0.0	75.0	25.0
	20대	0.0	0.0	3.0	15.2	36.4	45.5
	30대	0.0	0.0	14.3	4.8	33.3	47.6
	40대	0.0	0.0	0.0	10.0	30.0	60.0
	50대	0.0	0.0	15.8	10.5	15.8	57.9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0.0	20.0	80.0
	전문학교	0.0	0.0	8.3	16.7	25.0	50.0
	고등중학교	0.0	0.0	9.4	9.4	34.4	46.9
	인민학교	0.0	0.0	0.0	16.7	33.3	5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0.0	8.3	25.0	6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9.5	10.8	32.4	47.3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11.3	9.4	26.4	52.8
	없다	0.0	0.0	2.9	11.8	41.2	44.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1.8	11.8	41.2	35.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7.3	10.9	29.1	5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7	6.7	33.3	5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6.8	9.1	34.1	50.0
	없다	0.0	0.0	9.3	11.6	30.2	48.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6.8	11.4	31.8	50.0
결혼상태	결혼(동거 포함)	0.0	0.0	8.3	11.1	33.3	47.2
	이혼	0.0	0.0	20.0	0.0	20.0	60.0
	무응답	0.0	0.0	0.0	0.0	5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일본의 통일희망

문5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0)	0.0%(0)	3.4%(3)	10.3%(9)	28.7%(25)	57.5%(50)
성별	남자	0.0	0.0	2.6	13.2	23.7	60.5
	여자	0.0	0.0	4.1	8.2	32.7	55.1
연령대	10대	0.0	0.0	0.0	50.0	25.0	25.0
	20대	0.0	0.0	0.0	6.1	36.4	57.6
	30대	0.0	0.0	9.5	9.5	28.6	52.4
	40대	0.0	0.0	0.0	0.0	10.0	90.0
	50대	0.0	0.0	5.3	15.8	26.3	52.6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20.0	40.0	40.0
	전문학교	0.0	0.0	8.3	0.0	25.0	66.7
	고등중학교	0.0	0.0	3.1	10.9	29.7	56.3
	인민학교	0.0	0.0	0.0	16.7	16.7	6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0.0	8.3	33.3	5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4.1	10.8	27.0	58.1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3.8	11.3	20.8	64.2
	없다	0.0	0.0	2.9	8.8	41.2	47.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9	5.9	47.1	41.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8	10.9	27.3	6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7	13.3	13.3	6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2.3	13.6	27.3	56.8
	없다	0.0	0.0	4.7	7.0	30.2	58.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4.5	13.6	27.3	54.5
	결혼(동거 포함)	0.0	0.0	2.8	8.3	30.6	58.3
	이혼	0.0	0.0	0.0	0.0	20.0	80.0
	무응답	0.0	0.0	0.0	0.0	5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러시아의 통일희망

문6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0)	0.0%(0)	5.7%(5)	34.5%(30)	28.7%(25)	31.0%(27)
성별	남자	0.0	0.0	5.3	34.2	28.9	31.6
	여자	0.0	0.0	6.1	34.7	28.6	30.6
연령대	10대	0.0	0.0	0.0	50.0	25.0	25.0
	20대	0.0	0.0	6.1	39.4	24.2	30.3
	30대	0.0	0.0	4.8	38.1	33.3	23.8
	40대	0.0	0.0	0.0	10.0	40.0	50.0
	50대	0.0	0.0	10.5	31.6	26.3	31.6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40.0	60.0	0.0
	전문학교	0.0	0.0	16.7	25.0	25.0	33.3
	고등중학교	0.0	0.0	4.7	37.5	26.6	31.3
	인민학교	0.0	0.0	0.0	16.7	33.3	5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8.3	16.7	41.7	33.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4	37.8	25.7	31.1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7	39.6	20.8	34.0
	없다	0.0	0.0	5.9	26.5	41.2	26.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1.8	35.3	29.4	23.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8	38.2	27.3	3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3.3	20.0	33.3	3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6.8	38.6	29.5	25.0
	없다	0.0	0.0	4.7	30.2	27.9	37.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6.8	36.4	22.7	34.1
	결혼(동거 포함)	0.0	0.0	5.6	30.6	38.9	25.0
	이혼	0.0	0.0	0.0	40.0	20.0	40.0
	무응답	0.0	0.0	0.0	5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협조 필요 국가

문6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0.0%(0)	0.0%(0)	40.2%(35)	20.7%(18)	6.9%(6)	1.1%(1)	31.0%(27)
성별	남자	0.0	0.0	44.7	18.4	5.3	2.6	28.9
	여자	0.0	0.0	36.7	22.4	8.2	0.0	32.7
연령대	10대	0.0	0.0	0.0	50.0	25.0	0.0	25.0
	20대	0.0	0.0	36.4	33.3	6.1	0.0	24.2
	30대	0.0	0.0	52.4	9.5	9.5	4.8	23.8
	40대	0.0	0.0	20.0	20.0	0.0	0.0	60.0
	50대	0.0	0.0	52.6	5.3	5.3	0.0	36.8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80.0	20.0	0.0	0.0	0.0
	전문학교	0.0	0.0	25.0	25.0	0.0	0.0	50.0
	고등중학교	0.0	0.0	42.2	17.2	9.4	1.6	29.7
	인민학교	0.0	0.0	16.7	50.0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5.0	25.0	8.3	0.0	41.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41.9	20.3	6.8	1.4	29.7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43.4	18.9	3.8	1.9	32.1
	없다	0.0	0.0	35.3	23.5	11.8	0.0	29.4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41.2	11.8	11.8	0.0	35.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5.5	20.0	5.5	1.8	27.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0.0	33.3	6.7	0.0	4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40.9	18.2	6.8	0.0	34.1
	없다	0.0	0.0	39.5	23.3	7.0	2.3	27.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38.6	29.5	4.5	2.3	25.0
	결혼(동거 포함)	0.0	0.0	47.2	11.1	5.6	0.0	36.1
	이혼	0.0	0.0	20.0	0.0	40.0	0.0	40.0
	무응답	0.0	0.0	0.0	5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발전이 필요한 국가

문6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0.0%(0)	0.0%(0)	4.6%(4)	0.0%(0)	50.6%(44)	43.7%(38)	1.1%(1)
성별	남자	0.0	0.0	5.3	0.0	44.7	47.4	2.6
	여자	0.0	0.0	4.1	0.0	55.1	40.8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75.0	25.0	0.0
	20대	0.0	0.0	9.1	0.0	51.5	36.4	3.0
	30대	0.0	0.0	4.8	0.0	33.3	61.9	0.0
	40대	0.0	0.0	0.0	0.0	70.0	30.0	0.0
	50대	0.0	0.0	0.0	0.0	52.6	47.4	0.0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0.0	80.0	20.0	0.0
	전문학교	0.0	0.0	8.3	0.0	41.7	50.0	0.0
	고등중학교	0.0	0.0	4.7	0.0	46.9	46.9	1.6
	인민학교	0.0	0.0	0.0	0.0	83.3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0.0	0.0	58.3	41.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4	0.0	48.6	44.6	1.4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0.0	7.5	0.0	47.2	45.3	0.0
	없다	0.0	0.0	0.0	0.0	55.9	41.2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0.0	76.5	23.5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5	0.0	40.0	54.5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7	0.0	60.0	26.7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4.5	0.0	56.8	36.4	2.3
	없다	0.0	0.0	4.7	0.0	44.2	51.2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9.1	0.0	45.5	43.2	2.3
	결혼(동거 포함)	0.0	0.0	0.0	0.0	52.8	47.2	0.0
	이혼	0.0	0.0	0.0	0.0	60.0	40.0	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주민 친근감

문63)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남한 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1.1%(1)	0.0%(0)	36.8%(32)	52.9%(46)	9.2%(8)	0.0%(0)
성별	남자	0.0	0.0	42.1	47.4	10.5	0.0
	여자	2.0	0.0	32.7	57.1	8.2	0.0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50.0	0.0
	20대	3.0	0.0	36.4	45.5	15.2	0.0
	30대	0.0	0.0	33.3	66.7	0.0	0.0
	40대	0.0	0.0	20.0	80.0	0.0	0.0
	50대	0.0	0.0	52.6	42.1	5.3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60.0	20.0	0.0
	전문학교	0.0	0.0	33.3	50.0	16.7	0.0
	고등중학교	0.0	0.0	37.5	56.3	6.3	0.0
	인민학교	16.7	0.0	50.0	16.7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3.3	58.3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36.5	52.7	9.5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9	0.0	34.0	54.7	9.4	0.0
	없다	0.0	0.0	41.2	50.0	8.8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3.5	58.8	17.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1.8	52.7	5.5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7	0.0	33.3	46.7	13.3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3	0.0	34.1	52.3	11.4	0.0
	없다	0.0	0.0	39.5	53.5	7.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동거 포함)	2.8	0.0	47.2	50.0	0.0	0.0
	이혼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주민 포용성

문64)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포용적이다	약간 포용적이다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1.1%(1)	0.0%(0)	26.4%(23)	44.8%(39)	27.6%(24)	0.0%(0)
성별	남자	0.0	0.0	26.3	44.7	28.9	0.0
	여자	2.0	0.0	26.5	44.9	26.5	0.0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50.0	0.0
	20대	3.0	0.0	27.3	39.4	30.3	0.0
	30대	0.0	0.0	23.8	52.4	23.8	0.0
	40대	0.0	0.0	20.0	60.0	20.0	0.0
	50대	0.0	0.0	31.6	42.1	26.3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20.0	60.0	0.0
	전문학교	0.0	0.0	16.7	50.0	33.3	0.0
	고등중학교	0.0	0.0	26.6	48.4	25.0	0.0
	인민학교	16.7	0.0	50.0	16.7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5.0	33.3	41.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27.0	45.9	25.7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9	0.0	24.5	49.1	24.5	0.0
	없다	0.0	0.0	29.4	38.2	32.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4	29.4	41.2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27.3	49.1	23.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7	0.0	20.0	46.7	26.7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3	0.0	25.0	40.9	31.8	0.0
	없다	0.0	0.0	27.9	48.8	23.3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27.3	40.9	31.8	0.0
	결혼(동거 포함)	2.8	0.0	22.2	52.8	22.2	0.0
	이혼	0.0	0.0	60.0	20.0	20.0	0.0
	무응답	0.0	0.0	0.0	5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국민의식

문65)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나는 남한사람이다	나는 북한사람이다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니다
		1.1%(1)	0.0%(0)	71.3%(62)	21.8%(19)	5.7%(5)
성별	남자	0.0	0.0	71.1	21.1	7.9
	여자	2.0	0.0	71.4	22.4	4.1
연령대	10대	0.0	0.0	50.0	50.0	0.0
	20대	3.0	0.0	72.7	15.2	9.1
	30대	0.0	0.0	66.7	23.8	9.5
	40대	0.0	0.0	60.0	40.0	0.0
	50대	0.0	0.0	84.2	15.8	0.0
	60대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40.0	40.0
	전문학교	0.0	0.0	66.7	33.3	0.0
	고등중학교	0.0	0.0	76.6	18.8	4.7
	인민학교	16.7	0.0	66.7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75.0	25.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70.3	21.6	6.8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9	0.0	67.9	26.4	3.8
	없다	0.0	0.0	76.5	14.7	8.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8.8	29.4	11.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74.5	20.0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7	0.0	73.3	2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3	0.0	79.5	18.2	0.0
	없다	0.0	0.0	62.8	25.6	11.6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63.6	25.0	11.4
	결혼(동거 포함)	2.8	0.0	83.3	13.9	0.0
	이혼	0.0	0.0	60.0	40.0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 생활 만족도

문66)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1%(1)	0.0%(0)	32.2%(28)	44.8%(39)	18.4%(16)	3.4%(3)	0.0%(0)
성별	남자	0.0	0.0	31.6	55.3	13.2	0.0	0.0
	여자	2.0	0.0	32.7	36.7	22.4	6.1	0.0
연령대	10대	0.0	0.0	25.0	50.0	25.0	0.0	0.0
	20대	3.0	0.0	33.3	39.4	24.2	0.0	0.0
	30대	0.0	0.0	28.6	52.4	9.5	9.5	0.0
	40대	0.0	0.0	40.0	40.0	20.0	0.0	0.0
	50대	0.0	0.0	31.6	47.4	15.8	5.3	0.0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80.0	0.0	0.0	0.0
	전문학교	0.0	0.0	33.3	41.7	16.7	8.3	0.0
	고등중학교	0.0	0.0	29.7	46.9	20.3	3.1	0.0
	인민학교	16.7	0.0	66.7	0.0	16.7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5.0	58.3	16.7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32.4	43.2	18.9	4.1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9	0.0	28.3	45.3	18.9	5.7	0.0
	없다	0.0	0.0	38.2	44.1	17.6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41.2	41.2	11.8	5.9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1	47.3	21.8	1.8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7	0.0	33.3	40.0	13.3	6.7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3	0.0	29.5	43.2	20.5	4.5	0.0
	없다	0.0	0.0	34.9	46.5	16.3	2.3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29.5	45.5	20.5	4.5	0.0
	결혼(동거 포함)	2.8	0.0	38.9	38.9	16.7	2.8	0.0
	이혼	0.0	0.0	20.0	60.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문67)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0)	0.0%(0)	56.3%(49)	32.2%(28)	8.0%(7)	2.3%(2)	1.1%(1)
성별	남자	0.0	0.0	50.0	39.5	5.3	2.6	2.6
	여자	0.0	0.0	61.2	26.5	10.2	2.0	0.0
연령대	10대	0.0	0.0	25.0	50.0	25.0	0.0	0.0
	20대	0.0	0.0	54.5	24.2	12.1	6.1	3.0
	30대	0.0	0.0	61.9	33.3	4.8	0.0	0.0
	40대	0.0	0.0	70.0	30.0	0.0	0.0	0.0
	50대	0.0	0.0	52.6	42.1	5.3	0.0	0.0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40.0	20.0	0.0	0.0
	전문학교	0.0	0.0	83.3	16.7	0.0	0.0	0.0
	고등중학교	0.0	0.0	53.1	35.9	6.3	3.1	1.6
	인민학교	0.0	0.0	50.0	16.7	33.3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58.3	41.7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5.4	31.1	9.5	2.7	1.4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2.8	32.1	9.4	3.8	1.9
	없다	0.0	0.0	61.8	32.4	5.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64.7	0.0	29.4	5.9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2.7	43.6	0.0	1.8	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0.0	26.7	13.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54.5	34.1	6.8	4.5	0.0
	없다	0.0	0.0	58.1	30.2	9.3	0.0	2.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50.0	31.8	11.4	4.5	2.3
	결혼(동거 포함)	0.0	0.0	58.3	36.1	5.6	0.0	0.0
	이혼	0.0	0.0	80.0	2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문화적 차이 (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문68)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0.0%(0)	0.0%(0)	28.7%(25)	52.9%(46)	13.8%(12)	4.6%(4)
성별	남자	0.0	0.0	23.7	50.0	18.4	7.9
	여자	0.0	0.0	32.7	55.1	10.2	2.0
연령대	10대	0.0	0.0	0.0	75.0	25.0	0.0
	20대	0.0	0.0	27.3	45.5	18.2	9.1
	30대	0.0	0.0	28.6	47.6	19.0	4.8
	40대	0.0	0.0	40.0	60.0	0.0	0.0
	50대	0.0	0.0	31.6	63.2	5.3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40.0	40.0	20.0
	전문학교	0.0	0.0	41.7	58.3	0.0	0.0
	고등중학교	0.0	0.0	29.7	51.6	15.6	3.1
	인민학교	0.0	0.0	16.7	66.7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8.3	83.3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32.4	47.3	14.9	5.4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41.5	47.2	9.4	1.9
	없다	0.0	0.0	8.8	61.8	20.6	8.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47.1	35.3	17.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23.6	58.2	12.7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6.7	53.3	13.3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40.9	52.3	6.8	0.0
	없다	0.0	0.0	16.3	53.5	20.9	9.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22.7	47.7	20.5	9.1
	결혼(동거 포함)	0.0	0.0	30.6	63.9	5.6	0.0
	이혼	0.0	0.0	40.0	40.0	2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건강의 문제 (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문69)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0.0%(0)	0.0%(0)	4.6%(4)	23.0%(20)	34.5%(30)	37.9%(33)
성별	남자	0.0	0.0	5.3	23.7	26.3	44.7
	여자	0.0	0.0	4.1	22.4	40.8	32.7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50.0	25.0
	20대	0.0	0.0	9.1	18.2	27.3	45.5
	30대	0.0	0.0	4.8	19.0	38.1	38.1
	40대	0.0	0.0	0.0	30.0	40.0	30.0
	50대	0.0	0.0	0.0	31.6	36.8	31.6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20.0	20.0	60.0
	전문학교	0.0	0.0	0.0	25.0	41.7	33.3
	고등중학교	0.0	0.0	6.3	23.4	35.9	34.4
	인민학교	0.0	0.0	0.0	16.7	16.7	66.7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0.0	33.3	33.3	33.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4	20.3	35.1	39.2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7	20.8	35.8	37.7
	없다	0.0	0.0	2.9	26.5	32.4	38.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7.6	11.8	29.4	41.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8	25.5	32.7	4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26.7	46.7	2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4.5	18.2	38.6	38.6
	없다	0.0	0.0	4.7	27.9	30.2	37.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9.1	20.5	31.8	38.6
	결혼(동거 포함)	0.0	0.0	0.0	19.4	36.1	44.4
	이혼	0.0	0.0	0.0	40.0	6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경제적 문제 (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문70)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1.1%(1)	0.0%(0)	24.1%(21)	37.9%(33)	27.6%(24)	9.2%(8)
성별	남자	0.0	0.0	23.7	36.8	28.9	10.5
	여자	2.0	0.0	24.5	38.8	26.5	8.2
연령대	10대	0.0	0.0	0.0	50.0	25.0	25.0
	20대	0.0	0.0	33.3	39.4	15.2	12.1
	30대	0.0	0.0	14.3	38.1	47.6	0.0
	40대	0.0	0.0	30.0	30.0	30.0	10.0
	50대	5.3	0.0	21.1	36.8	26.3	10.5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0.0	40.0	20.0
	전문학교	0.0	0.0	16.7	58.3	8.3	16.7
	고등중학교	1.6	0.0	25.0	37.5	31.3	4.7
	인민학교	0.0	0.0	16.7	33.3	16.7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33.3	41.7	16.7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21.6	37.8	29.7	9.5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9	0.0	26.4	32.1	32.1	7.5
	없다	0.0	0.0	20.6	47.1	20.6	11.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9	0.0	35.3	23.5	23.5	11.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20.0	41.8	32.7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6.7	40.0	13.3	2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3	0.0	27.3	36.4	25.0	9.1
	없다	0.0	0.0	20.9	39.5	30.2	9.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25.0	34.1	27.3	13.6
	결혼(동거 포함)	2.8	0.0	22.2	38.9	30.6	5.6
	이혼	0.0	0.0	20.0	60.0	20.0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인간관계(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문71)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0.0%(0)	0.0%(0)	6.9%(6)	24.1%(21)	48.3%(42)	20.7%(18)
성별	남자	0.0	0.0	7.9	26.3	50.0	15.8
	여자	0.0	0.0	6.1	22.4	46.9	24.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75.0	25.0
	20대	0.0	0.0	6.1	30.3	45.5	18.2
	30대	0.0	0.0	4.8	14.3	57.1	23.8
	40대	0.0	0.0	0.0	30.0	30.0	40.0
	50대	0.0	0.0	15.8	26.3	47.4	10.5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20.0	40.0	40.0
	전문학교	0.0	0.0	16.7	16.7	50.0	16.7
	고등중학교	0.0	0.0	4.7	25.0	51.6	18.8
	인민학교	0.0	0.0	16.7	33.3	16.7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8.3	25.0	50.0	16.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6.8	23.0	48.6	21.6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9.4	22.6	43.4	24.5
	없다	0.0	0.0	2.9	26.5	55.9	1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1.8	17.6	52.9	17.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3.6	23.6	50.9	2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3.3	33.3	33.3	2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9.1	25.0	50.0	15.9
	없다	0.0	0.0	4.7	23.3	46.5	25.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9.1	20.5	52.3	18.2
	결혼(동거 포함)	0.0	0.0	5.6	33.3	38.9	22.2
	이혼	0.0	0.0	0.0	0.0	60.0	4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사회적 편견(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문72)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0.0%(0)	0.0%(0)	6.9%(6)	43.7%(38)	36.8%(32)	12.6%(11)
성별	남자	0.0	0.0	10.5	36.8	42.1	10.5
	여자	0.0	0.0	4.1	49.0	32.7	14.3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50.0	25.0
	20대	0.0	0.0	9.1	33.3	39.4	18.2
	30대	0.0	0.0	14.3	33.3	42.9	9.5
	40대	0.0	0.0	0.0	60.0	40.0	0.0
	50대	0.0	0.0	0.0	68.4	21.1	10.5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60.0	40.0	0.0
	전문학교	0.0	0.0	0.0	58.3	33.3	8.3
	고등중학교	0.0	0.0	9.4	40.6	39.1	10.9
	인민학교	0.0	0.0	0.0	33.3	16.7	5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0.0	66.7	25.0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8.1	39.2	39.2	13.5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9.4	47.2	28.3	15.1
	없다	0.0	0.0	2.9	38.2	50.0	8.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1.8	23.5	58.8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7.3	43.6	36.4	1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66.7	13.3	2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0.0	6.8	52.3	34.1	6.8
	없다	0.0	0.0	7.0	34.9	39.5	18.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11.4	38.6	34.1	15.9
	결혼(동거 포함)	0.0	0.0	2.8	50.0	38.9	8.3
	이혼	0.0	0.0	0.0	40.0	40.0	20.0
	무응답	0.0	0.0	0.0	5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심리적 외로움(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문73)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0.0%(0)	0.0%(0)	19.5%(17)	31.0%(27)	31.0%(27)	18.4%(16)
성별	남자	0.0	0.0	18.4	28.9	31.6	21.1
	여자	0.0	0.0	20.4	32.7	30.6	16.3
연령대	10대	0.0	0.0	0.0	0.0	50.0	50.0
	20대	0.0	0.0	21.2	30.3	33.3	15.2
	30대	0.0	0.0	33.3	19.0	28.6	19.0
	40대	0.0	0.0	10.0	40.0	20.0	30.0
	50대	0.0	0.0	10.5	47.4	31.6	10.5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40.0	20.0	40.0
	전문학교	0.0	0.0	0.0	25.0	58.3	16.7
	고등중학교	0.0	0.0	25.0	31.3	29.7	14.1
	인민학교	0.0	0.0	16.7	33.3	0.0	5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0.0	50.0	41.7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23.0	27.0	29.7	20.3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24.5	30.2	24.5	20.8
	없다	0.0	0.0	11.8	32.4	41.2	14.7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4	11.8	29.4	29.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8.2	34.5	32.7	14.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3.3	40.0	26.7	2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20.5	29.5	34.1	15.9
	없다	0.0	0.0	18.6	32.6	27.9	20.9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22.7	20.5	36.4	20.5
	결혼(동거 포함)	0.0	0.0	16.7	41.7	27.8	13.9
	이혼	0.0	0.0	20.0	60.0	0.0	20.0
	무응답	0.0	0.0	0.0	0.0	5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묻는 정도

문74) 귀하의 현재 남한 생활은 귀하가 북한에서 살고 계실 때 생각했던 남한의 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가깝다	다소 가깝다	별로 가깝지 않다	전혀 가깝지 않다
		0.0%(0)	0.0%(0)	29.9%(26)	49.4%(43)	16.1%(14)	4.6%(4)
성별	남자	0.0	0.0	26.3	57.9	13.2	2.6
	여자	0.0	0.0	32.7	42.9	18.4	6.1
연령대	10대	0.0	0.0	0.0	50.0	50.0	0.0
	20대	0.0	0.0	33.3	36.4	27.3	3.0
	30대	0.0	0.0	23.8	76.2	0.0	0.0
	40대	0.0	0.0	20.0	50.0	10.0	20.0
	50대	0.0	0.0	42.1	42.1	10.5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60.0	0.0	0.0
	전문학교	0.0	0.0	33.3	50.0	8.3	8.3
	고등중학교	0.0	0.0	25.0	51.6	18.8	4.7
	인민학교	0.0	0.0	66.7	16.7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3.3	66.7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28.4	47.3	18.9	5.4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32.1	43.4	17.0	7.5
	없다	0.0	0.0	26.5	58.8	14.7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4	52.9	11.8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27.3	47.3	20.0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40.0	53.3	6.7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38.6	45.5	11.4	4.5
	없다	0.0	0.0	20.9	53.5	20.9	4.7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27.3	40.9	27.3	4.5
	결혼(동거 포함)	0.0	0.0	36.1	58.3	2.8	2.8
	이혼	0.0	0.0	20.0	40.0	20.0	2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정부지원 제외 가장 도움 된 것

문75)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NGO 등 민간단체의 지원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	기준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3.4%(3)	0.0%(0)	19.5%(17)	33.3%(29)	20.7%(18)	23.0%(20)
성별	남자	0.0	0.0	23.7	36.8	13.2	26.3
	여자	6.1	0.0	16.3	30.6	26.5	20.4
연령대	10대	0.0	0.0	25.0	75.0	0.0	0.0
	20대	0.0	0.0	18.2	33.3	18.2	30.3
	30대	0.0	0.0	23.8	23.8	23.8	28.6
	40대	10.0	0.0	20.0	20.0	40.0	10.0
	50대	10.5	0.0	15.8	42.1	15.8	15.8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20.0	0.0	80.0
	전문학교	0.0	0.0	16.7	25.0	16.7	41.7
	고등중학교	3.1	0.0	20.3	35.9	25.0	15.6
	인민학교	16.7	0.0	33.3	33.3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8.3	25.0	33.3	33.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4.1	0.0	20.3	35.1	18.9	21.6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7	0.0	22.6	30.2	22.6	18.9
	없다	0.0	0.0	14.7	38.2	17.6	29.4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9	0.0	17.6	41.2	11.8	23.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	0.0	16.4	34.5	25.5	2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7	0.0	33.3	20.0	13.3	2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5	0.0	25.0	34.1	13.6	22.7
	없다	2.3	0.0	14.0	32.6	27.9	2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15.9	31.8	18.2	34.1
	결혼(동거 포함)	8.3	0.0	25.0	27.8	25.0	13.9
	이혼	0.0	0.0	20.0	60.0	2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탈북결심이유

문76) 귀하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경제적 어려움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	
		0.0%(0)	1.1%(1)	31.0%(27)	25.3%(22)	13.8%(12)	23.0%(20)	5.7%(5)	
성별	남자	0.0	0.0	44.7	18.4	15.8	21.1	0.0	
	여자	0.0	2.0	20.4	30.6	12.2	24.5	10.2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25.0	25.0	0.0
		20대	0.0	0.0	18.2	27.3	12.1	36.4	6.1
		30대	0.0	0.0	38.1	33.3	9.5	19.0	0.0
		40대	0.0	0.0	40.0	20.0	10.0	10.0	20.0
		50대	0.0	5.3	42.1	15.8	21.1	10.5	5.3
	60대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60.0	0.0	0.0	40.0	0.0	
	전문학교	0.0	0.0	41.7	25.0	8.3	25.0	0.0	
	고등중학교	0.0	1.6	28.1	23.4	17.2	21.9	7.8	
	인민학교	0.0	0.0	16.7	66.7	0.0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58.3	16.7	8.3	8.3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4	27.0	25.7	14.9	25.7	5.4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1.9	28.3	26.4	15.1	18.9	9.4	
	없다	0.0	0.0	35.3	23.5	11.8	29.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4	23.5	17.6	23.5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29.1	25.5	14.5	23.6	7.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7	40.0	26.7	6.7	2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2.3	34.1	13.6	27.3	11.4	11.4	
	없다	0.0	0.0	27.9	37.2	0.0	34.9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22.7	22.7	13.6	36.4	4.5	
	결혼(동거 포함)	0.0	2.8	38.9	27.8	16.7	11.1	2.8	
	이혼	0.0	0.0	60.0	20.0	0.0	0.0	20.0	
	무응답	0.0	0.0	0.0	5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에 온 것 후회 정도

문77) 귀하는 탈북 후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응답	중복응답, 응답오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0.0%(0)	0.0%(0)	1.1%(1)	18.4%(16)	34.5%(30)	46.0%(40)
성별	남자	0.0	0.0	0.0	13.2	42.1	44.7
	여자	0.0	0.0	2.0	22.4	28.6	46.9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25.0	50.0
	20대	0.0	0.0	0.0	18.2	45.5	36.4
	30대	0.0	0.0	4.8	19.0	28.6	47.6
	40대	0.0	0.0	0.0	20.0	30.0	50.0
	50대	0.0	0.0	0.0	15.8	26.3	57.9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0.0	60.0	40.0
	전문학교	0.0	0.0	0.0	25.0	33.3	41.7
	고등중학교	0.0	0.0	1.6	18.8	35.9	43.8
	인민학교	0.0	0.0	0.0	16.7	0.0	83.3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0.0	8.3	50.0	41.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1.4	20.3	32.4	45.9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1.9	22.6	34.0	41.5
	없다	0.0	0.0	0.0	11.8	35.3	5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9	11.8	35.3	47.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23.6	34.5	4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6.7	33.3	6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0.0	15.9	31.8	52.3
	없다	0.0	0.0	2.3	20.9	37.2	39.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0.0	20.5	36.4	43.2
	결혼(동거 포함)	0.0	0.0	2.8	16.7	33.3	47.2
	이혼	0.0	0.0	0.0	20.0	40.0	4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문78)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2.3%(2)	0.0%(0)	46.0%(40)	24.1%(21)	20.7%(18)	6.9%(6)
성별	남자	2.6	0.0	36.8	34.2	15.8	10.5
	여자	2.0	0.0	53.1	16.3	24.5	4.1
연령대	10대	0.0	0.0	25.0	50.0	25.0	0.0
	20대	0.0	0.0	33.3	42.4	18.2	6.1
	30대	0.0	0.0	71.4	0.0	23.8	4.8
	40대	0.0	0.0	50.0	0.0	30.0	20.0
	50대	10.5	0.0	42.1	26.3	15.8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20.0	0.0	20.0	20.0	40.0	0.0
	전문학교	0.0	0.0	50.0	16.7	25.0	8.3
	고등중학교	1.6	0.0	48.4	23.4	18.8	7.8
	인민학교	0.0	0.0	33.3	50.0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8.3	0.0	25.0	25.0	33.3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	0.0	50.0	23.0	18.9	6.8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3.8	0.0	45.3	20.8	20.8	9.4
	없다	0.0	0.0	47.1	29.4	20.6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47.1	23.5	23.5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6	0.0	47.3	25.5	18.2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40.0	20.0	26.7	13.3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3	0.0	52.3	27.3	13.6	4.5
	없다	2.3	0.0	39.5	20.9	27.9	9.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45.5	22.7	25.0	6.8
	결혼(동거 포함)	2.8	0.0	50.0	27.8	16.7	2.8
	이혼	20.0	0.0	40.0	0.0	20.0	2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5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한국국적

문79)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국적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0)	0.0%(0)	71.3%(62)	19.5%(17)	4.6%(4)	4.6%(4)
성별	남자	0.0	0.0	68.4	23.7	2.6	5.3
	여자	0.0	0.0	73.5	16.3	6.1	4.1
연령대	10대	0.0	0.0	25.0	50.0	0.0	25.0
	20대	0.0	0.0	54.5	36.4	6.1	3.0
	30대	0.0	0.0	85.7	9.5	0.0	4.8
	40대	0.0	0.0	100.0	0.0	0.0	0.0
	50대	0.0	0.0	78.9	5.3	10.5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20.0	20.0	20.0
	전문학교	0.0	0.0	75.0	8.3	16.7	0.0
	고등중학교	0.0	0.0	75.0	20.3	1.6	3.1
	인민학교	0.0	0.0	50.0	33.3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83.3	8.3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70.3	20.3	4.1	5.4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75.5	17.0	3.8	3.8
	없다	0.0	0.0	64.7	23.5	5.9	5.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70.6	17.6	5.9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69.1	21.8	5.5	3.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80.0	13.3	0.0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77.3	18.2	4.5	0.0
	없다	0.0	0.0	65.1	20.9	4.7	9.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56.8	31.8	4.5	6.8
	결혼(동거 포함)	0.0	0.0	86.1	8.3	5.6	0.0
	이혼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5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내는 것

문80)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내는 것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0)	0.0%(0)	47.1%(41)	34.5%(30)	16.1%(14)	2.3%(2)
성별	남자	0.0	0.0	39.5	42.1	13.2	5.3
	여자	0.0	0.0	53.1	28.6	18.4	0.0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50.0	0.0
	20대	0.0	0.0	39.4	36.4	18.2	6.1
	30대	0.0	0.0	38.1	47.6	14.3	0.0
	40대	0.0	0.0	80.0	0.0	20.0	0.0
	50대	0.0	0.0	57.9	36.8	5.3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60.0	20.0	0.0
	전문학교	0.0	0.0	58.3	25.0	16.7	0.0
	고등중학교	0.0	0.0	50.0	32.8	14.1	3.1
	인민학교	0.0	0.0	16.7	50.0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41.7	41.7	16.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48.6	32.4	16.2	2.7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0.9	26.4	18.9	3.8
	없다	0.0	0.0	41.2	47.1	11.8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47.1	11.8	41.2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1.8	45.5	10.9	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20.0	6.7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68.2	18.2	13.6	0.0
	없다	0.0	0.0	25.6	51.2	18.6	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40.9	34.1	20.5	4.5
	결혼(동거 포함)	0.0	0.0	52.8	36.1	11.1	0.0
	이혼	0.0	0.0	40.0	40.0	2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문81)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0)	1.1%(1)	51.7%(45)	29.9%(26)	12.6%(11)	4.6%(4)
성별	남자	0.0	0.0	52.6	28.9	15.8	2.6
	여자	0.0	2.0	51.0	30.6	10.2	6.1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75.0	0.0
	20대	0.0	3.0	33.3	39.4	18.2	6.1
	30대	0.0	0.0	57.1	38.1	4.8	0.0
	40대	0.0	0.0	90.0	0.0	10.0	0.0
	50대	0.0	0.0	68.4	21.1	0.0	10.5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20.0	20.0	20.0
	전문학교	0.0	8.3	75.0	8.3	8.3	0.0
	고등중학교	0.0	0.0	51.6	32.8	12.5	3.1
	인민학교	0.0	0.0	16.7	50.0	16.7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83.3	8.3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4	47.3	32.4	13.5	5.4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1.9	60.4	24.5	7.5	5.7
	없다	0.0	0.0	38.2	38.2	20.6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41.2	23.5	29.4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8	50.9	38.2	7.3	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6.7	13.3	1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2.3	65.9	18.2	11.4	2.3
	없다	0.0	0.0	37.2	41.9	14.0	7.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2.3	38.6	34.1	20.5	4.5
	결혼(동거 포함)	0.0	0.0	63.9	27.8	5.6	2.8
	이혼	0.0	0.0	80.0	20.0	0.0	0.0
	무응답	0.0	0.0	5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문82)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0)	1.1%(1)	43.7%(38)	44.8%(39)	6.9%(6)	3.4%(3)
성별	남자	0.0	0.0	52.6	36.8	7.9	2.6
	여자	0.0	2.0	36.7	51.0	6.1	4.1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50.0	25.0
	20대	0.0	3.0	24.2	57.6	12.1	3.0
	30대	0.0	0.0	57.1	42.9	0.0	0.0
	40대	0.0	0.0	70.0	30.0	0.0	0.0
	50대	0.0	0.0	57.9	36.8	0.0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80.0	0.0	0.0
	전문학교	0.0	0.0	50.0	41.7	8.3	0.0
	고등중학교	0.0	1.6	45.3	42.2	7.8	3.1
	인민학교	0.0	0.0	33.3	50.0	0.0	16.7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75.0	25.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4	39.2	47.3	8.1	4.1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41.5	50.9	3.8	3.8
	없다	0.0	2.9	47.1	35.3	11.8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9	35.3	52.9	0.0	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0.0	49.1	9.1	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20.0	6.7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0.0	40.9	9.1	0.0
	없다	0.0	2.3	37.2	48.8	4.7	7.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34.1	47.7	13.6	4.5
	결혼(동거 포함)	0.0	2.8	55.6	41.7	0.0	0.0
	이혼	0.0	0.0	60.0	40.0	0.0	0.0
	무응답	0.0	0.0	0.0	5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문83)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0)	0.0%(0)	54.0%(47)	36.8%(32)	8.0%(7)	1.1%(1)
성별	남자	0.0	0.0	60.5	26.3	10.5	2.6
	여자	0.0	0.0	49.0	44.9	6.1	0.0
연령대	10대	0.0	0.0	25.0	25.0	50.0	0.0
	20대	0.0	0.0	45.5	45.5	6.1	3.0
	30대	0.0	0.0	52.4	38.1	9.5	0.0
	40대	0.0	0.0	90.0	10.0	0.0	0.0
	50대	0.0	0.0	57.9	36.8	5.3	0.0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60.0	20.0	0.0
	전문학교	0.0	0.0	58.3	25.0	16.7	0.0
	고등중학교	0.0	0.0	56.3	37.5	4.7	1.6
	인민학교	0.0	0.0	50.0	33.3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75.0	16.7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1.4	39.2	8.1	1.4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0.9	39.6	7.5	1.9
	없다	0.0	0.0	58.8	32.4	8.8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8.8	23.5	17.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9.1	41.8	7.3	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33.3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61.4	31.8	6.8	0.0
	없다	0.0	0.0	46.5	41.9	9.3	2.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45.5	40.9	11.4	2.3
	결혼(동거 포함)	0.0	0.0	61.1	33.3	5.6	0.0
	이혼	0.0	0.0	80.0	20.0	0.0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문84)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0)	0.0%(0)	51.7%(45)	37.9%(33)	5.7%(5)	4.6%(4)
성별	남자	0.0	0.0	47.4	42.1	5.3	5.3
	여자	0.0	0.0	55.1	34.7	6.1	4.1
연령대	10대	0.0	0.0	25.0	50.0	25.0	0.0
	20대	0.0	0.0	45.5	45.5	6.1	3.0
	30대	0.0	0.0	61.9	28.6	0.0	9.5
	40대	0.0	0.0	70.0	20.0	10.0	0.0
	50대	0.0	0.0	47.4	42.1	5.3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40.0	0.0	20.0
	전문학교	0.0	0.0	50.0	33.3	16.7	0.0
	고등중학교	0.0	0.0	56.3	34.4	4.7	4.7
	인민학교	0.0	0.0	16.7	83.3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58.3	33.3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1.4	37.8	5.4	5.4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6.6	35.8	3.8	3.8
	없다	0.0	0.0	44.1	41.2	8.8	5.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8.8	41.2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5.5	40.0	9.1	5.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26.7	0.0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59.1	31.8	6.8	2.3
	없다	0.0	0.0	44.2	44.2	4.7	7.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50.0	36.4	6.8	6.8
	결혼(동거 포함)	0.0	0.0	52.8	44.4	2.8	0.0
	이혼	0.0	0.0	60.0	20.0	20.0	0.0
	무응답	0.0	0.0	5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문85)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0)	0.0%(0)	32.2%(28)	33.3%(29)	26.4%(23)	8.0%(7)
성별	남자	0.0	0.0	36.8	26.3	26.3	10.5
	여자	0.0	0.0	28.6	38.8	26.5	6.1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75.0	0.0
	20대	0.0	0.0	21.2	48.5	24.2	6.1
	30대	0.0	0.0	33.3	38.1	19.0	9.5
	40대	0.0	0.0	40.0	0.0	50.0	10.0
	50대	0.0	0.0	52.6	21.1	15.8	10.5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40.0	40.0	0.0
	전문학교	0.0	0.0	66.7	8.3	16.7	8.3
	고등중학교	0.0	0.0	29.7	35.9	25.0	9.4
	인민학교	0.0	0.0	0.0	50.0	5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41.7	16.7	33.3	8.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31.1	35.1	25.7	8.1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37.7	32.1	18.9	11.3
	없다	0.0	0.0	23.5	35.3	38.2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35.3	47.1	17.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30.9	32.7	27.3	9.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33.3	20.0	33.3	13.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43.2	20.5	27.3	9.1
	없다	0.0	0.0	20.9	46.5	25.6	7.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27.3	34.1	29.5	9.1
	결혼(동거 포함)	0.0	0.0	41.7	33.3	22.2	2.8
	이혼	0.0	0.0	20.0	20.0	40.0	20.0
	무응답	0.0	0.0	0.0	5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문86)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0)	0.0%(0)	59.8%(52)	27.6%(24)	10.3%(9)	2.3%(2)
성별	남자	0.0	0.0	52.6	28.9	15.8	2.6
	여자	0.0	0.0	65.3	26.5	6.1	2.0
연령대	10대	0.0	0.0	25.0	0.0	75.0	0.0
	20대	0.0	0.0	51.5	36.4	9.1	3.0
	30대	0.0	0.0	57.1	33.3	9.5	0.0
	40대	0.0	0.0	80.0	10.0	10.0	0.0
	50대	0.0	0.0	73.7	21.1	0.0	5.3
	60대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20.0	40.0	0.0
	전문학교	0.0	0.0	75.0	8.3	16.7	0.0
	고등중학교	0.0	0.0	60.9	29.7	6.3	3.1
	인민학교	0.0	0.0	33.3	50.0	1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75.0	8.3	16.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0.0	58.1	29.7	9.5	2.7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66.0	26.4	5.7	1.9
	없다	0.0	0.0	50.0	29.4	17.6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64.7	29.4	5.9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6.4	30.9	10.9	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6.7	13.3	13.3	6.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70.5	18.2	11.4	0.0
	없다	0.0	0.0	48.8	37.2	9.3	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0.0	54.5	25.0	18.2	2.3
	결혼(동거 포함)	0.0	0.0	66.7	33.3	0.0	0.0
	이혼	0.0	0.0	60.0	20.0	20.0	0.0
	무응답	0.0	0.0	5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㉔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㉕ 학술인·예술인·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1	2	3	4
㉖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1	2	3	4
㉗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 ②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 ③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 ④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 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9.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 ① 북한에서 살 것이다.
- ② 남한에서 살 것이다.
- ③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 ④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10.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에 대한 내용을 주로 어디서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 ① 로동신문
- ② 학교교육
- ③ 기타교양

11.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위에서 선택한 곳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제국주의 교양
- ② 남한에 대한 이해
- ③ 남조선 해방
- ④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 ⑤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 ⑥ 통일의 이익

### 대남 인식

12.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① 남한은 북한이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 ② 남한은 북한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③ 남한은 북한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④ 남한은 북한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⑤ 남한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1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㉔ 4.19 혁명	1	2	3	4
㉕ 5.18 광주항쟁	1	2	3	4
㉖ 88서울올림픽	1	2	3	4
㉗ 2002 월드컵	1	2	3	4
㉘ 세월호 사건	1	2	3	4
㉙ 개성공업지구 운영	1	2	3	4

1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접해봤다.
- ② 한두 번 접해봤다.
- ③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14-1. (14번에서 ①과 ②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십니까?

- ①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 ②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 ③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 ④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14-2.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 ① 매우 친숙했다.
- ② 약간 친숙했다.
- ③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 ④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14-3.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호감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 ② 호감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 ③ 호감도에 변화가 없었다.
- ④ 호감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 ⑤ 호감도가 매우 감소하였다.

15.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㉔ 선거방식	1	2	3	4
㉕ 사회복지	1	2	3	4
㉖ 언어사용	1	2	3	4
㉗ 생활풍습 (관혼상제 등)	1	2	3	4
㉘ 가족에 대한 중시	1	2	3	4
㉙ 돈에 대한 중시	1	2	3	4

1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있다.
- ② 약간 있다.
- ③ 별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1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위협적이다.
- ② 다소 위협적이다.
- ③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 ④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18.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도		약간		매우 부정
	매우 긍정	약간 긍정	약간 부정	매우 부정	
㉔ 남한의 대북지원	1	2	3	4	5
㉕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1	2	3	4	5
㉖ 개성공업지구	1	2	3	4	5

### 북한실태 변화

21.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②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③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④ 전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미만
- ② 20%
- ③ 30%
- ④ 40%
- ⑤ 50%
- ⑥ 60%
- ⑦ 70%
- ⑧ 80%
- ⑨ 90% 이상

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 ②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 ③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약간 있다.
- ③ 대체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2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미만
- ② 5~10년
- ③ 10~15년
- ④ 15~20년
- ⑤ 20~30년
- ⑥ 30년 이상
- ⑦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했다.
- ② 다소 찬성했다.
- ③ 반반/그저 그랬다.
- ④ 다소 반대했다.
- ⑤ 매우 반대했다.

2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 ②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 ③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 ④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 ⑤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 ⑥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 ⑦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 ⑧ 통일이 되지 않아서
- ⑨ 기타 ( )

29.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 ②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 ③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④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0.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30%미만            ② 30~50%
- ③ 50~70%          ④ 70~90%
- ⑤ 90% 이상

3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 ①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 ②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③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 ④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3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 ① 자주 가보았다.
- ② 가끔 가보았다.
- ③ 거의 가보지 못했다.

3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 ②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 ③ 나(또는 가족)가 훨씬 더 우선이다.
- ④ 나(또는 가족)가 조금 더 우선이다.

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 ①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 ②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 ③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 ① 로동신문
- ② 방송
- ③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 ④ 강연, 학습
- ⑤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방송·통신, 배라 등)

3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족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돈 \_\_\_\_\_ 원)

3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교육기관이나 언론에서 인권(혹은 인민의 권리)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들었다.
- ② 몇 번 들어본 적 있다.
- ③ 들어본 적 없다.

3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당국(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보통이다
- ③ 아니다.

4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4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 주변국에 대한 인식

3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4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4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국                    ② 미국
- ③ 러시아                    ④ 일본
- ⑤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 남한사회 적응실태

44.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남한 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③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④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5.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포용적이다.
- ② 약간 포용적이다.
- ③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 ④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46.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는 남한사람이다.
- ② 나는 북한사람이다.
- ③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7.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8.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㉒ 언어, 관습 등의 문화적 차이	1	2	3	4
㉓ 질병 등 건강의 문제	1	2	3	4
㉔ 취업 등 경제적 문제	1	2	3	4
㉕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	1	2	3	4
㉖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1	2	3	4
㉗ 타향살이에서 오는 심리적 외로움	1	2	3	4

49.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0.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NGO 등 민간단체의 지원
- ②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
- ③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
- ④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51. 귀하의 현재 남한 생활은 귀하가 북한에서 살고 계실 때 생각했던 남한의 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 ① 매우 가깝다.
- ② 다소 가깝다.
- ③ 별로 가깝지 않다.
- ④ 전혀 가깝지 않다.

52. 귀하는 탈북 후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약간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3. 귀하께서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다?

- ①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정치적 탄압
- ② 경제적 어려움
- ③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
- ④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 ⑤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

54.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하다	다소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㉒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1	2	3	4
㉓ 한국 국적을 갖는 것	1	2	3	4
㉔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1	2	3	4
㉕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1	2	3	4
㉖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1	2	3	4
㉗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1	2	3	4
㉘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1	2	3	4
㉙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1	2	3	4
㉚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1	2	3	4

### 인구통계학적 정보

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Q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        )년

Q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        )년 월

Q4.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        )년 월

**Q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 ① 평양            ② 남포
- ③ 개성            ④ 평안남도
- ⑤ 평안북도      ⑥ 함경남도
- ⑦ 함경북도      ⑧ 자강도
- ⑨ 양강도        ⑩ 황해남도
- ⑪ 황해북도      ⑫ 강원도

**Q6.**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대학교        ② 전문학교
- ③ 고등중학교    ④ 인민학교
- ⑤ 무학

**Q7.** 북한에서 직업은 무엇이셨습니까?

- ① 노동자        ② 농민
- ③ 사무원
- ④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 ⑤ 학생          ⑥ 군인
- ⑦ 외화벌이일군 ⑧ 장사
- ⑨ 가정부인      ⑩ 무직 및 기타

**Q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당원이었습니까?

- ① 당원    ② 후보당원    ③ 비당원

**Q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식적인 월급(생활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원)

**Q1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원)

**Q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12.** 귀하는 북한을 떠난 후에도 북한 지역의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 ②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 ③ 거의 접할 수 없었다.

**Q13.**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이전에 남쪽에 혈육이나 친척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1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미혼    ② 결혼 (동거 포함)    ③ 이혼

**Q15.** 귀하의 현재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Q16.**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
- ② 계약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③ 일용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④ 고용자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 ⑤ 자영업자 (자기 혼자나 무급 가족의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 ⑥ 실업자 (일자리가 없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중인 사람)
- ⑦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예. 학생, 주부, 근로 무능력)

**Q17.** 남한에서 귀하는 월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북한돈            원)

**Q18.** 귀하의 월 평균 근로일수와 하루의 평균 근로시간을 적어주십시오.

- ① 월 평균 근로 일수 \_\_\_\_\_ 일
- ② 하루 평균 근로 시간 \_\_\_\_\_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3

#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8

인 쇄 2019. 03. 01  
발 행 2019. 03. 01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임경훈  
저 자 정동준 · 천경효 · 문인철 · 엄현숙 · 조동준 · 임경훈 · 이정옥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전 화 02)880-4052-4, 874-7304  
팩 스 02)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02-722-7123)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8

저자: 정동준, 천경효, 문인철, 엄현숙, 조동준, 임경훈, 이정옥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43)

ISBN 979-11-961299-8-9 93340 : 비매품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